# 외대학보

진리 평화창조

1999년 1월 18일 (월) 제730호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조규철 편집인겸 주간 고영훈 편집장 박윤정 인쇄인 홍윤주 외대신문사 961-4151, 962-7128(F)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서울)961-4152, 4466 FAX 961-4183 (용인) 0335-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 89


The Washington Times

"미국과 한국(남한)은 평양을 점령하고 북한을 완전히 격멸하는 내용의 새로운 전쟁계획을 마련중이라고 미 행정부 관리가 전했다." (98. 11. 19)

The New York Times

"94년 핵합의가 깨진다면 한반도에는 또다시 전쟁발발 위험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이 이라크사태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99. 1.3)

The Guardian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북한을 침공해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킨다는 계획을 언론에 흘리는 등 북한에 강경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클린턴 대통령이 최근 북한에 대해 "제네바 합의 의무를 준수하라"고 경고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성이 거의 이라크 수준임을 시사했다." (98. 11. 26)

朝日新聞

"앞으로 수개월 동안 북한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될 것이며 내년 2월경 사태가 긴박해질 가능성이 있다." (98. 12. 23)

REUTERS

"이북의 침공에 대비한 전쟁연습이라는 방어적 가면은 이제 완전히 벗겨졌다. 이제는 그 누구도 미국과 일본, 한국이 이북을 침공하려는 데에 대해 부인할 수 없다. 불이 달린 북침 도화선이 언제 터질지는 시간문제이다."

전세계의 이목이 한반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연일 한반도의 전쟁위기에 대해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계획인 미국의 '5027 작전계획'이
남한에서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전쟁을 자국위기의 돌파구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외세에 의해 초토화 될 운명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공멸을 초래하는 전쟁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사설

# 미국, 한반도내 전쟁위기 조성

### '반미반전' 투쟁으로 전쟁위기 극복해야

지난 11월 19일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태천군 금창리 소재 지하시설에서 핵개발로 의심되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며, 금창리 지하시설의 현장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북한은 금창리 지하시설은 순수한 '민수용'이라고 주장, 사찰 댓가로 3억달러의 보상을 요구했고 미국은 이것이 94년 체결된 제네바 핵협정 위반이라고 맞서 한반도의 팽팽한 긴장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11월 20일 한국을 방문한 미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의 핵의혹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해 "북한의 위협에 대해 군사적 조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새해 들어 이러한 긴장국면은 전쟁의 징후로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일 미 뉴욕타임즈는 "94년 이후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발발 위험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이 이라크 사태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천용택 국방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북침전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고, 미국은 제2의 핵무력 북침전쟁 계획인 '신 5027 작전계획'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리는 등 북한에 계획적으로 강경신호를 보내고 있다.(영국 일간 가디언지)

미국내 북한전문가들도 문제가 된 금창리 지하시설이 핵기지일 가능성은 없다고 진단하고 있고, 제네바 합의에 임의적 사찰을 허용하는 조항이 없음에도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의 핵기지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은 제네바 협상에서 북과 합의한 '북의 경제봉쇄 완화' '경수로 지원 약속'도 이행하지 않는 등 합의사항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런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제네바 협정 운운하는 것은 기만인 것이다.

이제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지역을 잠식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더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지난 1년 동안 남한 민중들은 IMF 체제하에서 생존권의 문제로 신음해왔다.

정리해고 전면 시행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일방적 구조조정, 원칙없는 민영화 정책, 기업의 연쇄도산으로 노동자들은 대책없이 거리로 내몰렸으며, 800만에 육박하는 실업자,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자살을 택하는 사람이 매달 2,000여명에 이르는 등 민중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그 과정에서 민중들은 남한 경제를 결국은 잠식하겠다는 IMF의 본질, 미국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으로 통일을 열망하는 민중의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남한의 정치, 경제, 군사주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 이제는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민족공멸의 길인 핵무력 전쟁책동까지 벌이고 있음을 직시하고 반미투쟁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 나아가 남한의 반미기운을 고조시켜 남북이 함께 조국통일의 기운을 높여내야 한다. 현재 북한은 미국의 전쟁책동을 결사반대하며, '제네바 합의사항 이행' '북미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고 있다.

위기는 기회다. '반미반전' 투쟁으로 현재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타개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아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이다.

## 운영 주체 모순딛고 개혁체제 구축하자

변형윤
〈이사장〉

인류 역사상 하나의 굵은 획을 그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실무에 밝은 수많은 인재를 길러 냄으로써 한국의 현대화와 국제화에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역할과 공헌을 해 왔습니다. 또한 오랜 군부독재시절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은 줄기찬 반독재 투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민족통일운동에도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겼습니다.

재단 일을 맡은 뒤 이 사람은 처음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같이 훌륭한 대학이 어떻게 하여 분규에 빠지고 옛날의 명성을 지키지 못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답은 나왔습니다. 재무구조도 비교적 충실하고, 교수, 직원, 학생 등 인적자원도 우수한데다가, 수십년 동안 형성된 선후배간의 오랜 전통이 있지만, 문제는 바로 운영주체에 있었다는 것이 해답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올해는 이들 과제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작년부터 시작된 개혁과 정상화를 일관되게 추진 할 수 있도록 내부의 분규 요인을 완만하게 극복하고 안정된 개혁체계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해서 각급 행정조직의 비효율성과 예산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행정체계와 건전한 재정을 구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각종 학사제도를 진취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재단 재산 내역을 면밀히 파악한 후에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수익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명목적으로만 있었던 재단 전입금을 얼마간이라도 실질적으로 학교에 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난해 IMF로 인해 우리나라도, 우리학교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900억원의 예산이 750억원으로 축소되었지만 우리는 다른 부분의 예산을 절감할지언정 다른 학교처럼 급여를 줄이면 안된다는 방침을 관철했습니다. 이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만 더 고생하면 내년에는 교직원들의 복지가 어느정도 개선되지 않을까 낙관해 봅니다.

이 사람은 나의 힘이 미치는 한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제 2의 건학'에 성공하여 과거의 빛나던 명성을 되찾고, 21세기에는 세계속에 특성화된 최우수대학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가족 여러분도 한 마음 한 뜻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서 각자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고 총결산하면서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굳건한 기틀을 마련하는 뜻 깊은 한해가 되기를 빌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빕니다.

## 외대의 장기적인 발전안 확정하는 한 해로

조규철
〈총장〉

유달리도 다사다난했고 역경으로 할 일이 많았던 1998년이 이제 가고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외대인 여러분 가내의 행운을 빌면서 계획하신 모든 일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999년은 21세기를 준비하고 21세기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앞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시대는 우리를 앞서 나갈 것입니다. 이미 그간 크고 작은 오류로 인해 우리 외대가 다른 대학들보다 다소 뒷쳐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 모두의 단합된 힘을 통해서 학교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개혁과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개혁과 변화는 또한 꾸준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진해야 할 변화들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구체적인 것입니다. 새해에는 먼저 자곡동 부지를 확정해서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안을 확정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 전산화를 가속화해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대학운영의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고객이 제일인 시대, 우리의 고객은 학생이며 학생 모두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학생으로 그 역량을 키우는 일이며 이점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학생들의 교육의 강도와 수준을 높이는 일도 진행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 교수님들의 연구분위기를 더욱더 진작시키기 위한 조치들도 마련될 것입니다.

금번 대학입시 전형 결과를 보고 여러 교직원들이 느끼셨다시피,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과감한 입시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수한 외국어 실력이 있는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학제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다른 한편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우수한 입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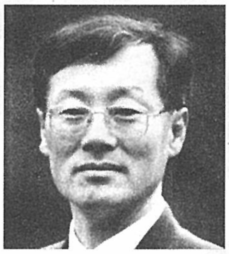
한편으로는 학제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다른 한편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 및 우수한 입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실천 할 것입니다.

지난 98년이 역경의 해였다면 99년은 학교 발전과 질을 높히고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일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98년은 학교 구성원들간의 불화와 내분이 있었던 해였으나 금년부터는 대화합을 이루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를 우리가 제2건학의 원년으로 삼았듯이 금년은 제2건학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도약의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해 동안 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일년 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희망과 자신감 속에서 21세기로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신념속에서 올 한해를 우리 대학교가 발전하고 질적으로 향상하면서 대화합하는 해로 만듭시다.

여러 교직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면서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 학칙 기구화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정일용
〈교수협의회 회장〉

기묘년 새해를 맞아 외대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1999년 새해를 맞는 시점에서 우리 외대인은 남다른 감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의 바로 이 시점이 분규와 갈등 그리고 혼란과 위기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새해를 맞는 이 시점은 진통과 위기의 긴 터널을 벗어나 새로운 관선이사 체제 하에서 명문 사학으로의 새로운 웅비를 준비해야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새해는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문명사적으로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주역을 기르고 배출해야 되는 우리 대학인으로서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재단비리로 인한 분규가운데 커다란 혼란과 정체 그리고 갈등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단 분규에 휩쓸린 다른 사립대학의 예에 비추어 우리 외대는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분규와 위기를 수습하고 안정과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도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름지기 학교비리를 척결하고 정의의 바탕 위에 학교를 다시 바로 세우겠다는 우리 외대 구성원 모두의 열정과 단결 그리고 민주적 역량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수협의회가 대학의 정상화와 개혁의 과업에 올바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성원하여 주신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외대 구성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명문사학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은 우리 외대인의 절실한 소망이자 꼭 해내야 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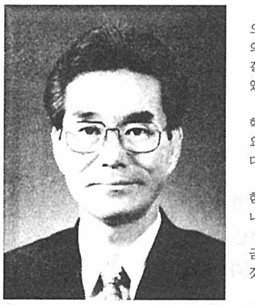
그러한 소망과 과제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작성되고 실천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외대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는 외대 각 구성원의 자기 혁신과 외대 각 부분의 창조적인 혁신이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협의회(교협)가 이러한 과업의 견인차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뜻과 힘을 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월로 현 교협 임원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남은 임기 안에 교협이 학칙 기구화 되어 교협의 위상이 제고되고 학교 개혁과 발전의 주체이자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교협이 학칙 기구화 됨으로써 교수들의 학교 개혁과 발전에 대한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참여의 폭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교협의 학칙 기구화에 교수님 여러분 그리고 외대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해는 명문 사학으로의 웅비를 위한 힘찬 시도가 이루어지고 우리 외대인 모두의 소원이 다 이루어 지기를 기원합니다.

## 교육 · 민주사회 개혁운동에 전력다할 것



장 건
〈노동조합장〉

기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외대 가족 여러분, 올해는 각자 가지신 복을 누리는 한 해 되시기를 빕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의 꿈같은 외대개혁의 역사발전을 통하여 정도가 무엇인가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은 외대의 주인은 몇 몇 힘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동안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연구와 학업에 매진해온 교수와 학생, 그리고 궂은 일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온 조합원들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외대는 한국현대사의 큰 획을 긋는 50년만의 정권교체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교육개혁의 일환인 사립대학개혁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사명이며 또한, 우리들이 바라던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IMF 관리체제로 인한 구조조정의 거대한 파도가 대량실업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불안이 노동자들의 숨통을 옥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값은 노동자로써 이 일에 맞서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량실업사태는 가정경제를 얼어붙게 하였으며 가정경제의 파탄을 많은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는 미등록 사태를 몰고와, 결과적으로는 대학 재정의 압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와중에서 임금동결을 전제한 대학당국과 대항하여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을 요구해야하는 이중의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외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대학의 현실을 분담할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인상반대 투쟁과 재단전입금확충 요구는 대학당국이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재단이사회를 통한 투명한 재단경영과 민주적 학교운영을 기대하고 있는 지금에 있어 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학교당국의 개혁작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된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복리증진 뿐만 아니라, 임금에 관해서도 학교당국을 신뢰하고 그 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노동조합과 합의하지 않는 어떠한 구조조정도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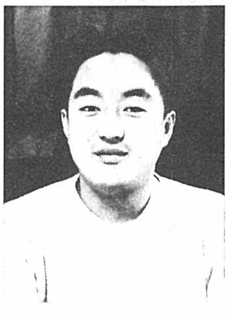
우리 노동조합은 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립하여 학사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는 협력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외대 제2건학의 성공과 21세기로의 진보를 향한 정보화와 세계화에 발맞추어 조합원들 스스로 교육에 힘쓰며, 아울러 외대공동체의 각 주체와 적극 연대하여 일치된 외대발전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노동조합은 전국대학노동조합의 일원으로서 오랜 투쟁을 통하여 합법성을 쟁취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교육노동자로서의 자랑스런 긍지를 가지고 교육개혁과 민주사회개혁운동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외대가족 여러분, 새 천년을 준비하는 1999년, 우리들의 일터에서 '잘하는 것을 더 잘하는' 기쁜 마음으로 한 해를 살기를 기원합니다.

## 학생들의 힘으로 외대를 외대답게



이현수
〈서울배움터 33대 총학생회장, 사회 · 신방 4〉

1999년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98년도 지나고 새롭고 신선한 한 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98년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기적같았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갑니다. 박승준을 몰아내기 위해 1600여명이 모여서 성사시킨 비상학생총회, 그리고 25대의 교육부 항의방문을 한 전세버스, 75%가 넘는 학우들의 참여로 성사시킨 총파업, 그리고 재단이사진 전원퇴진...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7000학우들이 자주적인 힘으로 외대를 외대답게 만들어 보고자 했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마음을 가지기도 전에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이루지 못한 많은 일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 같습니다.

벌써 구 재단세력의 힘을 빌어 계속해서 학교로 들어오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논의하고 추진해야 할 학교는 서로간의 주도권 싸움속에서 어떠한 대안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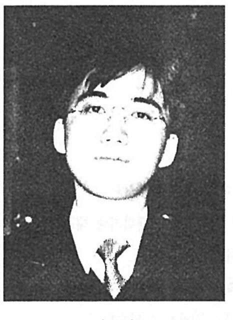
우리는 지난 상처를 잊고 새롭게 외대를 아름답게 만들어 보고자 제 2건학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민주적 제도를 통하여 교수, 학생, 직원이 함께 합의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외대의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바로 98년 총학생회가 학우들의 힘에 근거하면서 외대발전을 위해서 투쟁하였던 것처럼 21세기를 준비하는 외대는 이러한 승리의 감동을 이어 새세기의 무한질주를 준비할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왕산 중심, 통합발전'으로 외대 발전 이룩하자



신동헌
〈용인배움터 20대 총학생회장, 동구 · 헝가리 3〉

새세기의 희망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199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해,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던 절망과 버거움이, 올해에는 제발 희망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론과 정부는 연일 빅딜이니 외자유치니 하며, 경제가 호전되고 있으니 '조금만 더 참자'며 여전히 우리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있고, IMF를 앞세워 우리 경제를 주물러온 미국의 공세는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2-3월 한반도 전쟁설'까지 연일 외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희망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고통받는 이 시대 민중들에게 진정한 희망으로 자리잡아야 할 학생운동의 사명을 다시 한 번 깊이 가슴에 새깁니다. 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하고 생업전선으로, 군대로 쓸쓸히 발길을 돌리는 30만 대학생과 부모님들의 고통을, 이제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등록금 삭감으로 우리 부모님들과 민중들의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투쟁은, 남의 얘기도, 비현실적인 것도 아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투쟁입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벽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99년은 교육개방을 1년 남겨놓은 해입니다. 지난해 재단사태로 위상이 실추된 외대가, 민족사학으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위상을 되찾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21세기 외대발전에 대한 구체적 전망과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왕산중심의 외대 통합발전 논의를 통해, 생사의 위기에 놓인 왕산과 외대의 살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99년, 우리들의 단결된 힘으로, 희망을 되찾아냅시다.

# 계절학기 수강하기 어렵네

## 대학당국, 계절학기 강의내용 등 홍보 거의 안해

지난 달 22일(화)부터 이번 달 12일(화)까지 16일간 시행 된 계절학기에서 △수강 인원 제한초과 △입시로 인한 강의실의 잦은 변동 △수업료 부담 등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 그런 가운데 수강신청 취소마저 불이익이 학생들에게 뒤따르게 되자 계절학기 전반에 대한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계절학기 운영규정 제 1조에 따르면 '매 학기의 정규 수업 기간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교과목을 방학기간에 이수케 함으로써,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과목을 설치할 뿐 행정상의 절차와 제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어 학생들이 계절학기를 수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 중 수강신청 부분은 행정운영의 문제를 극명히 보여주는데, 수강신청 시 개설과목과 강사명만 공고해 놓음으로서 학생들이 개강 전에 수강신청할 강의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와 관련해 교무처 담당자는 "계절학기 강의는 학기 정규 강의 중 학생들의 희망 여부에 따라 개설된 것이므로 강의 내용은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학교 학생들 모두가 정규강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학술교류협정에 의해 타학교 학생들도 수강하고 있기 때문에 계절학기 강의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해설을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관련 다른 학교 학생으로서 계절학기 수강을 한 김선우(서울대, 소비자학 2)양은 "외국어나 지역학 등 외국어대 특성에 맞는 강의가 개설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학교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교양과목 위주여서 실망했다"며 "공문상으로 계절학기 개설과목이나 강의내용 등이 첨부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수강신청할 '강의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학교측에서 배려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전 홍보 부실로 인해 학생들은 계절학기 수업을 들은 후에야 수강신청 변경이나 취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행·재정적으로 수강신청 변경이나 취소는 개강전에 해야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다. 만약 개강 후 취소했을 때에 대학당국에서는 지난 해 7월 교육부 '수업료 반환 규정'에 의거, 수업 일수의 1/3, 1/2선을 적용해 이를 뺀 나머지 등록금만 반환해 주며, 변경하는 것 역시 처음부터 변경한 수업을 듣지 못해 짧은 기간에 학점을 취득하는 계절학기에 있어서는 치명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계절학기의 문제점에 대해 이문희(사회·신방 3)군은 "첫 강의를 듣고 예상했던 수업 내용과 다를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개강 후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강의를 수강 할 수 있는 기회의 박탈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계절학기에 지적된 문제점들을 토대로 대학당국은 계절학기 강의내용과 행정적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개강 전·후 일정기간 동안에 변경, 취소, 등록금 반환을 가능하게 하여 학생들의 과목 선택 기회를 최대한 늘리는 것으로 위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계절학기 운영규정에 서술된 대로 계절학기의 의미가 '정규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과 학점을 취득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규학기와는 차별성있는 여러 학문을 학생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역시 필요하다.

우혜나 기자

## 한총련 반미반전 투쟁선포

'한총련선봉대 발대식 및 한총련 동시다발 반미반전 투쟁선포식'이 지난 1월 5일(화) 한양대에서 서총련(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학생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경찰은 집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불심검문을 하였으며 '미국에 의한 전쟁책동분쇄, 주한미군철거, IMF경제침탈분쇄' 등을 요구하며 정문을 나서려는 학생들을 막았다.

이에 반발한 학생들과 경찰 간의 투석전에서 건국대 이병주(공대 97)군이 전투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현재 실명위기에 처해있다.

정효정 기자

## 공장활동, 노동자의 현실 체험

용인배움터 총학생회는 지난 21일(월)부터 공장활동(공활)을 시작해 오는 20일(수)경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민중을 배우고 민중에 대한 사랑을 키우자'는 기치 아래 벌이는 공장활동에서는 20여명의 학생들이 용인, 광주, 성남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구해 하루 평균 10시간씩 공장활동을 한다.

이번 공장활동은 노동의 가치와 IMF 이후 노동자들의 구체적 현실을 일깨우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공장 활동 후에는 모현에서 합숙을 진행하는데 '노동자에게서 배운다'라는 주제로 우리학교출신 선배의 초청 강연, 간부론 강연, 노동관련 비디오 상영도 활동의 연장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장 신동헌(동구·헝가리 3)군은 "비록 20여명의 학생회 간부들만 참여하는 공장활동이지만 높은 결의와 다짐으로 시작한 만큼 간부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장활동이 끝난 후 임금의 10%는 방중 등록금 투쟁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우혜나 기자

## 32대 오승훈 총학생회장 불구속기소

### 국보법 폐해 드러내는 마구잡이식 연행

서울배움터 32대 총학생회장 오승훈(상경·경영 4)군이 지난 6일(수) 제주도 자택에서 청량리 경찰서 보안과 형사들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제 연행됐다가 8일(금) 불구속으로 풀려났다. 경찰측은 농활이나 새터, 일꾼수련회 등의 활동과 교양 자료집의 내용에서 이적성을 보였다는 것이 총학생회장의 연행 및 구속사유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33대 부총학생회장 이상건(서양·불어 4)군은 "요즘 학생회 간부들에 대한 마구잡이 형태의 연행이 벌어지고 있는게 사실이다"며 "특별한 혐의 없이 일단 연행한 후 죄목을 찾는 형식의 건수 올리기 식의 이러한 행태는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99년 학생회에 대한 사전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 정시모집 경쟁률 3.91대 1

### 특차, 경쟁률 1.26대 1로 미달과 속출해

지난 12월 30일 99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총평균 3.91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마감됐다.

28일부터 3일간 접수된 99년도 원서 접수 결과 서울배움터 영어과와 용인배움터 환경·생명 공학부가 각각 7.97대 1과 7.0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배움터 별로는 서울배움터 평균 4.41대 1, 용인 배움터 3.91대 1의 정시모집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작년의 5.12대 1, 4.35대 1에 비해 많이 떨어진 수치이다.

오는 18일(월)에 치러지는 정시모집 전형에서, 양 배움터 인문계 지원자는 논술 고사와 면접시험을 치루며 자연계 지원자는 논술 없이 면접만 치루게 된다.

또한 교육부 주최 전국 고등학교 외국어 및 수학, 과학 경시대회에서 동상 이상 입상한 경력이 있는 지원자에게는 가산점이 부과되는데 인문계는 외국어영역, 자연계는 수리탐구 I 영역에 한한다.

한편, 지난달 22일 접수마감된 특차 일반전형의 경우 총 1.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용인 배움터의 경우 일부 학과들을 제외하고는 지원자가 한명도 없는 과가 속출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류재석 기자

## 국제번역원 오는 3월 개원

### 체계적 번역사업으로 21세기 국가발전을 선도할 터

오는 3월 전문적인 번역사업을 펼칠 우리학교 부설 국제번역원이 개원한다.

지난 12월 17일 이사회에서 가결 승인된 국제번역원은, 기존에 개별로 분산되어 진행됐던 번역사업들을 우리학교의 우수한 외국어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기구화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번역사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번역원은 한국어-외국어 번역부, 외국어-한국어 번역부 등으로 나눠지며 번역의 전문화를 위해 부서 밑에 인문·자연·문학팀을 둘 예정이다. 또한 이번의 국제번역원 개원으로 문예진흥원, 번역금고, 한국학술진흥원 등에서 매년 번역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수십억원의 지원금 중 상당 부분을 우리학교 번역 연구비로 쓰일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철 연구협력처장은 "국제번역원은 외대의 잠재력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가장 실용적 방안이며 7·80년대 외대가 외국어 연수원과 통번역대학원을 통해 외대와 국가발전에 기여했다면 21세기에는 국제번역원이 그 일을 대신할 것이다"며 "이는 우리 외대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번역사업은 한국학을 세계화시키고 세계의 선진 사상을 익혀 나가는 첫걸음이며 그 역할을 국제번역원이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 빈의자 — 99년의 숙제

▲21세기를 한 해 앞둔 금세기 마지막 해인 1999년 새해가 밝아오자 남은 '1년'을 두고 말이 많다.

▲밀레니엄 버그, 혹은 Y2K문제로 알려진 컴퓨터의 2,000년 인식문제부터가 그렇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밀레니엄 버그란 네 자리로 표시돼야 하는 연도 표시를 컴퓨터에서 두 자리로 표시해온 관행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사실 기술적으로 본다면 아주 단순한 문제이다. 결국 두자리수로 축약 인식하던 것을 네자리수의 값으로 되돌려 주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잘못이 오래 전부터 적용돼 왔으며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까지 파고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대처하지 않는다면 상상할 수 없는 대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권은 경제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미명하에 외자유치를 하고 이를 명목으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공기업의 민영화, 해외매각으로 우리경제는 외국자본의 것이 되어가고 있으며 민중의 경제난은 더 이상 분담 할 고통마저도 남지 않았다. 국민의 80여%가 개정 및 폐지를 찬성하는 구시대악법 국가보안법으로 수많은 양심수들이 감옥안에 갇혀 있고 안기부의 정치사찰과 고문수사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또한 남북한 교류가 확대되면서 절정에 이른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자신의 정권안정화의 근거로 삼으면서 한축으로는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등 북한과의 전쟁을 공공연하게 준비하고 있다.

▲새해를 기다리며 밤을 지새는 것은 새해에 대한 기대 때문일 것이다. 새 천년에 대한 국민의 기대 역시 크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 IMF 경제신탁통치에서 벗어나 민중의 생존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IMF를 내세운 미국의 경제침략의 본질을 인식해야 한다. 분단조국 54년째. 기어이 90년대에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은 금강산 관광길이 열리고 공식·비공식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자국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금창리 핵시설을 걸고 넘어지는 미국과 그에 부화뇌동하는 김대중 정권의 전쟁책동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핵참화로 만들수도 있다.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을 적이라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국을 철수사켜 한반도에서의 평화적 구조를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밀레니엄 버그 해결책과 같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우리의 새천년의 기대를 누가 꺽으려 하는지 말이다.

임승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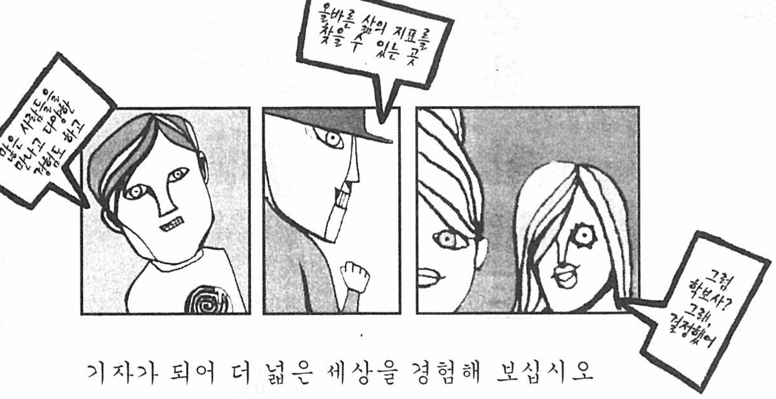
## 지면안내

특집–한반도 전쟁위기설 ········ 4~5면
미국이 핵참화를 일으켜 한반도 전체를 초토화사키려 하는데….
바로 내일, 당신의 머리 위로 핵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다.
사진기획–한총련 명동성당 농성단 ········ 6면
미국의 한반도 전쟁책동을 분쇄하기 위해 모인 한총련 학생들. 미국, "오! 노~"
가상꽁트 ········ 8면
IMF시대 예비실업자 하린이의 겨울방학, 하루이야기!
가상이지만 우리들의 실제 이야기
35회 외대 문학상, 15회 학술상 ········ 12~19면
새내기 특집 ········ 20면
지상중계, 선배가 후배에게 말한다. 대학생활 이렇게만 하면 왕따면한다.

외대학보사 수습모집 광고

4/70

70 평생 중 대학시절 4년을 어떻게 보낼까?




기자가 되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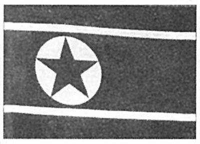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한반도,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맞고 있다 1

# 한-미-일 공조, "한반도를 초토화 시켜라"

특집 - 한반도 전쟁위기설

## 전쟁, 원치 않지만 피하지도 않는다. - 북한



북한은 지난 11월 23일 핵의혹이 있는 지하시설을 건설중이라는 미국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며 "북한에는 지하핵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제네바 합의 불이행을 강도높게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 북은 "북미 기본합의문(제네바 협상)에 따라 대북경제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한 합의문은 파기될 수 있다", "미국은 합의사항인 경수로 본공사 착공을 또다시 연기하는 등 자기의 의무를 똑바로 이행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네바 합의문 항목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찰권을 앞세워 북한의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미국에 대항하는 북한의 입장은 이렇듯 강경하다.

북한은 전쟁을 먼저 일으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은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천명했다.

특히 북한은 한미연합합동군사훈련, 미국의 오키나와지역 통합훈련, 미군가족 피난훈련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만약 미제 호전세력들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 끝끝내 전쟁을 일으킨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에게 단호한 징벌을 안길 것"이라고 공언했다.

현재 북이 요구하는 것은 제네바 합의사안 이행과 북미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이며, 북이 이 요구안을 철회시키거나 양보할 기미는 없어보인다.

"미국과 한국(남한)은 평양을 점령하고 북한을 완전히 격멸하는 내용의 새로운 전쟁계획을 마련중이라고 미 행정부 관리가 전했다."

미국 워싱턴타임즈(98.11.19)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북한을 침공해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킨다는 계획을 언론에 흘리는 등 북한에 강경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클린턴 대통령이 최근 북한에 대해 "제네바 합의 의무를 준수하라"고 경고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성이 거의 이라크 수준임을 시사했다"

영국 가디언지(98.1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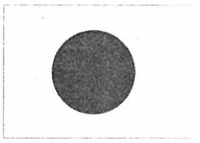
"일본 방위청의 '북한 정세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보류한 한반도에너지기구(KEDO)의 제1단계 자금각출이 99년 3월 1일부터 실시되고, 미국의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대북정책 검토작업이 완료돼 새 정책이 나오는 시점이 내년 2-3월이라는 점 등을 들어 그 시기가 한반도 전쟁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라고 분석했다"

일본 니혼게자이(98.12.19)

"지난 94년 핵합의(제네바 협정)에 이르기전 미국과 북한 사이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 전쟁분위기가 조성됐으며, 따라서 94년 핵합의가 깨진다면 한반도에는 또다시 전쟁발발 위험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이 이라크사태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즈(99.1.3)

## 한반도 전쟁위기, 우리에겐 이득이다. - 일본



한반도 위기에 편승하는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1월 7일 한일 국방분야 장관회담에서는 북한 비정규전에 대비한 양국 국방당국간 긴밀한 연락체제 구축(핫라인), 한일 해군 합동훈련 등을 합의했다.

이후 양국 장관은 "북한 미사일 위협 등 각종 도발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며 "한·미·일 3국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북한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한일 장관회담 전부터 미국과 함께 전역미사일 방위망을 구축하고, 98년 10월 3일에 있었던 한일합동군사훈련에 일본해상자위대의 함선을 참가시키는 등 한·미·일 군사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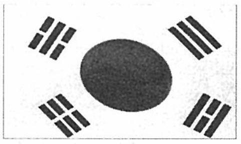
나아가 일본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추출용 대규모 핵재처리 시설 건설, 공중급유기도입, 사상 최대 크기의 항공모함 증강 등 자국의 군사력도 증강시키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 긴장국면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자국의 세력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이익이며, 군국주의의 본질을 지니고 있는 일본에게 한반도 위기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전쟁위기를 촉발시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 일본의 현재 모습이다.

## 한반도 공멸 초래하는 한미간의 군사훈련



한반도에서는 매년 20만이 넘는 한미연합군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이 훈련은 전쟁을 대비한 실전훈련이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한미연합군의 실전훈련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8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98 독수리 합동 전쟁연습'과 '98 화랑연습', '미래의 전쟁 1999' 등의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그것인데, 이 훈련들은 모두 '작전계획 5027' 계획에 포함된 전쟁연습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전쟁책동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가를 알 수 있다.

△ 98 독수리 합동 전쟁연습

98년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된 훈련. 미군 10만 5천여명과 국군 5만여명을 포함, 미 제7함대 주력 항공모함인 치치호프를 비롯한 방대한 전쟁장비들이 투입된 합동 전쟁연습.

△ 98 화랑연습

'독수리 훈련'과 같은 기간에 이루어진 훈련으로써, 전면전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전라도, 충청도 등 각지에서 벌어진 합동 군사훈련.

△ 미래의 전쟁 1999

지난 10월 24일부터 열흘간 진행됐으며 미해군의 각종 전함들이 동원된 가운데 펼쳐진,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북침기습선제타격을 위한 군사훈련. 이 훈련은 미해군을 비롯, 미육군과 해병대와의 연합 훈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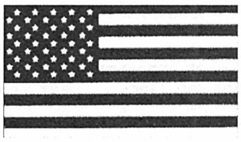
'작전계획 5027'은 핵무력으로 전면전을 벌여 평양을 점령하고, 북한정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이북을 비롯한 한반도 전체를 공멸시키려는 전쟁계획으로 볼 수 있다.

작전계획의 내용에는 전면전쟁을 일으키는 세가지 방법이 설정되어 있는데, 주목해야 할 것은 세가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의 지하핵시설 의혹설로 정세를 악화시키고 타격을 가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미국내 북한전문가도 금창리 시설이 민간시설이라는 것을 시인한 상황에서, 명확한 근거없이 계속 핵의혹을 제기하는 현재 미국의 입장이 그대로 적용되는 대목이다.

미국의 북한문제 전문가인 셀리그 해리슨(미우드로 윌슨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작전계획 5027'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미8군 사령부에서 유출된 이 계획은 미국이 어떠한 북한의 공격도 침략으로 보며 현 북한 정권을 대체하는 전면전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분석하고, "이 정보의 가장 도발적인 내용은 북한이 공격을 준비한다고 생각되는 '모호하지 않은 신호'를 발견했을때 미국과 남한이 사전 공격을 한다는 점이 새 전쟁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해리슨의 분석대로라면, 미국은 북한의 의도를 100%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여 전쟁을 일으킬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밖에도 천용택 국방장관이 "국지 도발시에도 한미연합작전을 펼치겠다"고 공언한 것이나, 미국이 한반도에 미증원군 배치시기를 앞당기고 태평양 주둔 미군병력과 장비 동원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등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을 보완, 운용중에 있는 점 등은 미국의 전쟁책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중앙일보 99.1.5)

미국의 전쟁도발 증거가 비단 군사훈련에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지난 98년 10월 중순,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긴급사태를 가상해 남한에 살고 있는 미군가족 등 약 1백20여명을 군용비행기로 일본에 피난시키는 연습을 진행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도쿄신문 98.11.2) 이 피난연습은 기상악화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지만, 군인가족을 포함한 비전투원의 피난연습은 전쟁전야에만 찾아볼 수 있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렇듯 미국의 전쟁책동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핵공격을 전제로 한 전쟁을 준비중이라는 점에서 위기국면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한반도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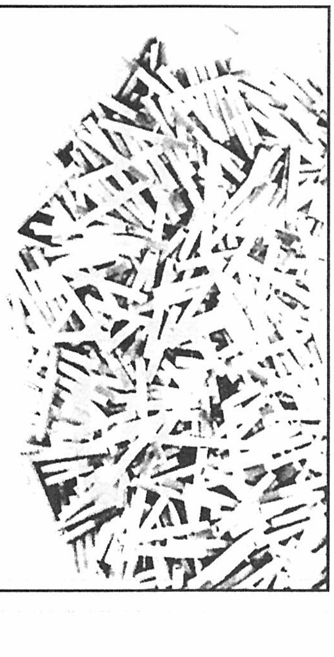
평온한 한반도

"
뉴욕 타임즈, 니혼 게이자이,
로이터 통신 등
세계 유수 언론들이
2~3개월 안에 닥쳐올
한반도 전쟁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핵참화 속에
빠지게 될 남한은
잠잠하기만 합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결코 우리와 무관한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

불붙는 전쟁위기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한반도,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맞고 있다 2

# 평화 두려워하는 미국, "전쟁만이 살길"

특집 – 한반도 전쟁위기설

미국은 핵을 빌미로 한반도에 긴장국면을 조성하고 있으며, 핵무력을 사용해 전면전쟁을 일으키는 내용의 '작전계획 5027' 군사훈련을 남한에서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국이 전쟁을 벌이려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왜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조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한반도 위기상황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 미국, 핵 빌미로 한반도 긴장조성

올해 한반도 위기국면은 미국이 북한의 금창리 지하시설 사찰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지난 11월 19일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태천군 금창리 소재 지하시설에서 핵개발로 의심되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며, 금창리 지하시설의 현장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북은 금창리 지하시설은 순수한 '민수용'이라며 사찰의 댓가로 3억달러의 보상을 요구했고, 미국은 이것이 지난 94년 체결된 제네바 핵협정 위반이라고 맞서 북미간의 팽팽한 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11월 20일 한국을 방문, 북한의 핵의혹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해 "북한의 위협에 대해 군사적 대항조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히고, 한미간의 더욱 공고한 군사협력을 요구했으며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99년 주한미군에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98년보다 6% 늘어난 3억3천3백만달러로 확정하는 등 미국의 입장에 적극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아가 미국은 제2의 북침전쟁 계획인 '신 5027 작전계획'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리는 등 북한에 강경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영국 일간 가디언 98.11.26), 한반도에서는 '신 5027 작전계획'에 포함된 '98독수리 합동 전쟁연습', '98 화랑연습', '미래의 전쟁 1999' 등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이 주장하듯, 금창리 지하시설이 핵기지일 가능성이 있는가? 북미 제네바협정에 따라 미국은 북한의 시설을 사찰할 수 있는 무한정의 권리를 부여받는가?

## 제네바 협정의 진실과 핵사찰 요구의 본질

금창리 지하시설이 핵기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미 정부의 의견과는 달리 한미 양국 북한전문가들은 "문제가 된 금창리에서는 굴착공사만 진행되고 있을뿐 아직 시설은 들어서지 않았다"며 미정부의 핵기지 의혹을 일축했다.(동아일보 98.11.20)

또한 북한문제 전문가인 셀리그 해리슨(미 우드로 윌슨 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1월 22일 워싱턴포스트지를 통해 "제네바 합의에 찬성하지 않았던 미 의회와 국방부 그리고 정보당국의 일부세력들이 이번 핵의혹을 제네바합의 파기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평양과의 대결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고문을 통해 △제네바 합의에 임의적 사찰을 허용하는 조항이 없음에도 북한의 사찰거부를 제네바합의 위반으로 몰아가고 있고 △핵동결 합의를 실제로 위반한 행동과 위반에 이르지 보고는 의심스러운 행동과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계산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렇듯 미국은 북한의 금창리 시설을 임의로 사찰할 권리도 없을뿐만 아니라, 미국내 북한전문가마저도 금창리 시설이 민간시설이라는 것을 시인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왜 끊임없이 핵 위기를 조장하고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조성하고 있는 것일까?

## 미국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미국의 정치군사적 패권의 지위가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 11월 19일 미국은 '핵무기, 대량무기 개발 저지와 인접국의 평화, 안전'을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했다. 그러나 이라크를 사찰한 유엔무기특별사찰단(UNSCOM) 구성 자체가 미국와 영국으로만 이루어졌으며, 사찰단 단장(리챠드 버틀러)이 주관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보고서의 내용 또한 정상적으로 사찰을 실시했던 300여곳의 조사내용은 고의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사찰단은 안보리의 상의와 지시도 없이 유엔주재 미대표의 지시에 따라 시급히 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프랑스 리베라시옹지)

결국 이라크 침공의 목적은 '평화와 안전'이 아닌 미국이 계획했던 전쟁임이 확인됐다. 결국 미국은 세계경찰국가를 자처했던 스스로의 역할을 부정하며, 냉전시기에나 통했음직한 '전쟁으로의 세계재패' 야욕을 신랄하게 드러낸 것이다.

> 미국경제 활성화에 있어
> 자국내 군수산업 활성화가
>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 이는 필연적으로 전쟁을 동반한다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 군사력 사용은 전세계 어떤 국가에서도 동조를 얻을 수 없었다. 중동지역의 미국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 등의 나라마저도 미국에 등을 돌려 이들 나라의 지상기지에 배치된 미국의 전투기와 폭격기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고 시리아, 이집트 레바논 등 모든 아랍민족 국가들의 반미감정은 심각히 고조되었다. 또한 영국 런던과 글래스고우, 파리, 로마, 밀라노를 비롯, 유럽의 10여개 도시에서도 이라크 공격명령을 중단하지 않는 클린턴 미대통령과 블레어 영국총리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워싱턴·바그다드 AP·AFP 연합뉴스)

미국의 국제적 고립은 얼마전 있었던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외무장관 회담에서도 극명히 드러난다. 이 회담에서 미국은 NATO가 새로운 세계질서에 발맞추어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을 해야하며, 이를 위해 우리의 이익을 해치는 세력에 대해서는 과감히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독일 대표를 위시한 유럽 회원국들은 NATO의 핵무기 선제공격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며 미국의 주장에 전면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또한 미국의 적극적 동반자였던 EU 15개 회원국중 13개 회원국이 좌파정권을 수립하는 등 자본주의 나라들 마저도 미국주도의 세계질서에서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국은 벼랑끝에 몰려있다.

미국은 현재 초장기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자국내의 활발한 산업생산활동과 수출을 통한 정상적인 호황이 아니라 미국계 국제금융자본의 투기성 이익으로 이루어진 수치적 호황, 즉 거품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내에 시 축 적

된 과잉자본은 투기적 국제금융자본으로 변모하여 제3세계로 침투, 동아시아 국가의 과잉투자와 과잉소비를 야기해 결국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이에 미국은 IMF를 동원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채무불이행 사태가 세계적인 금융공황으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고 동아시아 국가내의 과잉생산시설을 구조조정을 통해 파괴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 식민지인 제3세계의 금융위기는 곧 부메랑이 되어 미국에게로 돌아오고 있으며,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의 불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동아시아를 기점으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세계대공황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대공황은 미국에게 있어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미국 내에서도 자신들의 초장기 호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99년 경제전망 특집'의 기사에서 "분배 불균형으로 계층간 소득 및 빈부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상위 1%의 가계가 미국 재산의 거의 40%를 장악하고 있는 등 미국 경제는 심각한 내부 취약점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미국 뉴욕타임즈 99.1.4)

또한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도 심각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전세계적인 패권적 지위를 획득했는데, 그것은 미국의 전쟁수행능력 때문이었으며, 이후 미국의 군수산업은 군사긴장의 조성을 발판으로 성장, 미국경제의 근간을 구축해왔다. 따라서 미국 경제 활성화에 있어 자국내 군수산업 활성화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군수산업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전쟁을 동반한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계해 나갈 것인가?

## 한반도, 미국의 유일한 돌파구이다

동북아는 미국이 그들의 패권적 야심을 실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사회주의 세력과 제국주의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곳, 전세계 1/4이나 되는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는 막대한 시장이 바로 동북아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은 자신의 세력확장과 지위보장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외관계협의회 코리아 문제 특별연구반에서 98년 발표한 논문 '강대국과 코리아의 관계(The great power and the future of korea)'에서는 "한반도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목표는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경제, 정치, 전략적 이익을 보장하는 넓은 맥락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한·미 동맹은 미국이 전진배치한 군사력을 지탱하는 동맹과 방위협력 조치의 쌍무적 관계의 일환이다"라고 분석한다. 이 논문은 한반도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여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주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미국의 유일한 돌파구,
> 한반도…
> 그들은 한반도 전 민족 공멸을
> 초래하는 핵참화로
> 자신의 위기를 타계하려 한다.

이렇듯 한반도는 미국에게 있어 핵심적인 지지기반이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절호의 장소인 것이다. 물론 이것은 미국의 이해와 요구가 전면적으로 관철되는 남한정권이 있기에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남한마저도 미국의 안정적인 지지기반이 될 수 없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남한 민중의 반미투쟁, 북 자주노선… 안정한 미국의 지지기반은 없다

남한이 미국을 상대로 자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1950년 7월 7일 '대전협정'이라 불리는 이승만과 미국사이의 합의로 남한의 군사작전권 및 지휘권은 고스란히 미국에게 양도되었다. 이후 한반도에 주둔하게 된 미군은 치외법권을 보장받는 등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항시적인 전쟁 훈련을 진행해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군사주권의 양도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99년 현재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 지난 1월 5일 천용택 국방장관은 "전면전 발발이 아닌 평시상황에도 미군의 적극적 지원을 받기로 했다"면서 평시작전권까지 이양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주권도 마찬가지다.

남한의 대미의존적인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은 1500억달러 이상의 외채국가로의 전락을 초래했다. 결국 금융위기를 겪으며 IMF 통치에 철저히 복무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업 인수합병, 노동시장 유연화, 은행 자기자본 비율 8% 적용 등 남한경제 전반을 허약하게 해, 종국에는 남한경제 잠식의 의도를 보이는 IMF와 미국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관철하는 남한 정부의 모습은 IMF 구제금융 지원을 받은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치욕적인 경제주권 양도의 모습이었다.

군사적으로는 한·미 군사동맹체제의 관리 아래서, 경제적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 아래에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남한정권의 모습이다.

그러나 최근 각계각층의 남한 민중들은 IMF를 통한 미국의 경제주권침탈을 반대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등, 반미투쟁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남한에서 조차 미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미국이 동북아지역에서 패권적 지위를 누리는데 있어 결정적인 걸림돌이다.

북한은 지난 50년간 유일 초강대국이라 일컬어지는 미국의 경제봉쇄, 군사적 위협속에서도 자립경제, 자주국방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얼마전 발사된 북한의 인공위성은 100% 자체기술로 만들어져 그들의 과학기술 수준과 군사력을 입증해주는 증거물로 전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북한은 94년 제네바 협정에서 미국과 합의한 경제봉쇄 해제와, 동력자원 확보를 위한 경수로 지원을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오히려 벼랑끝에 몰린 자신의 상황을 타계하고자 북한에 또다시 핵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것은 확실히 하면서도 "미국의 지하핵시설 의혹 및 미사일 위협은 우리에 대한 군사적 도발이며 전쟁의 불집을 일으키기 위한 생트집이다. 미제의 도전에 추호도 용서없이 섬멸적 타격으로 대답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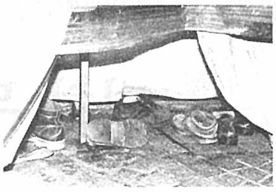
살펴보았듯, 미국은 정치군사, 경제적으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불안정한 지지기반인 남한을 발판으로 북한에 전쟁책동을 벌이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 한반도 전쟁책동 좌시할 수 없다

남한의 민족민주운동 진영들은 핵참화로 한반도를 초토화시키려는 미국의 전쟁계획은 미국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한반도 전민족의 공멸을 초래하는 길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미국의 한반도 전쟁책동에 맞서 '반미반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반미반전'을 알리는 시민선전전과 집회, 명동성당에서의 농성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도 성명서와 서명활동을 펼치는 등 각 사회민주단체들이 미국의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나아가 미국에게 빼앗긴 남한의 자주권을 획득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남한민중의 힘이 '반미반전' 투쟁에 결집된다면, 한반도는 미국의 전쟁위협을 전환점으로 삼아 미국에게 빼앗긴 자주권을 획득하고 조국통일의 결정적인 국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부



△ 허름한 신발.
저 신발을 신는 사람과 닮은 구석이 있다.
제몸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

▷ "시민 여러분,
저희는 미국에 의한
전쟁을 반대합니다."

한총련 명동성당
농성단을 찾아

# 햇살되기

제작 : 사진부

지난 12일(화) IMF 경제한파에다 기상한파주의보까지 내려진 가운데도 명동거리의 사람들은 넘쳐나고 있었다. 화려한 거리 너머에 '있는 돈'이 아니라 '있어야 할 나라사랑 마음'으로 세상의 한파들을 걷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미국에 의한 전쟁책동 분쇄, 주한미군 철거, 경제침탈 분쇄, 민중생존권 쟁취,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한총련 명동성당 3차 농성단'이 바로 그들이다.

40여명의 대학생들로 구성된 이들은 방학을 반납하고 현재 미국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IMF를 이용한 경제침탈과 한반도에 드리어진 전쟁음모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의해 명동성당에서 천막을 치고 14일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새벽 5시 기상. 기독교회관을 약 10여바퀴 돌고 성당주변의 청소를 시작한다. 뼈를 에는 찬물에 여학생들도 거침없이 머리까지 감는 모습은 마치 일제시대 만주벌판에서 항일운동을 했던 독립투사를 연상케 한다. 하루에 4~5차례 진행되는 시민선전전은 곧 손과 발이 얼어 추위를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지만 서로 장갑을 한 짝씩 나눠끼는 모습은 슬프게 아름답다.

성당 첨탑에 초생달이 걸릴 즈음이면 조별로 하루를 평가하고 내일 선전전을 더 알차고 쉽고 편하게 가져가기 위해 선전전 경연대회를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장면도 있다. 매일 5,6명이 계속 새로 결합하는 것이다. 천막이 부족해 잘 곳이 없다고 해도 막무가내다. 옆으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고 변변찮은 식사 2끼로 생활하지만, 집안 문제 때문에 계속 생활하지 못한다며 아쉬워하며 돌아갔던 학생들도 친구들이 보고싶어 견딜 수 없었다며 돌아오는 것이다.

절실한 하나의 목표를 나누는 동지애! 그것일 것이다. 분단 55년도 억울한데 이제 전쟁까지라니. 더 이상 외세에 의해 이 나라를, 이 민중들을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절실함 그것일 것이다.

체감온도 영하 20°에도 명동의 햇살은 따뜻했다. 세상의 한파들을 걷어내기 위해 햇살이 되고자 하는 청년학생들의 열정으로.

△ 새벽 5시. 방금 잠든 것 같은데…. 상쾌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오늘도 투쟁!!

△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정세 토론을 한다. 국내언론에서도 미국의 전쟁 이야기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냉수마찰 ↑
찬물이 얼굴에 닿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든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지'

# "전쟁책동 벌이는 미국을 반대한다"

## 전세계, 한반도 전쟁위기 우려… 남한만 잠잠
## 김대중 정권의 비이성적 탄압으로 부상학생 속출

미국의 한반도 전쟁위기 책동에 동조하고, 무자비한 폭력사용을 서슴치 않는 것이 바로 김대중 정권의 본질이다. 사진은 지난 5일 집회에서 한양대를 원천봉쇄하고 불심검문을 자행하는 전투경찰의 모습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은 지난 5일(화) 한양대에서 40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99년 한총련 동시다발 반미반전 투쟁 선포식'과 '미국에 의한 전쟁책동 분쇄, 주한미군 철거, IMF 경제침탈분쇄를 위한 한총련 선봉대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날 집회는 이미 '민간시설'로 밝혀진 금창리 지하시설 사찰을 요구하며 위기국면을 조성하고, 핵무력으로 한반도에서 전면전쟁을 실시하기 위한 '신 5027 작전계획' 군사훈련을 남한에서 진행하는 등 전쟁책동을 조장하고 있는 미국을 반대하고, IMF 신탁통치를 청산하여 경제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절실한 문제의식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집회는 온 세계가 한반도 안보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남한 정권만이 본질을 은폐하고 있는 기만적 행태를 비판하고, 현 전쟁책동의 본질을 알려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에 대해 서총련 임시의장 이성희(홍익대 총학생회장)군은 "미국은 지난 50년간 남한의 경제, 군사주권을 장악하며 안보위기를 조장해 왔으며, 현재 본격적인 전쟁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등 전쟁의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며 "미국은 자신의 몰락을 잠시라도 늦추기 위해 한반도 전 민중의 공멸을 초래하는 전쟁책동을 감행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날 행사는 대회시작 전부터 투입된 천5백여명의 병력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공권력은 한양대를 원천봉쇄 한 채 학생들의 교내진입을 막고 불심검문을 진행하는 등의 탄압을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불심검문 반대투쟁과 시민선전전을 진행하던 네 명의 학생이 무력으로 불법연행됐다. 나아가 이날 공권력은 무방비 상태인 학생들을 향해 방패를 휘두르고, 한양대 교내까지 침탈하는 등 심각한 탄압양상을 보였다. 전투경찰의 폭력진압으로 평화적 집회를 열고 있던 많은 학생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속출했는데, 건국대학교 이병주(공대, 산업공학과 2)군은 전투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던 과정에서 그들이 던진 돌을 얼굴에 맞아 안면부가 함몰되고, 한쪽 눈이 실명위기에 처해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러한 공권력의 비이성적인 탄압양상에 대해 서울동부지구총학생회연합(동총련) 임시의장 정재원(서울산업대 총학생회장)군은 "오늘 공권력의 탄압양상은 김대중 정권의 본질을 낱낱이 드러내주었다"며 "불심검문을 진행, 학생들을 폭력연행하고 무차별적 폭행을 자행하는 등 역대 어느 정권보다 극심한 탄압을 자행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인권대통령'이라 자처하는 김대중의 본질이다"라고 정부의 작태를 실랄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전투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은 한양대 원천봉쇄를 새벽까지 풀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집으로 귀가하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했으며, 집회참가자들은 봉쇄된 한양대 내에서 지구별 정세토론과 행사를 진행했다.

김겸신 기자

### 기자의 눈: 청량리 경찰서 항방일지

'속보-오늘 오후 4시경 98년 32대 총학생회장 오승훈(상경·경영 92) 학우가 제주도 집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청량리 경찰서에 연행되었습니다.…자세한 상황이 전해지는대로 대자보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수) 학내 곳곳에 붙어있던 속보 대자보 내용이다.

갑작스런 소식에 총학생회실로 모인 60여명의 학생들은 이날밤 청량리 경찰서 앞에서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하나 둘 모여든 학생들은 육중하게 닫혀진 청량리 경찰서의 철문과, 방패를 들고 서있는 경찰들 앞에 멈춰설 수 밖에 없었다.

"학생들 뭐요?" "저희는 외대학생들입니다. 오승훈 총학생회장님을 만나보게 해 주십시오." "밤중에 이렇게들 몰려와서 시끄럽게 굴면 불법이라는거 몰라요? 어서 돌아가요." "총학생회장님을 연행한 이유가 뭡니까?" "글쎄 우리가 조사할게 있으니까 연행했겠지. 어서 돌아가요." "총학생회장님을 만나보게 해 주십시오." "학생들이 뭘 모르는 모양인데,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학생들 면담은 허락할 수 없어요."

학생들은 청량리 경찰서 정보과장과의 대화가 더이상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기 시작했다.

"승훈이형 되찾아 외대발전 이룩하자." "이봐, 경찰서 앞에서 구호 외치면 불법시위야. 불법시위 몰라? 다 연행되는 수가 있어."

그때 복장을 하고 무전기를 든 청량리 경찰서 직원이 뛰어왔다. "너희 다 연행할꺼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구호를 외치고 난리야. 너희 한번만 더 구호 외치면 다 잡아 간다!" 상황실장이라 쓰여진 노란색 연장을 찬 이 직원은 학생들에게 협박조로 소리쳤다.

"그럼 우리 소리통 한번 해봅시다. 소리통!" "야 너희 구호 외치지 말라고 했지!" "이건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알리는 겁니다." "너희 자꾸 이러면 진짜 연행하는 수가 있어!"

청량리 경찰서의 정보과장과 상황실장, 그리고 신원을 알 수 없는 많은 직원들과의 실랑이 끝에 60여명의 학생들은 오승훈 전 총학생회장의 안부만을 겨우 전해들은채 해산할 수 밖에 없었다. 머뭇머뭇 해산하는 학생들 등뒤로 상황실장이 무전기를 통해 보고하는 소리가 들렸다. "학생들 해산중, 해산중. 아직 애들(경찰들) 빠지지 말라고 해. 애들(외대 학생들) 완전히 빠질때 까지 대기하라고 해."

이틀 후 불구속으로 석방된 오승훈 전 총학생회장은 "새내기 새로배움터 행사 내용과 전학대회, 농활 자료집 내용이 용공·좌익이래요. 학생 전체가 참석한 행사와 외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료집 내용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면 외대 학생 모두가 국가보안법 위반자겠네요"라며 씁쓸히 웃었다.

'뭔가 맘에 안들면 무조건 잡아들인다. 죄목이 없다고 못잡아들일 이유는 없다. 어떻게든 국가보안법으로 엮으면 다 통하기 때문이다. 연행자는 국보법을 적용시켜 어떻게든 구속사유를 만들어라. 혹 죄목이 너무 불충분해서 구속을 못시켜도 상관없다. 무차별적인 탄압만 계속 진행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모이기만 하면 불법집회가 되고, 구호한번 외친 것이 연행사유가 되며, 새내기 새로배움터를 비롯한 학교행사에 참석해도 범법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의 논리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바로 나 자신마저도 범법자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겸신 기자

## 범민련, 미 대통령에게 공개서한 보내

민족민주운동 진영의 '미국전쟁책동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3일(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는 강희남 의장의 명의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세계의 평화를 교란시킬 5027 작전계획을 무조건 철회하고 남한과 미국 사이의 방위조약을 철폐하고, 남한 주둔군대를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개척한다. 전쟁책동 즉각 중단하라

이 공개서한에서 범민련은 "이제 세계는 동서랭전 해소로 인해 피차 평화와 공존체제로 접어들고 있는 바 이것은 세계 인류의 오랜 념원이었으며 또한 력사발전의 증거이다. 그러나 당신들은(미국) 당신들 나라의 국익만을 위해 비인도주의적인 강자의 론리로 조작된 명분을 내세워 2번이나 이라크를 공격했다. 당신들(미국)은 당신들의 령토가 아닌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 그 화약고를 준비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미국의 전쟁야심을 지적했다.

이어 공개서한은 최근 금창리 지하시설을 빌미로 전쟁분위기를 조성하는 미국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당신들 나라 량심가들이나 북한 전문가들도 북한은 핵무기를 생산할 능력이 없고 그럴 단계에 이르지도 못했다는 것을 똑똑히 천명한바 있음에도 그동안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줄곧 떠들어 댔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5027 작전계획의 무조건 철회, 한미 방위조약 철폐,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며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민족자결권을 행사하게 하라.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손으로 결정하도록 하라"고 천명했다.

한편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민족회의)도 지난 14일 '북미 협상과 4자회담에 즈음한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국은 북한의 '자주권'을 인정하여 앞으로 사찰남용을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하며 제네바 기본합의서에서 북한과 합의한 대북경제제재 완화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추진을 이번 협상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보장할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남현주 기자

## 한총련, 미 문화원 점거투쟁 성사

지난 15일(금)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미국의 한반도 전쟁책동과 경제침탈을 반대하며 '미문화원 점거투쟁'을 성사시켰다.

이날 오전 8시경 3명의 학생들은 삼엄한 경비를 뚫고 미문화원을 점거, '한반도 전쟁책동 미국놈들 물러가라' '경제침탈 중지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전달하는 등의 선전전을 진행했다.

> 한반도 전쟁도발을 저지파탄 시키는 것은 민족사의 소명이다

이날 미문화원을 점거한 학생들은 문선화(전남대 예술대학 국악학과 95), 김종희(고려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98), 공민영(명지대 행정학과 96)학생으로 알려졌으며, 사복 형사들의 무자비한 폭행에도 아랑곳없이 점거농성을 펼쳤다.

이 세 학생들은 결의서에서 "자신들의 삶 길을 찾아 이 땅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을 들씌우고 민족의 머리위에 전멸의 총칼을 들이대는 미 제국주의를 타도하는 투쟁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라며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선봉투쟁의 결의를 드높였다.

미 문화원 점거투쟁과 관련 한총련은 '미국과 김대중 정권의 한반도 전쟁책동 저지를 위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총련은 성명서에서 "민족 공멸로 아시아 세계지배야망을 펼치려는 미국을 반대하며 이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을 다시한번 엄숙히 천명합니다. 미국은 해방자 보호자의 미명아래 한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였으며, 북에 대한 도발과 침공은 곧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유린입니다. 한반도 전쟁도발을 저지파탄시키는 것은 한국민에게 부여된 중대한 민족사의 소명입니다"라고 밝히고 "아울러 동족인 이북을 주적으로 삼고 미국의 한반도 전쟁도발 조롱에 아부추종하고 있는 김대중 정권도 북침야망을 버리고 남북화해, 평화통일의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50여명의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 학생들도 미문화원점거투쟁에 호응하는 미군기지 타격투쟁을 벌였다.

남현주 기자

## 조계사 농성단, 상도터널 점거투쟁 진행

지난 14일(목) '김영삼 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조계사 농성단)'은 김영삼 전대통령의 집앞에서 '상도터널 점거투쟁'을 벌였다.

이날 점거투쟁을 벌인 농성자는 지난해 8월부터 조계사 농성단 활동을 해온 김재돈, 이영수 군이다. 이들은 97년 서울농대 정, 부학생회장 출신으로 5기 한총련 대의원 활동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영삼 정권때 수배를 받았다.

이 두사람은 이날 12시경 상도터널에서 '정치수배 해제!' '김영삼을 청문회로!' 등의 구호를 외치고, 준비해간 유인물 200여장을 뿌리며 점거투쟁을 진행했다.

현재 두사람은 점거투쟁 도중 상도터널에 상주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전원 연행됐으며, 현재 노량진경찰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영남위원회사건 부당한 선고형량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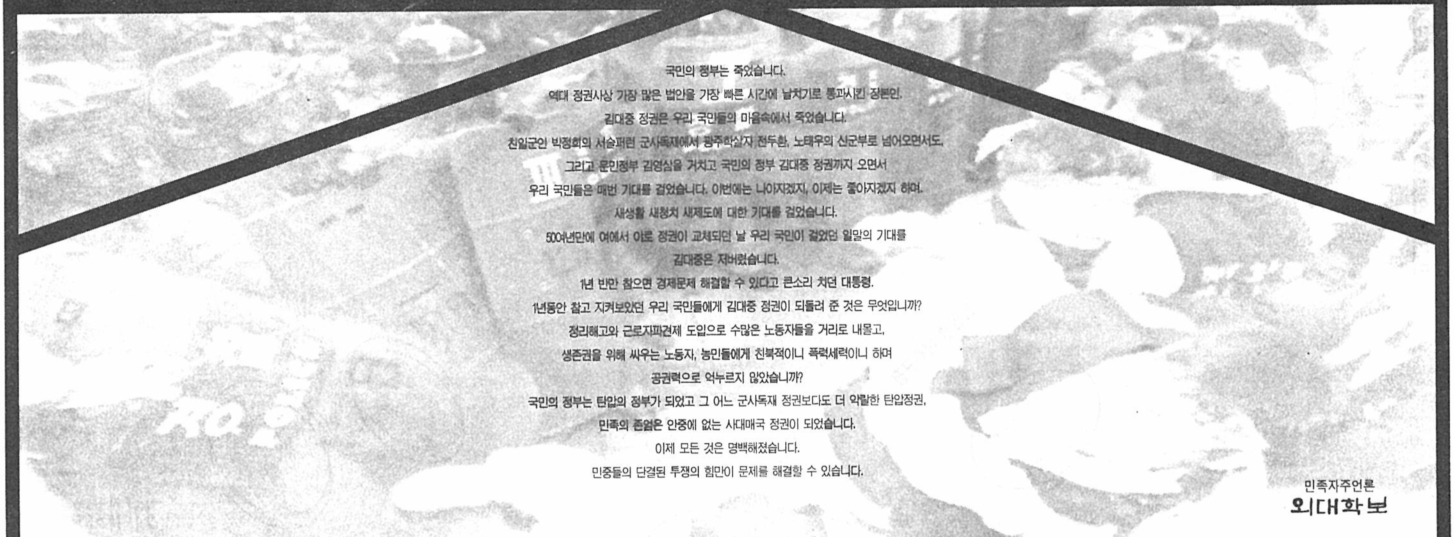
지난 15일(금) 정부의 '조작사건'으로 알려진 '한민전 영남위원회 조직사건'과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최고 15년~3년이라는 무거운 형량을 내려 충격을 주고 있다.

'한민전 영남위원회 조직사건'은 작년 7월 22일, 부산·울산 지역의 사회단체 인사들이 대거 검거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노동탄압 영남위원회사건 울산 공동대책위' 등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선고형량은 3년간의 도청, 감청을 통한 심각한 인권유린을 외면한 부당한 재판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이제 정부와 사법부는 더 이상 국내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호위와 거짓을 그만두고 모든 양심수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해야 하며, 국가보안법을 당장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 국민의 정부는 죽었는가



가상꽁트 – IMF시대 예비실업자 하린이의 겨울방학, 하루이야기

# 실업파도 헤쳐 희망을 피워라!

"하린아! 학교가니?" 아버지가 부르신다. 어렸을 땐 아버지의 말은 위엄에 넘쳐 있었다. '하린아'라는 말에 오금이 저릴 정도였으니. 하지만 1999년 오늘의 아버지….

"네, 저 이제 가볼께요." "그래, 가봐라. 아! 참, 너에게 할말이 있는데, 음~ 아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집을 나섰다. 아버님이 나에게 하려던 말은 무엇인지 안다. '제발 나처럼 되지 말라는 것'이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50대 초반의 그에게 돌아온 건 '정리해고'였다.

IMF가 왜 왔을까. 버스를 타고 가면서 계속 되묻는다. 경제위기의 주범이라 일컬어지는 재벌-이건희, 정주영, 김우중-은 여전히 건재한데, 왜 자꾸 우리같은 서민들만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원. 나도 이제 컸나. 하지만 내 앞길도 전혀 순탄치 않다. 이제 대학 4학년이 되는 '나'. 1년 후면 졸업인데, 마땅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과 친구들은 현재의 실업위기를 조금 피해보고자 대부분 군대를 선택했는데, 나는 허리디스크로 군대 면제 판정을 받았다. 그 당시만 해도 날아갈 듯 기뻤는데…. 지금은 군면제가 괜히 부담스럽다.

"이번 정류장은 경희대 입구 다음은 외국어대입니다" 버스 안내방송이 들린다. 고만 생각을 접고 일어섰다.

"9시 30이군" 그냥 학교로 들어갈까. 아니면 좀 쉬었다 갈까. 갈등이다. "그래 결정했어, 일심이가 아르바이트하는 당구장 들려서 꽁볼 좀 쳐볼까."

발길을 돌리는 순간, 경찰차와 앰블런스가 학교로 들어간다. "삐뽀~" 당구장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 뒤로 앰블런스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일심! 안녕."

"아! 하린이구나." "짜식, 당구 끊었는 줄 알았는데."

"꿀꿀한데, 기분전환이나 하려고."

일심과의 간단한 대화가 오간다. 그 때 들어오는 남자 셋의 대화가 내 귓가를 스쳐간다. "왜 뛰어내렸데?" "사고였을까." "취직이 안되는 현실을 비관했다는 말도 있던데."

학교 안에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오늘따라 학교가 왜 이리 부산한지. 도서관 앞에 사람들이 더욱 많이 모여있다. '오늘 집회가 있나'라 생각하며 들어가려는데 붉은 핏자욱이 계단 곳곳에 널려 있다.

뭉크 작(作) '절규'

"야! 하리~나. 너 얘~얘얘~기 들었냐." 절친한 동기 종수다. 특유의 강원도 억양을 자랑하는 그는 급한 일이 생기면 종종 말을 더듬는다. "뭔 일 생겼니?" "오늘, 도…도서관 옥상에서 하…학생이 뛰어내렸데."

문득 아침에 본 앰블런스. 당구장에 온 남자들의 말이 머릿 속에서 조합되자 눈 앞이 캄캄해진다. "이유가 뭐래." "지…지그음까정 알려진 바는 취업이 아…안되는 현실을 비…비관했다는데, 사실인지…"

문득 지난 달 읽었던 신문기사가 떠오른다.

/지난 7일 자살한 S대 김모양의 자살동기는 실업대란 시대에 자신의 초라해지는 모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민족 신문' 기우조 기자 /

착잡하다. 펜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오늘따라 도서관도 썰렁하다. 사람들이 나처럼 심란한 것일까. 담배나 한 모금 빨고 싶다. 그러나 젠장, 주머니 속 꾸겨진 디스갑에 담배가 없다. 사러 나가기 귀찮다. 휴게실로 가면 아는 사람이 있겠지. 역시 있다. 소망이형이 있다. 권소망. 독일어를 전공하는 그의 꿈은 문화인류학을 전공하는 것이라 한다. 졸업후 독일 쾰른대로 유학 갈거라 했는데. 그도 역시 IMF가 꿈을 짓밟았다. 중소기업체 사장인 그의 아버지는 작년에 부도를 냈다.

"형, 담배 하나 줘요." "요즘 뭐해요." 연속된 나의 물음. 그는 아무말없이 담배를 빼준다. 하지만 대답은 없다. "하린아, 네가 아는 사람 중에 내 토익책 살 사람 없을까" 왠 뚱딴지 같은 질문. 취업 준비생인 우리에게 토익은 교과서와 같은 것인데. "형. 설마 그 책 다 공부해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뜻이예요." "아니, 이젠 내게 필요없는 것 같아서. 나 또 떨어졌어. 인턴사원이라도 노려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포기해야 할 것 같아. 토익책 백날 들여다 본다고 누가 취직시켜주는 것도 아닌데." 그의 말에 대꾸할 어떤 단어도 떠오르지 않는다. 둘 사이에 침묵만 흐른다. "알아 볼께요."

일심이가 찾아왔다. 아르바이트가 끝났나 보다. 오자마자 하는 말이 밥 먹으로 가자다. 날은 벌써 어두워져 있고. 학교식당은 문 안여는데. 주머니에 가진 돈이라곤 빠듯하다. 오늘 저녁먹으면 딱 1,000원이 남네. 디스도 못사피겠다. 일심에게 빌붙어 볼까. "일심아 가자. 오늘 니가 사는 거지?" "그야 물론이지." "나가자." 일심이는 정문으로 가지 않고 쪽문으로 나와 경희대쪽으로 가는 것이다. "야, 어디가는 거야. 밥 먹으려면 반대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가는 것 맞아. 우리 지금 경희대 식당으로 가고 있어" "야, 요즘 시기에 밖에 나가 먹는 것 보다 학교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잖아. 임마, 이왕 아낄려면 우리학교 식당에서 저녁 안한다고 일반 식당이용하기 보다는 가까운 경희대 식당 이용하면 돼잖아."

그만의 독특한 세상나기일까. "저녁을 경희대에서 먹는 애들 꽤 많아." 나의 앞선 생각은 이 말로 부셔지고.

"일심아, 너무 답답하지 않냐. 미래가 너무 어둡잖아."

"너, 자살한 애 생각하는 구나."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일자리를 얻을 수 없잖아. 내년이면 나도 졸업생인데."

"오늘 자살한 사람은 졸업한 지 1년이 넘었데. 성적도 평점 3.5에 토익 750점이었데. 경제위기가 닥치니 기업들은 앞다투어 정리해고를 감행했잖아. 있는 사람도 짜르는 판에 더 뽑을 리 가 없잖아. 그래도 몇 군데 시험을 봤는데. 영, 밝은 소식이 들리지 않자. 그랬나봐."

"그 사람 나보다 성적도 좋고, 토익점수도 넘네. 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너 취직걱정 하니, 아! 그러고 보니 내년이면 졸업이네. 나야 제대한지 얼마안되니 이번에 복학 하면 2학년. 졸업 하려면 3년 남았네. 아직까진 취직걱정 안하지만, 등록금 어떻게 될지 걱정이야."

"아르바이트 두 탕 뛰잖아. 그래도 모잘라."

"응, 솔직히 등록금이 너무 비싸잖아. 우리가 받는 혜택에 비해. 1년에 4백씩 4년간 1천6백을 들여도 졸업 후엔 백수가 될 신세라니. 요즘 대학생 너무 비참하지 않냐. 예전엔 서울소재 대학만 졸업해도 엘리트 축에 꼈잖아. 아! 옛날이여~."

날씨조차 나를 놀린다. 오늘따라 더욱 춥다. 일기예보를 들으니 오늘 밤은 -7도라는데.

"춥다. 들어가자" 둘은 말없이 일어나서 다시 도서관으로 향한다.

"너희들 여기서 뭐하니." 올해 당선된 과회장이다. 나와 동기인 그. 그는 학생회 활동에 열정적이다. 그는 청춘을 우리과에 바쳤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덕에 끼리끼리 문화가 팽배하던 우리과도 학생회 두리로 학생들이 잘 묶이기 시작했다. 올 과학생회 선거에서 70% 투표율과 90%의 찬성률을 기록했을 정도다.

"세태 한탄, 신세 한탄하고 있었어. 예비 백수로의 미래를 곱씹으며 담배 한 모금 빨았지." 일심이의 냉소적인 대꾸.

"둘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그 일 땜에 심란한 것 같은데."

"과회장은 졸업후의 삶이 걱정되지 않아?"

"물론 나도 걱정이 되지. 하지만 난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해. 지금 사회는 비록 우리의 일할 권리를 빼앗아 갔지만, 다시 되찾으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그것을 찾아. IMF에 빚진 돈 다 갚고 경제회복하기엔 우리나라의 힘이 너무 없잖아."

"간단해. 현재 위기의 본질을 짚으면 돼. IMF는 미국이라는 독점 자본주의 국가에 종속된 우리 나라의 경제구조상 필연적으로 오게된 것 아니야.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저성장·고금리정책을 요 구받게 되었고, 경제구조조정에 들어갔잖아.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을 바라봐. 구조조정의 결과 군소리 없이 일만한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당하고, 노숙자는 증가하게 되고, 청년대학생들은 졸업후에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등 민중들의 삶은 말이 아니게 피폐화되어 있잖아. 이제 이런 모순 된 구조를 바꿀 때가 된 것이지. 우리의 경제를 우리민중에게 이롭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이러지 못함도 다 IMF를 앞세운 미국의 요구잖아. 이를 물리쳐야 되지. 우리 민중의 일은 우리 스스로라는 민족자주 정신이 필요한 때야."

"실업문제에 현실적인 대안은 없을까." 나는 그의 말에 귀가 솔깃해지며 이 질문을 던졌다.

"물론 있지. 우선 정리해고 철폐를 통해 고용 안정을 해야하지. 또 일자리 나누기란 방법도 있어. 찾으면 대안이야 많지. 명시해야 할 점은 이런 사회문제는 개인의 노력보다는 구성원 전체의 단결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야.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기 위해서 학생회에서도 고민을 계속하고 있어."

10시를 조금 넘는 귀가 시간.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오늘 하루의 일을 곱씹어 본다. 실업비관 자살, 취업포기... 어둡다. 하지만 더 이상 그래선 안되겠다. 과회장의 말을 믿어야 겠다. 그를 믿고 우리 과 학생들을 믿고, 외대생을 믿고, 전국에 있는 백만 학생을 믿어야 겠다. 언제까지 사회가 굴러가는 대로 따라갈 수 없다. 이제 우리가 사회를 굴려야 할 때니까. 김민석 기자

## 신명과 하나되는 율동은 삶의 진실된 반영

우리는 대학에 들어와 대중문화와는 다른, 조금은 생소한 대학문화를 접하게 된다. 대학문화 속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노래, 풍물, 율동이 세가지이다.

노래패는 음율과 가사(내용)로, 풍물패는 풍물로, 율동패는 몸짓(율동)으로 대학문화 속에서 진솔한(민중들의) 삶의 모습들을 담아내려 한다. 앞의 3가지 중에서 율동은 아직 일반적으로 많이 보급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의 몸짓(율동)은 '대중문화'와 다른 '의식'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 방법에서도 다를 수 밖에 없다.

대중문화 속에서 '춤'은 그 현란한 동작을 보여줌으로써 즐거움만을 느끼게 하지만 율동은 보여주기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몸짓 하나하나에 우리가 느끼고 생각한 것(민중의 삶)을 담아내여 표현하며, 흥겨움과 신명으로 하나됨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대학 문화 속의 율동은 무슨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 우선 율동은 앞에서 얘기한 노래나 풍물에 비해 많이 보급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2월에 있는 새내기 새로배움터에서 '문예 공연'이라는 계기를 통해, 아니면 과 선배들을 통해 '처음처럼'이나 '바위처럼' 같은 율동을 수도없이 보고 배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율동을 배우면서 뭔가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제까지 TV나 쇼프로를 통해서 보아왔던 현란한 춤을 통한 즐거움이 아니라, 그리 전문적이진 않더라도 함께 부대끼고 춤추면서 느끼는 즐거움인 것이다. 즉 대학문화 속의 율동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동체 문화의 실현-대동(大同)의 실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 무용이나 발레, 혹은 현대무용이 그 나름대로의 지향적 내용이 있듯이 율동에도 간과할 수 없는 내용성이 있다는 것이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대학 문화 속의 율동은 다른 춤과는 달리 그 중심을 우리의 직접적이며 진실된 삶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문소진

〈중앙율동패 '신새벽' 패장, 동양·인도어 2〉

## '국가보안법' 마인드맵 그리기

**7대 사건**

1. 일본 대중문화개방
2. 미국의 스크린쿼터제 철폐 압력
3. 화가 신학철 작 '모내기' 이적표현물 판결
4. 노래극단 '희망새' 단장 및 단원 구속
5. 완전등급제 근본 취지 후퇴한 채 시행
6. 윤이상 통일음악회 등 남북문화 교류 활성화
7. 북한영화 TV통해 방영

# 김대중 정권 하 '문화' 질식된다

신학철 작(作) '모내기' (1987)

98년은 국민들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을 안은 김대중 정권이 출범했다. 문화대통령이라 자부하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특히 문화계는 많은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대책없는 일본문화개방, 스크린쿼터제 철폐 시사 등 '문화는 상품이다'라는 경제논리와 사대적인 정책으로 인해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본보는 작년 한해 문화계 주요 사건을 다시금 살펴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김대중 정권의 반문화성을 폭로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루어 보았다. 편집자

## 문화제국주의, 이제 은밀성을 탈피하여 직접 문화시장에 침투하다

### 1.일본대중문화 김대중의 박수를 받으며 한국 상륙

작년 한국사회는 IMF 경제위기를 겪었다. 미국을 위시한 독점자본주의 국가들은 한국의 IMF 금융신탁통치를 받는 것을 기회로 삼아 문화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개방압력을 행사했다. 특히 일본은 발 빠르게 대응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 기간에 '30억달러 차관제공'을 미끼로 '일본대중문화 개방' 약속을 받아냈다. 결국 10월 20일 정부는 일본 대중문화의 단계적 개방 방침을 발표한다. 우선 칸·베니스 등 4대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영화와 개방된 영화의 비디오, 출판만화를 개방하고 그 외 부문은 '한일문화교류공동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100년간 산업과 결합하여 성장해 온 일본대중문화는 거대 할리우드와 세계 시장을 분할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제 곧 물밀듯이 밀려올 일본대중문화에 대해 정부당국은 국내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정도 밖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문화의 우수성 판단기준을 돈으로 인식하는 정권의 한계가 들어나는 대목이다. 결국 일본문화의 공세 속에 우리문화는 점차 설자리를 잃어갈 것이다.

### 2.한국 극장에는 한국영화가 없다

우리 문화 최후의 보루, 영화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작년초 미국 할리우드 자본은 '외자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한국정부에게 30억달러의 멀티플렉스 투자 제공을 앞세우며 스크린쿼터제 철폐를 요구했다. 외자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부도 이를 수용하려 했으나, 영화계의 집단 반발로 후퇴하는 듯 했다. 그러나 미국의 통상압력이 높아지자 한덕수 통상교섭부장은 "국내 영상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 스크린쿼터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대의 조류에 어긋난다"며 축소·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대미 마찰을 줄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WTO에서 조차 문화시장은 완전개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부분이다. 그런데 미국은 자국 영상산업의 이익을 위해 예외를 무시하고 스크린쿼터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우리 영화 보호를 위해 미국과 교섭을 벌이기 보다는 압력을 받아들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되묻게 한다.

이에 따라 영화인을 중심으로 '스크린쿼터제 사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미대사관 항의방문, 대국민 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사회단체들도 스크린쿼터제 사수 투쟁에 지지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 국가보안법 철폐… 표현의 자유 보장 첫걸음

### 3.대법원은 그림 평가도 법대로(?)

김대중 정권이 문화정책에 있어 이전 정권에 비해 진보적이라는 느낌을 주는 이유는 '사전검열철폐'를 기본골자로 한 '완전등급제·등급외전용관' 등의 정책을 펼치려 하기 때문이다. 이에 사람들은 작년부터 국가기관의 특별한 제약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작년 3월 18일 화가 신학철씨의 87년 그림 '모내기'에 대해 대법원은 "북한은 통일저해 요소가 없는 풍요로운 곳으로, 남한을 통일저해 세력인 미·일제국주의와 독재권력, 매판 자본이 가득찬 곳으로 묘사하고 있어,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며 이적표현물이라 판결했다.

이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김대중 정권 하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더욱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자 민족미술인협회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은 판결이 작품의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석한 결과라는 내용의 반박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국가권력에 의한 사전심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일본에서 '고질라'보다 큰 호응을 얻은 북한영화 '불가사리' 밑그림

### 4.통일을 노래하면 구속(?)

올해 문화계를 얘기하면서 노래극단 '희망새' 단장 및 수습단원이 구속되는 일을 빼놓을 수 없다. 8·15 범민족대회 통일대축전에서 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것이다. 지금까지 범민족대회 등 정권에 의해 불법행사로 낙인찍힌 행사의 공연 행위만을 이유로 법을 집행한 적은 없다고 한다. 현재 '희망새'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이다.

당시 '희망새'는 "우리가 통일을 노래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면 그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며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밝혔다.

### 5.완전등급제 시행 그러나 '빛 좋은 개살구' 꼴

드디어 완전등급제가 시행되게 됐다. 완전등급제란 행정력을 가진 국가기관에 의한 심의가 아닌 재정적·정치적 자율이 담긴 민간단체에 의한 등급 심사를 기초로 관람 연령과 상영극장을 결정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제작자가 아닌 외부에 의해서 영화가 삭제되는 경우는 없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라는 국가기관에 의해 진행되던 검열이 사실상 폐지가 된다. 대신 등급분류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상물에 대한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을 받지 못한 영상물도 등급외 전용관을 통해 상영할 수 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 보장'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완전등급제' 실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현 영화진흥법상 완전등급제는 실시하나 등급외전용관은 불허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의 검열은 지속될수 있다는 것이다. 정권은 외설적인 내용을 담은 영화에 대해 단호히 입장을 정리한 것이 밝히지만, 등급분류기관인 '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가칭)'의 등급분류기준 중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준수 조항으로 미루어 볼 때,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 예를 들어 현 정부의 노동자 정리해고 정책을 비판한 내용의 영상물이 등급을 부여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 등급외 전용관이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작품은 그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영원히 상영될 수 없다.

올 4월부터 실시될 이 제도는 '등급외전용관'이라는 알맹이가 빠진 채, 기존의 '사전심의'가 '등급분류'로 이름만 바뀔 뿐이지 여전히 검열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 빨리 관계법령을 개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남북문화, 이제 '이질'에서 '동질'로

### 6.금강산 뱃길 따라 '통일의 선율'이 흐른다

작년은 남북문화 교류가 활성화된 해다.

작년 초에 리틀엔젤스 어린이 합창단이 방북을 했고, 가을에는 1회 윤이상통일음악회가 평양에서 남북 음악인들이 모여 개최했다. 비록 성사되지 않았지만, 남한의 민예총과 북한의 문예총 사이의 '98남북통일예술 축전'도 합의를 보았다.

특히 지난 11월 3~5일까지 열린 윤이상 통일음악회는 분단 이후 첫 '남북한 합동연주회'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음악회는 윤이상씨가 88년 비무장지대에서 민족합동음악축전을 열자고 남북한 정부에 제안한 지 10년만에 결실을 본 것이다. 노동은, 안숙선, 이건용씨 등의 남측 음악인 11명과 북측의 국립교향악단, 윤이상관현악단이 함께 협연한 이번 연주회는 통일의 당사자인 남, 북 음악인의 만남으로 우리 음악 즉 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통일문화' '민족문화'라는 점이 다시금 각인시켜 주었다. 이 연주회는 올해 서울에서 2회를 개최하기로 해 이후 문화계의 지속적인 남북 교류가 예상된다.

### 7.체제는 달라도 정서는 하나

올해 '화해와 협력' 분위기에 맞춰, 북한의 문화에 대한 소개가 널리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북한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림꺽정' '온달전'이 TV를 통해 방영돼, 북한과 북한문화를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런 움직임은 올해도 지속된다. 곧 MBC를 통해 신상옥 감독의 '불가사리'가 방영될 예정이며, 다른 영화들도 지금 준비중에 있다고 한다.

북한영화 뿐만 아니라, 그동안 당국에 의해 '금서'로 판명된 소설 '꽃파는 처녀'(북한의 3대 혁명가극 중 하나)가 '이적표현물이 아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를 계기와 현재의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북한의 문화작품이 대중적으로 읽힐 날도 멀지 않았다.

지난 12월 23일에는 구의동 테크노마트에서는 북한 대중가요가 선보이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에 적용받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된 이번 공연에서는 '하얀 서리꽃' '친구' 등 북한의 서정적인 대중가요를 불러 많은 이들의 박수를 받았다. 직접 노래를 부른 이미선(23)양은 "북한 노래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아. 통일이 되면 남북이 가슴으로도 하나가 될 것 같다"며 남·북한 사람들의 감정과 취향이 비슷함을 언급했다.

그동안 '이질'이라는 한 마디로 북과 남의 문화를 구분하던 움직임은 올해 다양한 북한문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동질'이라는 말로 바뀌어가고 있다.

김민석 기자


**외국어연수생 모집**

야간 10주 대학(원)생과정

■ 모집과정 : 영어
■ 교육기간 : 1999. 2. 1(월) ~ 4. 9(금), 10주(제37기)
■ 대　　상 :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타 대학(원)생도 지원가능)
■ 수업시간 : 월, 화, 목, 금(주4일), 1일 2시간 (수업시간 : 17:30 ~ 19:20)
■ 등록기간 : 1999. 1. 22(금)까지 선착순 접수

야간 10주 일반인과정

■ 모집과정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등 24개 외국어 ※ 일본어 능력시험 대비반
■ 교육기간 : 1999. 2. 1(월) ~ 4. 9(금), 10주(제37기)
■ 수업시간 : 월, 화, 목, 금(주4일), 1일 2시간 (수업시간 : 19:20 ~ 21:20)
■ 등록기간 : 1999. 1. 22(금)까지 선착순 접수
■ 문 의 처 : 연수평가원 사무과 (☎ 961-4171/5, 962-7119)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올해도
정론직필의 발자욱을
선명히 남기겠습니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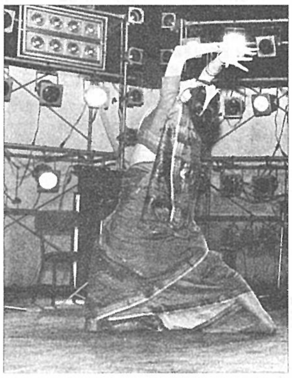
98년 외대 재단 사태는 전 이숙경 재단 이사장이 박승준 전 재단 전무이사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시작되었다. 학원의 주인인 교수·학생·직원은 외대 발전의 의지를 모아 중간고사 거부로 총파업까지 단행하였으며 마침내 외대몰락의 주범 박승준을 구속시키기에 이른다.

**외대인의 쾌거**

98외대 이야기

# 외대 희망의 속삭임들

**평양행 비행기표 1만3천장** 반세기 만에 금강산 뱃길이 열리면서 남북교류·화해의 분위기가 절정에 달하자 조규철 총장도 평양외대와의 학술교류를 추진한다. 이에 본보는 평양외대를 방북취재하고자 외대인들의 여론을 조사한결과 83%가 외대학보의 방북취재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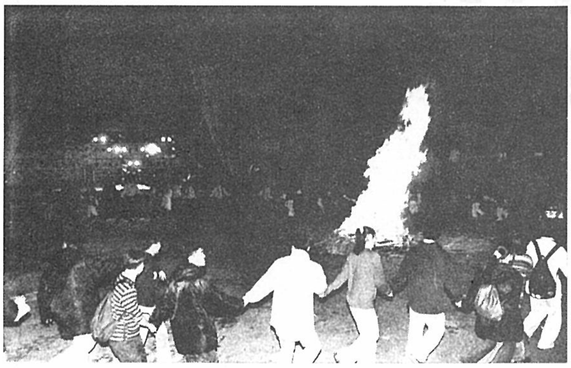


**외대만의 세민전**

용인배움터에서 2년마다 열리는 세민전(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은 외대만의 특성을 살려 세계 각 국의 민속춤·의상·노래등을 무대에 올린다. 작년에는 KBS홀과 대학로에서 그 환상의 무대를 펼쳤다.

**나누는 고통의 희망**

지난 여름 물난리로 고통을 받는 민중들의 현장에도 외대인은 있었다. 산사태에 무너진 집을 다시 짓고 살림살이를 주워 모았다. 고통은 나눈 만큼 희망이 되었다.



**대동단결** 서울배움터의 대동제 폐막식 모습.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을 중심으로 손에 손을 잡고 노천을 도는 외대인. 하나가 되는 순간의 희열이다.

**민중 속에 숨쉬는 외대인** 작년 노동자는 정리해고, 농민은 농가부채, 대학생은 취업문제 등으로 각계 각층의 민중들은 고통의 한해를 보냈다. 이들이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현장에 외대 깃발은 휘날리고 있었다.

# 용인, 확대운위 열려

## 등록금 삭감 투쟁에 대한 구체적 방법 논의

용인배움터 20대 총학생회 1차 확대 운영 회의가 지난 달 29일(화) 서울배움터 사회과학관에서 열렸다.

총인원 60명 중 35명 참석, 사고 4로 정족수 1/2 참석으로 성사된 이번 확대 운영 회의에서는 고 조현식 열사 사건 경위 및 장례 일정 공유와 안건으로 △총학생회 기간 사업보고 △건준위 사업 계획 해설 및 인준 △현 시기 학원 자주화 운동(학자) 요구안과 98년 학자 요구안 점검, 공유 △모현학사 사생회 및 도서관 자치위원회 위원장 인사와 현안보고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건준위 사업계획 해설 및 인준 건에서는 99년 등록금 삭감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투쟁계획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등록금조절위원회 건설 △서울 배움터 총학생회와 공동위원회 구성 △등록금 삭감 투쟁에 대한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글 발송 △전화방문, 서명운동, 신문광고 등을 논의했다. 또한 간부인선 건에서는 19대 총학생회에서 대두되었던 위원회 사업을 강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직위원회(문화답사, 인권학술, 문학예술, 정보통신, 환경, 체육)를 할 예정이다. 그중 20주년 기념위원회는 임수경씨의 방북 10주년을 맞아 자주교류 행사를 기획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장 신동헌(동구어·헝가리 3)군은 "과회장들과 함께 20대 총학생회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 정책에 대한 아낌없는 비판과 평가를 바란다"며 "확대운위 자격으로서 7천 왕산인을 책임질 수 있는 모습 갖추자"고 밝혔다.

# 양배움터 새내기 새로배움터 열릴 예정

## 용인, '왕산중심통합발전' 새터 중심 의의 걸어

용인배움터 99년 새내기 새로배움터(새터)는 오는 2월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낙산 프레아 리조트에서 진행된다. 올해 새터는 '왕산공동체를 모두의 마음으로 모아 복원 해 내고 이로부터 등록금 투쟁 승리를 시작으로 하여 왕산중심 외대 통합 발전의 꿈을 이루자'라는 의의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작년에 단대별로 진행했던 것과는 달리 중앙 집중 새터를 원칙으로 한 것이다.

지난 달 29일(화)에 열렸던 20대 총학생회 확대 운영회의에서 제기한대로 이번 99년 새터는 출발지연을 막기 위해 총학생회의 중앙 프로그램을 줄이기로 했다.

한편 서울배움터 새터는 오는 2월 23일(화)부터 25일(수)까지이다.

### 1999학년도 신입학지원자 접수 현황(정시)

| 대학 | 학과 | 모집인원 | 접수인원 | 경쟁률(%) |
|---|---|---|---|---|
| 서양어대학 | 영어과 | 94 | 750 | 7.97 |
| | 불어과 | 70 | 269 | 3.84 |
| | 독일어과 | 73 | 283 | 3.87 |
| | 노어과 | 35 | 173 | 4.94 |
| | 서반아어과 | 69 | 320 | 4.63 |
| | 이태리어과 | 24 | 88 | 3.66 |
| | 포르투갈어과 | 26 | 87 | 3.34 |
| | 네덜란드어과 | 25 | 73 | 2.92 |
| | 스칸디나비아어과 | 30 | 89 | 2.96 |
| | 계 | 446 | 2,132 | 4.78 |
| 동양어대학 | 중국어과 | 70 | 306 | 4.37 |
| | 일본어과 | 69 | 376 | 5.44 |
| | 마·인어과 | 25 | 96 | 3.84 |
| | 아랍어과 | 48 | 136 | 2.83 |
| | 태국어과 | 29 | 94 | 3.24 |
| | 베트남어과 | 23 | 62 | 2.69 |
| | 인도어과 | 27 | 82 | 3.03 |
| | 터어키어과 | 29 | 111 | 3.82 |
| | 이란어과 | 30 | 151 | 5.03 |
| | 계 | 360 | 1,414 | 4.04 |
| 사회과학대학 | 사회과학계열 | 91 | 394 | 4.32 |
| | 계 | 91 | 394 | 4.32 |
| 법과대학 | 법학과 | 106 | 630 | 5.94 |
| | 계 | 106 | 630 | 5.94 |
| 상경대학 | 상경계열 | 159 | 540 | 3.39 |
| | 계 | 159 | 540 | 3.39 |
| 사범대학 | 영어교육과 | 19 | 83 | 4.36 |
| | 불어교육과 | 24 | 81 | 3.37 |
| | 독일어교육과 | 26 | 117 | 4.50 |
| | 한국어교육과 | 23 | 104 | 4.52 |
| | 계 | 92 | 385 | 4.18 |
| 서울캠퍼스 | 계 | 1244 | 5,495 | 4.41 |

※ 마·인어과는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의 약어임

| 대학 | 학과 | 모집인원 | 접수인원 | 경쟁률(%) |
|---|---|---|---|---|
| 인문대학 | 인문학부 | 12 | 448 | 30.73 |
| | 계 | 120 | 448 | 3.73 |
| 서양학대학 | 영어과 | 72 | 228 | 3.16 |
| | 불어과 | 78 | 185 | 2.37 |
| | 독일어과 | 80 | 167 | 2.08 |
| | 노어과 | 51 | 127 | 2.49 |
| | 서반아어과 | 76 | 182 | 2.39 |
| | 이태리어과 | 50 | 153 | 3.06 |
| | 포르투갈어과 | 51 | 137 | 2.68 |
| | 폴란드어 | 40 | 108 | 2.70 |
| | 루마니아어과 | 40 | 167 | 4.17 |
| | 체코어과 | 40 | 127 | 3.17 |
| | 헝가리어과 | 40 | 113 | 2.82 |
| | 유고어과 | 40 | 117 | 2.92 |
| | 계 | 658 | 1,811 | 2.75 |
| 동양학대학 | 중국어과 | 30 | 126 | 4.20 |
| | 일본어과 | 24 | 117 | 4.87 |
| | 마·인어과 | 40 | 123 | 3.07 |
| | 아랍어과 | 40 | 120 | 3.00 |
| | 태국어과 | 40 | 111 | 2.77 |
| | 인도어과 | 30 | 71 | 2.36 |
| | 아프리카어과 | 40 | 94 | 2.35 |
| | 계 | 244 | 762 | 3.12 |
| 경상대학 | 경상계열 | 135 | 440 | 3.25 |
| | 계 | 135 | 440 | 3.25 |
| 자연과학대학 | 수학·통계학부 | 80 | 275 | 3.43 |
| | 물리·화학부 | 91 | 416 | 4.57 |
| | 환경·생명공학부 | 102 | 717 | 7.02 |
| | 계 | 273 | 1,408 | 5.15 |
| 정보산업공과대학 | 컴퓨터 및 정보통신공학부 | 110 | 474 | 4.30 |
| | 전자·제어공학부 | 100 | 396 | 3.96 |
| | 산업공학과 | 50 | 225 | 4.50 |
| | 계 | 260 | 1,096 | 4.21 |
| 용인캠퍼스 | 계 | 1,690 | 5,964 | 3.52 |
| 총계 | | 2,934 | 11,459 | 3.90 |

# 학술진흥재단 공모과제에서 높은 선정률 보여

지난 12월 10일 한국학술진흥재단은 '98년도 자유공모 및 신진교수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이번 공모에서 우리학교는 총 신청건수 100건중 30건이 선정, 서울대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선정률을 나타냈다. 이번 우리학교의 과제별 선정률을 살펴보면, 신진 교수과제 부분에서는 25건 중 2건이 선정되어 8%의 선정률을, 자유공모 과제부분에서는 총 75건을 신청 28건이 선정되어 37.3%의 선정률을 보였다. 특히 자유공모 부분에서 우리학교는 서울대의 36.2%보다 높은 선정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11대 언론협의회 선거 치뤄져

## 박윤정(사회·행정 3)양 선출돼

지난 12일(화) 서울배움터 여학생 휴게실에서 5개 언론사 정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11대 언론협의회 선거가 치뤄졌다. 이날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박윤정(사회·행정 3)양이 투표율 71.9%, 득표율 85.3%로 11대 언론협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박윤정 당선자는 "언협의 집행력을 높여 5대 언론사들의 실질적인 구심으로 서고, 전학대회에서도 인준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우리학교 출신 노동운동가 사망

## 조현식씨 화재 진화중 숨져

용인배움터 출신 노동운동가 조현식(서학·독일어 84)씨가 지난 달 28일(월)에 오전 6시 45분에 사망했다. 아침, 경기 광주 건설 일용노조 사무실 실직 노동자들의 일자리 찾아주기 사업인 '생명의 숲 가꾸기' 사업설명회를 준비하기 위해 노조 간부들과 회의 중, 사무실 안쪽에서 불이나 이를 진화하려다 심한 화상을 입어 28일(월)에 사망했다.

이에 용인배움터 총학생회는 30일(수) 노제를 치렀고 조현식씨는 경기도 마석에 안장되었다.

한편 조현식씨는 경기 광주 노동법률상담소 조직국장, 경기 광주 '일하는 사람들' 회장, 광주지역 건설일용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사회에 복무해왔다.

# 98년도 임금협약 체결돼

## 노조·학교, 임금인사 동결과 호봉 제도 개선에 합의

지난 12월 31일, 노조와 학교의 단체협상에서 98년도 임금협약이 체결되었다. 체결된 협약내용으로는 99년도 임금동결을 비롯, 근무년수에 따라 지급하는 단일 호봉제에서 기능직, 용원직 직원들의 임금을 현행 1.5년 마다 승급하던 것을 △기능직 남자직원은 30호봉부터 여자직원은 28호봉부터 격년 승급으로 △용원직 남자직원은 24호봉부터 여자직원은 20호봉부터 격년 승급제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3번의 실무교섭 끝에 이루어진 이번 협상으로 기능·용원직의 경우 향후 10년간 평균 6.95%의 실질적인 임금 상승이 기대된다. 이에 관해 노조 사무국장인 강호삼씨는 "그동안 학교측에서는 예산문제를 이유로 호봉제 개선안을 거부했지만, 개선안은 예산 차원이 아니라 제도 개선 차원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다"라며 "이번 협상은 그동안 직종간 갈등을 야기했던 호봉제도가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폴란드 대학과 학술 교류 협정 맺어

우리학교는 지난 12월 3일과 7일 각각 폴란드 바르샤바대학, 포즈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은 조규철 총장의 독일 자유 베를린대 개교 50주년 기념행사 방문중 맺어졌으며 이번 학술교류협정 체결로 바르샤바대학과 포즈난 대학과는 교수교류와 교환 학생교류를 비롯 학술자료 교환등이 있을 예정이다. 우리학교와 교육교류 협정을 맺은 폴란드에 있는 대학으로 98년 6월에 협정을 맺은 야기엘로기안 대학이 있다.

**새내기 여러분! 반가워요**

우리학교는 지난 12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99학년도 신입생 정시 원서접수를 서울배움터 대학원과 인문과학관에서 각각 실시했다. 이날 양배움터 여러학과 재학생들이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을 미리 만나기 위해 나와 새내기들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정효정 기자

#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발라만 교수를 만나

이 사람

## "한국에 대한 애정으로 살아갑니다"

정효정 기자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우리나라에 한국을 많이 알린 것이 계기가 되서 서울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게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발라만(터키어과)교수는 주름살, 코수염, 반 정도 벗겨진 흰머리 등 외모상으로 보면 평범한 외국인 할아버지로 보여지지만 다른 외국인과는 또다른 한국적인 정겨움과 편안함이 느껴졌다.

지난해 터키의 유명 일간지인 '쿰후리예트'에 '서울에서'라는 에세이를 쓰는 등 우리나라 민요, 해장국, 추석, 어린이날, 학생운동 등 한국의 전반적인 문화를 터키에 자주 소개한 발라만 교수는 "88 서울올림픽 당시 한국과 터키의 중계자 역할도 했습니다"라고 웃으며 자랑했다.

또 발라만 교수는 "나는 한국음식을 매우 좋아하는 편인데, 특히 생선요리를 아주 좋아합니다. 다른 외국인 교수들은 매운 것을 잘 먹지 못해, 한국음식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매운 것을 아주 잘 먹는 편이어서인지 한국음식에 관심이 많습니다"라며 말하는 중간중간 노래도 불러주고 계속 웃음을 지어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이질감을 잊게 했다.

터키에서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그는 "터키에서 한국은 그리 먼나라가 아닙니다.

터키 국민들은 한국식당을 자주 찾고, 한국옷을 즐겨입으며 한국인을 좋아하는 나라입니다"라며 "또 언어에서도 비슷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예로 '물'은 터키에서 '수', 마시는 '차'는 터키에서도 '차'라고 쓰입니다"고 설명하며 한국에서 13년간 살아오며 쌓인 한국에 대한 친숙함과 정겨움을 표현했다.

그러나 발라만 교수는 곧 터키로 돌아갈 예정인데 이에 대해 그는 "한국을 떠난다는 것이 전혀 아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터키에 돌아가서는 한국과 터키의 문화를 비교한 책을 집필할 예정입니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이렇듯 한국에 대한 애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발라만 교수는 우리에게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대주의 풍조가 아직도 남아있는 현실에 대해 반성을 하도록 해주었다.

정효정 기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주요도서 안내

| 분야 | 도서명 | 저·편자명 |
|---|---|---|
| 어학 | 세계주요언어 | 변광수 편 |
| | 통역대학원입시가이드(Tape 6개포함) | 통역대학원 편 |
| | 한국어1 | 한국외대연수원 편 |
| | 한국어2 | 한국외대 연수원 편 |
| | 국어작문 | 국어작문교재편찬위 편 |
| | 초급일본어 | 일본어과교재편찬위 편 |
| | 중급일본어1 | 일본어과교재편찬위 편 |
| | 중급일본어2 | 일본어과교재편찬위 편 |
| | 대학일본어 | 일본어과교재편찬위 편 |
| | 일본어 코스 | 일본어과교재편찬위 편 |
| | 일본어회화1 | 일본어과교재편찬위 편 |
| | 일본어회화2 | 일본어과교재편찬위 편 |
| | 일본어 문자연습 | 일본어과교재편찬위 편 |
| | Freshman English(FE) | 영어교재편찬위원회 |
| | Sophomore English(SE) | 영어교재편찬위원회 |
| | University Compostion 1(UC) | 영어교재편찬위원회 |
| | 미국문화에 얽힌 미국영어(舊) | 김재민 저 |
| | 미국문화에 얽힌 미국영어(新) | 김재민 저 |
| | 중급 네덜란드어 강독 | 한국현 편 |
| | 중급 네덜란드어 문법 | 김영중 편 |
| | 기초 서반아어 | 서반아어과 편 |
| | 중급 서반아어 | 서반아어과 편 |
| | 초급 에스파냐어 강독 | 서반아어과 편 |
| | 중급 에스파냐어 강독 | 서반아어과 편 |
| | 중급 에스파냐어 작문 | 서반아어과 편 |

| 분야 | 도서명 | 저·편자명 |
|---|---|---|
| 어학 | ESPANOL xxl(A) | 서반아어과 편 |
| | ESPANOL xxl(B) | 서반아어과 편 |
| | 서반아어 문장연습 | 정혜정 저 |
| | NOVELA BRASILERA | 이승덕 편저 |
| | 외국인을 위한 헝가리어 | 박수영 편 |
| | 현대인도네시아어 회화 | 안영호 저 |
| | 초급 말레이어 | 전태현 외 |
| | 시청각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편 |
| | 인도네시아 어학개론 | 안영호, 전태현 공저 |
| | 기초 아랍어 | 김용선 저 |
| | 아랍어 口文語體 比較論 | 오명근 저 |
| | 아랍어 서간문 | 홍순남 저 |
| | 시사 아랍어(정치·경제) | 홍순남 저 |
| | 기초 터어키어 문법 | 서재만 저편 |
| | 시청각 타이어 | 태국어과 편 |
| | 배우기 쉬운 태국어 | 최창성 저 |
| | 배우기 쉬운 태국어(Tape 2개) | 최창성 저 |
| | 기초 베트남어 | 김기태 저 |
| | 시청각 베트남어 | 김기태 저 |
| | The Logical Way of Thinking | |
| | 베트남어 발음 연습 | 김기태 저 |
| | 힌디 입문 | 김우조 저 |
| (신간) | 무역인도네시아어 | 안영호 편저 |
| 어학 | 중한일삼국 경제무역용어 비교 집성 | 류소야 편저 |
| 종류 | 중동학문헌록 | 중국문제연구소 편 |

| 분야 | 도서명 | 저·편자명 |
|---|---|---|
| | 세계인의 의식구조1(서양편) | 외국학종합연구센터 편 |
| | 세계인의 의식2(동양편) | 외국학종합연구센터 편 |
| 종교 | 쿠란-初期 이슬람의 形成 | 김용선 저 |
| | 이슬람 입문 | 김정위 편 |
| 사회과학 | 친족상속법-가정법- | 양수산 저 |
| | 중국의 실체와 정책 | 조희환 편 |
| | 태국 현대정치의 이해 | 차상호 저 |
| | 소련과 동유럽의 종교와 민족주의 | 임영상, 황영삼 공편 |
| | 동남아와 아세안 | 양승윤 저 |
| |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 | 대학원지역연구회 |
| | 일제하의 동남아 | 김영애 외 |
| | 인도네시아 사회와 문화 | 양승윤 외 |
| | 인도네시아 현대 정치론 | 양승윤 |
| | 경영학 새로운 만남 | 조남신 저 |
| | 중동 정치질서의 이해-변화와 지속성 | 홍순남 저 |
| | 남성들의 경제학을 넘어서 | 김애실 외 |
| | 대학-새로운 삶의 시작과 학문탐구 | 대학생활교양도서 편 |
| | ERME | 이종걸 편 |
| | ERIE | 이종걸 편 |
| | ACBC | Owen P. Doyle저 |
| | 현실과 신화 | 조종혁 저 |
| 동남아학총서 | 오세아니아(21세기의 비전) | 양승윤, 강종순 외 |
| | 태국의 이해 | 한국태국학회 편 |
| | 싱가포르(동남아의 선진복지국가) | 유인선, 양승윤 외 |
| | 말레이시아 | |

| 분야 | 도서명 | 저·편자명 |
|---|---|---|
| | 필리핀 | 양승윤 외 |
| 순수과학 | 과학사서설 | 박성래 저 |
| 예술 | 건강과 스포츠 | 대학체육교재편찬위 편 |
| 어학(사전) | 한불(韓佛)사전 | 한국불어불문학회 편 |
| | 이한(伊韓)사전 | 이태리어과 편 |
| | 터어키어-한국어사전 | 서재만 편 |
| | 태한(泰韓)사전 | 태국어과 편 |
| | 한서(韓西)사전 | 장선영 편 |
| | 현대인도네시아어-한국어사전 | 안영호 편 |
| | 힌디-한국어사전 | 이정호 외 엮음 |
| | 페르시아-한국어사전 | 김정위 엮음 |
| | 스웨덴어-한국어사전 | 김상일, 변광수, 구래복엮음 |
| | 네덜란드어-한국어사전 | 김영중, Paula Kim |
| | 한국어-인도네시아어 사전 | 정영림 편 |
| 실용외국어회화 | 1.중국어회화(TAPE1개포함) | 우인호 저 |
| | 2.인도네시아어 회화(Tape2개 포함) | 전태현 저 |
| | 3.베트남어 회화(Tape2개포함) | 김기태 편 |
| | 4.폴란드어 회화 | 정병권 저 |
| | 5.태국어 회화 | 서정선 저 |
| | 6. 스페인어 회화 | 민선채 저 |
| | 7. 러시아어 회화 | 강덕수, 강흥주, 장실 |
| | 8.헝가리어 회화 | 이상협, Meszaros |
| | 9.체코어 회화 | 권재일, Bytel |
| 어학 | 힌디 문법 | 이정호 저 |
| | 이란어 회화 | 신범우 편저 |

| 분야 | 도서명 | 저·편자명 |
|---|---|---|
| | 기초 체코어 강독, 회화 | 권재일, 김규진, Bytel공저 |
| 문학 | 중국현대시의 이해 | 유성준 편 |
| | 내가 본 러시아 문학 | 한국노어노문학회 편 |
| | 고대 소설개론 | 석일균 저 |
| | 인도네시아 현대문학사 | 정영림 저 |
| | 서반아, 라틴아메리카문학사 | 상신영 저 |
| | 현대 아랍산문 | Ahmad Tuli외 |
| | Hidden Stone | 이상준 저 |
| 세계문학총서 | 1.잘려진 머리(영국편) | 아이리스 머도크/최옥영옮김 |
| | 2.김역(러시아편) | 블라디미르 마카닌/이종진 옮김 |
| | 3.착한성인 마누엘외(스페인편) | 미겔 데 우나무노외/박철 옮김 |
| | 4.시간과 바람(브라질편) | 에리코 베리씨무/이승덕 옮김 |
| | 5.숲속의 동화 외(루마니아편) | 미하일 사도베아누외/김성기 옮김 |
| | 6.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체코편) | 밀란 쿤데라 김규진 옮김 |
| | 7.산시로(일본편) | 나쓰메 소오세키/최재철 옮김 |
| | 8.무지에 의한 단죄(태국편) | 첫 꼼 짓/김영애 옮김 |
| | 9.자카르나외(인도네시아편) | 뚜낀라외니/정영림 옮김 |
| | 10.짝짓기(독일편) | 쉐디슈나이더/김충남 옮김 |
| | 11.비와 토지(터어키편) | 네새니 쥬머노/김대성 옮김 |
| 역사, 지리, 관광 | 동남아사 입문 | 밀튼 W.마이어/김기태 옮김 |
| | 복지의 나라-스웨덴 | 변광수, 구례복, 김현옥 공저 |
| | 한국문화(아프리카어) | Kimeme Wa Mutiso 저 |
| | Malenge Wa Mvita연구 | Kimeme Wa Mutiso 저 |

1999.1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장

35회 외대 문학상 · 시부문 당선작-저녁이야기… 1999 가을 · 수필부문 당선작-돌아오지 않는 식구를 기다리다 · 소설부문 당선작-괘종시계가 있던 자리 · 평론부문 당선작-내부의 유배지, 허상의 땅, 霧津 15회 외대학술상 · 인문과학 가작-동대문 상인집단의 특수어 연구

# 저녁이야기… 1999 가을

최석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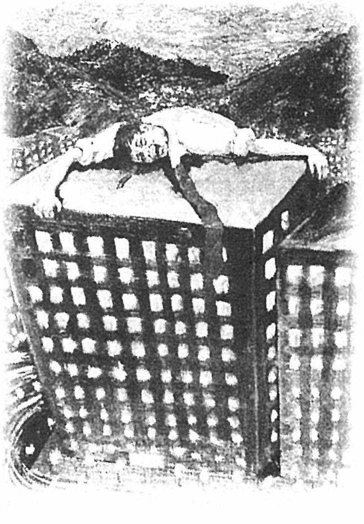
종일 비다.
자라 등 닮은 솥뚜껑마냥 올해 비는 고통을 닮아 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소리없이 흐늘거리는 그림자들 밟고 저멀리 아버지가 오신다.
어둠을 머금은 바람 때문인지 쓸쓸함이 점령해버린 그의 어깨-더욱 쇠잔해 보인다.
오늘을 견뎠다는 쓴웃음… 은행을 다니시는 우리 가장은 그렇게 하루하루 늙어가신다.

까르르…까르르…
삼남매 맛좋은 입담에
무거운 즐거움이 흐르는 저녁식사
긴장된 감정이 교차하는
가족의 젓가락질 사이로
고단한 하루가 묻어있는 식탁
TV 뉴스에서 배달되는
집세걱정 직장걱정 장래걱정
반찬 삼아 책을 읽듯 밥을 먹는다
훌쩍 커버린 자식들이 힘이라며
전설 속에 家長처럼 큰 소리 치시는
아버지의 환상…을 안쓰럽게 지키고 계신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인내
그 김치처럼 쉬어버린 마음…

가족들의 먼지를 털어내는
저녁식사는 숭고한 의식이다

방마다 쏟아지는,
까르르…까르르… 무지개빛 웃음 뒤로
저녁- 가족과 세상의 저녁이 저만친 물러간다

서효정 「아버지」



## 시 당선소감

최석환〈상경 · 무역 4〉

### 내 진리의 세계를 위해 글을 쓴다

은유가 억압받던 시절은 지났다.
그러므로 은유는 힘을 잃었다.
나는 톡 까놓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
시가 나를 건달로 만들었다.
……
난 결국 은유를 포기하지 못할 거예요
-유하 '천일馬화' -

삶의 중심이 글쓰기라고 느끼면서부터 '내'가 보이기 시작했고 일상이 즐거워졌다. 무감각하게 지나치던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빛을 발견했고 모든 삶이 자연스러워졌다. 생활은 무절제해졌지만 마음만은 가벼웠다. '하고 싶은 일'을 찾은 사람의 게으름은 수동성이 능동성으로 합리화됨을 느끼며 그 생활을 즐겼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짓누르던 시에 대한 소명의식이 내 영혼을 들쑤실 때 이런저런 핑계로 그것을 피했던 적도 있다. 그렇지만 시를 떠난 나는 내가 아님을 인정하고, 신내림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무당처럼 스스로를 추스리면서부터 더욱 진지하게 삶을 대하는 나를 느끼고 전율을 느꼈다. 지금의 나는 무엇을 해야할지 분명히 알고 있으며 어려운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여정을 준비하고 이제 막 떠나려는 나에게 이 상은 많은 위로가 되어 주었다.

밑도 끝도 없는 글쓰는 작업에 그나마 밝은 빛을 보여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매한 한 문학도의 외로운 의지가 더욱 단단해졌음을 전하고 싶다.

부모님을 비롯해서 내 뜻을 이해해준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밝은 빛은 빛나지 않는다"

내가 정한 내 진리의 세계를 위해서 조용히 글을 쓰고 싶다.

## 시 심사평

신경림〈시인〉

### 우선 따뜻해서 좋다

열 학생의 작품을 읽었는데 특별히 뛰어난 작품은 보이지 않았다. 대체로 너무 말이 많아 시를 읽는 재미가 덜했다. 시란 언어의 예술이라는 점을 너무들 소홀하게 여기는 것 같다. 새로운 발상도 찾기 어려웠는데 쉽게 생각하고 쉽게 쓰는 동시대의 시인들의 악영향도 너무 깊은 것 같다. 남들이 이미 써먹은 내용을 마치 자기가 처음 생각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작품도 적지 않았다. 어떤 시는 우리 시에 대한 교양이 너무 없지 않나 여겨지기도 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 김태선, 김종보, 최석환 등 세 학생의 시가 비교적 돋보였다. 김태선의 시는 분방한 점이 마음에 든다. 한데 너무 장황하다. '뿌염' 같은 시는 적어도 3분의 1을 덜어냈어야 시로서 더욱 또렷한 골격을 갖추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분명하게 드러났을 것이다. '외로움이라는 사치'는 제목부터 유치하고 왜 썼는지 모르겠다. "어떠한 고통도 다 그 자신의 것"이란 케케묵은 잠언이 그렇게 신비했다면 공부를 더 해야 할 것 같다. 김종보의 시는 여기저기서 너무 자주 대한다. 상당한 수준인데 배배 꼬는 것이 너무 난삽하고, 작위적이라는 느낌도 준다. 읽는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야지 괴롭게 만든다면 그것도 좋은 일은 못될 것이다. '소리에 대하여' 같은 작품은 잘만 다듬으면 우리 시단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터인데, 조금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 최석환의 '저녁이야기…1998 가을'은 우선 따뜻해서 좋다. 요즘 우리 사회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대목도 이 시가 주는 즐거움의 하나이다. '막내의 자리'는 너무 뻔한 내용이라 깊은 맛이 없고 '시인 황지우'는 작자는 아주 새로운 발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너무 흔해빠진 소재인데다 기성의 냄새가 너무 짙다. 이런 데 빠지면 앞으로 좋은 시 쓰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이상 세 학생 가운데서 최석환의 '저녁이야기… 1998 가을'을 당선작으로 뽑는다. 김종보의 '소리에 대하여'도 당선작이 될 만한 작품이었으나 이 학생의 시는 같은 학교의 다른 현상에 뽑힌 바 있으므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 알림

### 외대 문학상 · 학술상 심사결과

■ **35회 외대문학상**

시부문 당선 · 1999 가을 … 저녁이야기, 최석환(상경 · 무역 4)
수필부문 당선 · 돌아오지 않는 식구를 기다리다, 김종보(서학 · 서반아어 4)
소설부문 당선 · 괘종시계가 있던 자리, 김종보(서학 · 서반아어 4)
평론부문 당선 · 내부의 유배지, 허상의 땅, 霧津 · 안개의 상징을 통해서 본 '무진기행'의 실재'
김종보(서학 · 서반아어 4)

■ **15회 외대학술상**

인문과학 가작 · 동대문상인 집단의 특수어 연구 :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이일섭(사범 · 한교 4)

—외대학보—

# 돌아오지 않는 식구를 기다리다

### 1.

음력 삼월 스무 이튿날은 꼭 아버지 무덤 같은 하현달이 뜬다. 그날 자정 무렵 마당에 나가 담배를 피우다 보면 천천히 기울어가는 반달을 매년 보곤한다. 기억력이 썩 좋지 않는 내가 그날 뜬 달이 하현달이라고 딱히 힘주어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날이 바로 아버지의 기일이기 때문이다. 어느새 열네번이나 의무처럼 모여야 했으니,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기억력의 젬병이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자정 무렵 제사를 끝내고 마당에 나가 그렇게 천천히 기울어가는 달을 보고 있자면 내 기억 속에서 점점 지워지는 아버지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오른다. 이제는 정말 아버지의 얼굴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 정직한 표현일 것이다. 십년이 넘었으니 그동안 아버지를 밀어내고 떡허니 자리잡은 다른 기억들이 방동사니처럼 늘어났을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런 아버지가 다른 기억들에게 밀려나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기엔 이미 저세상 사람이니 역부족이라고 발뺌을 하고 싶어진다. 물론 아버지를 잊는다는 것은 가족된 도리로써 무례한 일이겠지만, 나뿐만 아니라 식구들 모두 아버지의 빈자리에 다른 것들을 채우고 살아왔을 것이다. 그것은 헌 가구를 들어내고 새 가구를 앉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점점 희미해지는 아버지의 기억을 한때는 어머니 탓으로 돌린 적도 있다. 아버지 돌아가시며 남긴 유언은 하찮게도 한달에 한번씩 괘종시계에게 밥을 주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두달도 채 못되어 풀린 태엽을 아무도 감지않아 괘종시계는 호흡을 멈추고 말았다. 그때 아버지는 비로소 숨을 거두었는지도 모를 일이지만, 그나마 그 시계까지도 어머니는 읍내 전파사에 팔아버렸다. 골동품이라 꽤 값이 나갔던지 다른 건전지 시계와 무거운 장바구니로 괘종시계는 잊혀져 버렸다. 그후 아무도 건전지 시계의 밥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태엽을 감지 않는 아버지의 유언을 아무도 기억해내지 못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천천히 풀린 태엽처럼 잊혀져 갔는지 모른다. 괘종시계가 있던 자리. 그곳에서 무거운 가래끓는 소리와 둔탁한 기침소리가 섞여 들리던 기억도 이젠 망각의 소각장에서 태워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기억이란 그런 것이니까. 망각의 병사들 앞에서 튼튼한 기억의 성곽은 세상에 없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버지 기일 하루전까지 깜박 잊어먹고 산 것도 한 두해가 아니다. 처음 몇 년 간은 막내인 내가 앞장서서 형제들에게 아버지 기일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곤 했지만, 그것도 여러해가 지나다보니 달력에 표시된 색연필의 동그란 원은 달을 보고서야 알게 되는 것이다. 어쩌겠는가? 인간에게 망각이란 매우 요긴한 필수품인 것을. 아마도 그런 망각의 영역이 없다면 난 아직도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은 뻔한 일이다. 인간에게 죽음이란 그런 것이니까. 너무 갑작스레 닥치고 준비되지 못한 마음들이 쏟아내는 것은 눈물뿐이며, 어떤 위로도 마음의 텅빈 부분을 채워주지는 못한다. 식구들 모두에게 한 결 같은 점은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처음 몇 년간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서울에서 일곱시간이나 걸려 고향집에 찾아가면 맨 먼저 아버지가 기거하는 방문을 열고 인사를 드렸다. 버릇처럼 창호지 문의 고리를 젖히던 형제들의 눈엔 아버지대신 곡식과 여기 저기 외나리처럼 늘어진 고추들, 바닥에 수북히 내려앉은 먼지를 대면해야만 했다. 그때마다 아버지의 부재를 급작스레 만났던 그 당혹감을 저마다 가지고 있다고 털어놓곤 한다.

올해 제삿날에도 물론 난 아버지의 기일을 잊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의 제사는 학창시절 꼭 중간고사와 겹쳐 있었다. 그렇게 불편한 날들에 끼어있는 아버지를 쉽사리 꺼내기란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아버지 제사도 잊고 있었냐는 큰 형수님의 타박엔 아무래도 뼈가 들어있다. 아마 스무살이 갓 되던 해, 아버지 제삿날이었을 것이다. 그때는 아직 아버지의 기일을 기억해내는 나의 능력이 집안에서 가장 탁월하던 시절이었다. 형제들에게 안부 전화 겸 기일날의 기억들을 점검해 나갔다. 그들의 대답은 하나같이 똑 같은 변명뿐이었다. 야근과 감기, 태교에는 여행이 안좋은 거라고, 좀 가까운 곳에 있으면 금방 왔다가 갈 수 있는데, 어쨌든 애들 학교가는데 왜 아버님 제사는 꼭 주중에 끼어있는지 모르겠다고, 가지 각색의 변명들을 늘어놓고 그들이 했던 결론은 부부중에서 한명만 내려가게 될 것 같다는 거다. 기일 당일 저녁이 되어도 모인 식구들은 어머니와 나, 그리고 출가한 누나 단 셋뿐이었다. 저녁 식사를 하러 오신 작은 아버지는 지방에 '顯考學生府君神位 孝子XX' 라고 쓰시고는 그예 잠자리에 들고 말았다. 어쨌든 아직 서울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며느리들을 위해서 어머니는 마당이 환하게 불을 켜놓고 계셨다. 난 어떻게 제사에도 내려오지 않은 큰 아들을 지방에 올릴 수 있냐고 작은아버지에게 따지려 들었지만, 몇십년'제사가 골수에 깊이 박힌 그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자정이 넘어서야 도착하신 두 분의 형수님들에게 성깔을 있는대로 부렸다. 이것이 자식된 도리냐고?

아마 형수님이 올해 제삿날에 내 기억력의 감퇴에 은근히 딴죽을 건 것도 과거의 내 행동에 대한 부드러운 복수는 아니었을까? 제사라는 것. 단순히 죽은 사람을 기리는 것인가? 아버지 제삿날 수십번 모였지만, 우린 단 한번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모두 자정이 지나 음복상이 차려지면, 술잔을 기울이며 저마다 살아온 이야기로 분주할 뿐이다. 그때마다 한쪽 구석에서 은근한 표정으로 자식들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미소를 잊을 수가 없다. 어떻게 아버지의 제삿날, 아니 당신 남편의 제삿날 그런 미소를 지을 수 있는지. 죽음의 차원을 넘어선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을까?

### 2.

어머니는 농사꾼의 아내가 된 후 50년간 땅에 씨앗을 뿌리고 거두었지만, 일흔이 다 된 지금도 봄이면 싹으로 트는 씨앗들을 마냥 신기하게 여기신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생명의 신비인가? 좀 따분하게 말하자면 세상에서 생명만큼 아름다운 것도 없다. 아니 이젠 생명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이들이 했던 말을 되풀이 하는 것이기에 따분하게 들릴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땅을 대하는 마음과 어떤 생명체를 대하는 마음에는 내가 도저히 이해 못할 구석이 있다. 수챗구멍에 뜨거운 허드렛물을 버리기 전에 '비켜라! 훠~훠~ 비켜라!'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에게 한 말이냐고 여쭤보면 그냥 웃으실 뿐이다. 어쩌면 수챗구멍 그 안쪽에 사는 수많은 생물들에게 하는 소리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해볼 뿐. 어느 이른 봄날 파란 애팔밥을 지으시다가 '죄되것다. 이라고 어린 것을 묵으면' 하신다. 자꾸만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시며 도대체 무엇이 죄되것다고 하시는 건지. 난 아직 여물이 덜든 새파란 애팔밥을 우적우적 씹으며 알았다. 사람이야 밥맛을 돋우려고 무엇이든 먹지만, 이 미생의 애팔은 아직 다 성장하지도 못한 채 제 생을 버려야 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어머니는 그것이 자꾸만 맘에 걸리고 안타까우신 게다. 그런 어머니를 볼때마다 내가 느끼는 죽음은 단순한 생명의 부재 현상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앞에서도 이미 말했던 제사도 그 죽음의 연장 선상에서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제사의 기원은 유가에서 찾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유는 공자 이전에 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을 일컫는 말이었다. 이들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중간자로써의 역할을 했다. 나중에는 지식을 갖춘자라는 의미로 전환되기도 하지만, 그 이전 유의 기능은 조상 숭배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曆을 만드는 사람이었으며, 이것은 당연히 천기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재해석될 여지를 가지고 있다. 이들이 나중에 정치적 영향력을 갖기 전에는 어쨌든 유가 원시적 샤먼의 전통을 이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고대 샤먼까지 가려면 우린 꼭 죽음의 의식을 꺼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당시의 문화가 사라졌고 또한 문자화된 사실이 없는 마당에 그들이 했던 의식에 어떤 사고와 세계관이 상징적으로 잠재되어 있었는지를 말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가정이나 예측의 수준밖에 되지 못하리라는 것은 각오해야 한다.

지금도 원시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는 아프리카 오지의 부족들 중에는 부족장인 샤먼이 죽을 경우 부족들이 그의 머리 속의 골을 서로 나누어 먹는다고 인류학 자료에 보고된 바 있다. 전혀 그들의 사전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읽은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징그럽게 생각하거나 야만인 취급을 할 것이다. 이는 우리 식문화에서 개를 먹는 풍습을 유럽의 야만인들이 이해못하는 바와 똑 같은 일이다. 어떤 문화에는 그 문화 나름대로의 독특한 상징과 세계관이 들어있기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상이한 다른 문화를 알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수박 겉핥기에 다름 아니다. 그들이 실제로 부족장의 골을 나누어 먹는 것은 죽은 부족장의 지혜를 나누어 갖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런 의식이 행해지고 나면 그들은 각자 부족장의 지혜를 나누어 먹었기 때문에 부족장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혜로 다시 살아났다고 믿는단다. 그들의 의식은 존경했던 샤먼의 부재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화는 아닐까? 죽음으로 오래 슬퍼하지 않기 위한 나름대로의 지혜는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물론 각 나라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청동기의 죽음 의식이었던 고인돌에서부터, 석관묘, 옹관묘, 초장, 토묘, 목관묘, 석실 고분등 지배 계급에서 피지배 계급까지 다양한 죽음의 문화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동서양의 공통된 죽음의 문화는 시체를 땅 속에 안치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확히 언제부터 행해졌는지 모르나, 어쨌든 농경문화가 정착할 때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더 압도적이다.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을 시사해 준다. 고대 사람들이 정착생활을 하고 씨앗을 뿌리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땅에 대한 든든한 믿음이었을 것이다. 땅에 무엇인가를 심으면 새로운 생명이 자란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의 생명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풍요의 상징. 이런 깨달음으로 인해 다음 해에도 다른 땅으로 수렵채집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서 씨앗을 뿌렸을 거라는 추측은 가능할 것이다. 그런 사실로부터 그들은 한가지 추론을 귀납해내지 않았을까? 이미 죽은 사람도 땅 속에 묻는다면, 아니 씨앗처럼 심는다면 봄에 틔어오르는 싹처럼 부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말이다. 씨앗은 너무 작아서 몇 달뒤면 싹이 나오지만, 사람은 아마 수십년 수백년이 지나 부활할지도 모른다고 기다리지는 않았을까? 그 기다림이 지금까지 계속 된 것은 아닐까?

顯考學生府君神位라는 지방의 글귀만 봐도 그 부활의 흔적은 나타나 있다. 맨 처음 시작하는 현(顯)은 귀신더러 나타나라고 하는 명령문임을 보여준다. 즉 죽은 영혼더러 당신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니 지금 이곳에 나타나라는 신호이다. 이는 유가의 주문이었을 것이고, 샤먼이 귀신을 부르는 주술적 신호라 봐도 무방한 것이다. 그들은 모두 죽은 사람이 부활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것이며 또한 그렇게 믿고 있는 게 틀림없다.

물론 이런 식의 질문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벌써 14년도 넘게 땅 속에 아버지를 묻고 돌아와 평범하게 살아가는 내 행위들을 정당화시켜주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를 일이다. 왜 하필이면 그토록 차디찬 지하에 우린 사람들을 묻게 되었냐고 지금 묻는다면 누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 줄 것인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고대 사람들이 왜 죽은 사람을 땅 속에 묻었는지 그 상징과 세계관을 파악하는 길말고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상징체계가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서 이렇게 단순한 그러나 너무도 인류에게 중요한 죽음의 상징하나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이 도무지 말이 되는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 | |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31 | | | | | | |

### 3.

내년 음력 삼월 스무 이튿날에도 어김없이 하현달이 뜰 것이다. 曆을 꿰고 있던 저 고대의 샤먼처럼 달력을 넘기며 나는 아버지의 제사를 점검할 것이다. 달은 제 그림자의 늪에 빠져 반쪽 알몸만 드러낸 채 하얀 이로 웃고 있다. 반쪽은 망각이고 다른 반쪽은 기억이다. 반쪽은 살아있는 자식들 몫이고, 반쪽은 어둠을 건너간 아버지의 땅이다. 그렇게 걱정 반 위안 반으로 살다가 형제들은 죽은 아버지와 반지 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들 반쪽을 서로 맞댄다. 그날이 바로 아버지의 제삿날인 것이다. 떫은 과일을 베어물던 작은 아버지가 제 형님의 씨앗같은 흠을 뱉어내면 아버지는 그믐달처럼 초라해지지만, 키다른 젓가락을 음복상에 툭툭 고쳐 쥐는 어머니가 자식들의 허튼 웃음을 다스리면 다시 보름달처럼 환해지는 아버지의 집. 그 위로 올해도 어김없이 하현달이 뜨고 반쪽은 빛이고 반쪽은 어둠이어서 서로가 더 어둡고 더 밝아보이는 이치를 왜 모르겠는가? 머지 않아 그믐달로 마음 가득 어둠이 차올라 형제들 연락도 끊고 때론 삿대질도 하겠지만 내년 이맘때까지 거듭 보름달로 차고 기울면 형제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날 달은 활의 가슴을 지상으로 내리고 둥글게 굽은 등을 밤하늘로 향한 채, 아버지를 하늘로 당겨 올리는 부활의 활시위를.

새벽이 깊도록 제삿날 마당을 밝히는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 물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식구 때문이다. 식구들이 다 모이고도 어머니가 그 불을 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모두 모여 촛농보다 뜨겁지 않는 추억의 심지를 돋우고, 실눈 같은 향연기를 피워올리며 태생을 지우듯 철없은 과일의 꼭지를 따내고 젯상을 차린다. 제사가 끝나면 형제들은 저마다 하나의 실이 엉킨 듯 잠이 든다. 아버지는 마을 골목 어디쯤 오고 계시나? 눈 감아도 돌부리 하나 걸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세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아버지를 기어코 기다리다 잠이 든 형제들은 오랜만에 꿈자리가 뒤섞여도 좋을 것 같다. 밖은 켜놓은 불빛으로 환하다. 달빛이 조심스럽게 디뎌밟는 발자국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는 식구를 위해 이불 밑에 밥 한그릇을 묻어둔다. 뒤 늦게 돌아온 자식은 이불 밑에서 체온을 유지했던 미지근한 밥을 먹고, 성장해서도 오래도록 그 밥맛을 잊지 못한다. 제사에 올릴 멧밥이 식지 않도록 해마다 가슴에 묻어둔 기억들도 있다. 이토록 오래 식지않는 기다림을 본 적 있는가? 해마다 제사가 되면 풀린 아버지 기억의 태엽이 감기는, 이 죽음을 넘어선 시간의 비밀을.

---

**수필 당선소감**

김종보〈서학 · 서반아어 4〉

## 변두리로의 초대

그토록 오랫동안 김정진 교수님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고 싶었으나, 그러질 못했다. 기껏해야 한국문학이나 문학 개론의 교양강좌에서 공적인 만남을 가졌을 뿐. 그분은 아주 멀리 틈입할 수 없는 성곽 안에서 소설을 쓰고 계셨으니까?

사월문학 후배들이 교수님과 인터뷰를 했다며 글모음집 '숲나이'를 건네주었다. 거기에 "자신의 축적된 경험이 글로 나오는 것 같다"는 교수님의 한마디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나 너무나 빛나게 반짝거리고 있었다.

애초에 수필이라는 글쓰기에는 '따위'라는 조사를 붙이며 써왔다. 수필따위야 글축에도 속하지 않으니까 하는 심정으로 말이다. 하지만 수필을 쓸때마다 느끼는 건 부끄러움뿐이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 깨달음의 한계, 삶이 가진 범위의 한계, 경험의 한계들. 온통 자신의 한계를 보여주는 장르가 바로 수필이라는 게 내가 내리는 수필의 정의다. 사족을 붙이자면 그 한계앞에서 정직해지는 게 또한 수필의 중심은 아닐까? 루카치의 '영혼과 형식'을 통해 김윤재 교수님으로부터 수필을 배웠을 때, 나는 스펙트럼의 자외선 띠를 어떻게 보여주나? 의구심이 들었다. 물론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수필조차 변두리에 불과한 정말이지 "따위"라는 말이 어울리는 글이겠지만 말이다. 그 변두리에 가면 동아리 '사월문학'이 있다.

아름다운 사람이 있기에 그 방은 밤마다 소주의 맑고 투명한 푸른빛으로 빛난다. 그 곳의 삶이 내 수필의 전부였다고 말한다면 이제야 비로소 정직해진 걸까? 교수님을 그 방으로 초대해 술 한 잔 대접해야겠다고, 그리고 밤새 문학을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고 후배들과 몇 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번번이 그러질 못했다.

[illegible] 날이 [illegible] 환상하게 취해도 좋을 것 같다.

**수필 심사평**

김정진〈문화평론가, 한교과 강사〉

## "삶의 고민이 녹아 있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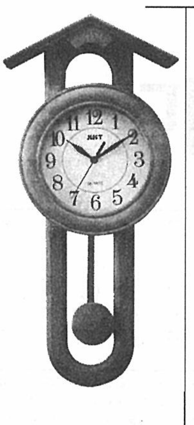
투고된 원고들은 예년과 달리 기행담이나 연애 감정 등을 담아내는내용은 없었고 대부분 자신의 삶과 그 삶의 터인 사회에 대해 고민하고 성숙한 자세로 인생을 모색하는 수준 높은 작품들이 대부분이었다.

먼저 박준호의 '4학년'은 경제위기의 우리현실과 그 삶의 의미를 반추하는 사유의 자유로움을 담담하게 그려냈다. 그러나 문체와 분량에서 단조로움을 넘어서지 못했고 수필 형상화라는 측면에서 완성도가 다소 떨어진 작품이었다.

최석환의 '내면의 고백- 20대의 단상들'은 기형도, 정호승, 신현림, 유하 등의 시문과 조지길더, 비트겐 슈타인 등의 사유내용등을 나열하여 스스로 20대에 느끼고 체험한 사변적인 내용을 엮어냈다. 사회에 대한 부정과 도전적인 고민은 설득력이 있지만 수필의 본령이 산문정신에 있기 때문에 글쓴이의 이성적인 사유가 시적인 분위기와 명사형으로 종결된 형식은 수필에서 결격이 될 수 있다.

김세윤의 '익숙한 것과의 이별'은 고등학교와 대학을 통해 익숙한 것들과 친한 사람들과의 이별을 맞이하는 자신의 모습을 잔잔하게 그려내어 수필다움은 손색이 없었다. 그러나 '혹사당한 몸을 날려준다' 등의 몇몇 비문과 정서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

김종보의 '돌아오지 않는 식구를 기다리다'는 하나의 단편을 연상시키는 어린 시절의 애잔한 회상과 가족의 모습에서부터 부친의 제사에 이르기까지 세련된 수사와 안정된 문장으로 일관되어 일정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다만 시제의 불일치와 둘째 챕터에서 세계의 제의식을 나열한 부분이 전체의 이미지를 다소 산만하게 한 것이 아쉬웠다. 당선을 축하하고 계속 글쓰기에 매진하여 큰 성취가 있기를 기원한다.



# 괘종시계가 있던 자리

저녁 일곱시, 이제 막 괘종 시계가 울릴 찰나였다. 수챗구멍으로 몰려들어 다급히 빠져나가는 물소리처럼 괘종소리는 식구들을 제 소용돌이로 감싸고는 가라앉아 버렸다. 누군가 울음을 터트릴 것 같았지만 이틀을 참아왔기에, 또한 한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눈물이기에 아무도 훌쩍거리지 않았다. 마치 봇물의 수위가 차오르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닥치면 방죽을 무너뜨리고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줄 알면서. 바람에 꺾인 보릿대 마냥 고개를 숙인 삼형제와 어머니, 애초에 피한방울도 섞인 적 없는 이웃들이 아버지 주위로 동그랗게 모여 앉아 있었다. 불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뭉쳐진 빛의 동그란 손길처럼. 마지막 안간힘을 쓰는 아버지의 유언에서 아직도 제초제 냄새가 물씬 풍겨나왔다. 아버지! 어쩌면 마지막으로 부를지도 모를 호칭, 이제는 닳고 닳아서 끊어질 위기에 놓인 지상의 끈으로 가랑잎 같은 자식들을 불러 모았다. 이승의 가는 숨소리가 근 이틀 밤낮을 버텨오던 터라 식구들중 누군가는 '저 양반 참 질기기도 하구나' 무례한 생각을 한번쯤 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틀전 아침까지만 해도 정말 아무 일도 없던 평범한 일상이었다. 오월 보리 수확 철이라 아버지와 어머니는 거의 매일 보리에만 매달렸다. 거둔 곡식을 도로변에 말리고 다시 마대에 담아 집까지 가져오는 일을 거의 일주일째 되풀이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남의 집 품앗이를 하러 날이 새기도 전에 집을 나섰다. 아버지는 읍내 농협에 다녀오는 일과 집안일을 맡기로 하자며, 전날 밤 어머니와 단단히 입다짐하는 걸 난 잠결에 들을 수 있었다.

"아니 먼 양반이 해가 진지가 언젠디, 아즉까지 보리를 안 담어놨다냐?"

읍내 중학교에서 돌아와 이제 막 대문에 들어서던 나는 어머니의 타박부터 들어야했다. 아버지는 그때야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 꺼억! 꺼억! 길게 신트림을 해댔다. 거동하는 아버지를 부축하느라 옆에 있던 나는 집게처럼 코를 쥐었다. 탁주냄새가 물씬 풍겨오는 걸로 봐서 분명 농협 일로 한바탕 싸우신 게다. 어머니도 눈치를 챘는지, 보리꺼럭처럼 쿡쿡 아버지 심사를 건드리며 닦달을 했다.

"곡석 널어놓고 술 처마시고 자빠져 자는 사람이 시상 천지에 어디 있당가?"

아버지는 이맛살을 찌푸리시며 더 이상 지청구를 듣기 싫다는 듯 곧장 도로변으로 나가셨다. 해거름이 한참 지난 때라 어느새 보리가 축축하게 젖은 이슬받이였다.

"아침에 분맹히 시본 것이 스무 가마니였는디, 우째 다섯 가마니가 모자란다냐이?"

보리를 마대포대에 다 담고 보니 아무리 세어도 열 다섯 포대밖에 안되는 것이 심상치 않았다. 어머니는 그 길로 건너편 도로에 보리를 말렸던 또바구네를 찾아갔지만,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한 양 힘없이 걸어오셨다. "시상 천지 남으 곡석을 훌라간 놈이 어디 있당가? 봄 내 여름내 빼빠지게 농사 지어논께 도둑놈 존일만 시캐부렀네."

어머니의 시상천지로부터 시작하는 신세타령이 시작되었다. 보리를 담아 집에까지 온 뒤에도 어머니의 시상천지론은 끊이질 않았다.

"시상천지 내 자슥같은 곡석, 아이고! 훌러간지도 모르고 잠이나 처자고 자빠졌으니 그 놈의 술이 웬수여."

그러지 않아도 보리를 도둑맞아 심정이 착잡할 텐데, 아버지는 마루 끝에 앉아 담배만 연거푸 태셨다. 그런 아버지를 닦달하는 어머니, 동네에서도 남편에게 강짜 놓기로 유명한 어머니. 그날 따라 어머니가 아버지를 두고하는 울골질은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았다. 술은 욕도 서슴지 않았으니까. 서로 자주 말다툼을 하셨지만 그날만큼 아버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도둑맞은 다섯 포대의 보리로 완전한 아버지의 참패였다. 매사에 어찌나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지, 뒤끝이 없는 분이었다. 그러던 아버지가 어머니 말처럼 자식 같은 곡식을 도둑맞았으니 오죽하셨을까?

"시상 천지 망할 놈의 집안에 시집와서 내가 먼 고생이당가? 아 저승사자는 먼 연빙하고 있으까."

어머니의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슨 꿍꿍이속이 있었던지 양철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간 아버지는 한참이 지나도록 나오질 않았다. 그때 어머니는 부엌에서 재잘재잘 목이 쉬도록 생야단을 치고 있었다. 갑자기 어두운 창고 안에서 병 하나가 마당을 향해 휙 날아왔다. 병은 다행히 깨지지 않고 마당에 떨어지면서 데굴데굴 굴러갔다. 굴러가면서 제 안에 남아있던 액체를 울컥울컥 토해냈다. 묽은 액체는 여기저기 흩뿌려지면서 하얗게 변해갔다. 분명 냄새도 역한 게 제초제가 틀림없었다. 그 순간 난 아버지의 죽음을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자 인자, 자네 속이 시언한가?" 입에 게거품처럼 하얗게 농약이 묻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했던 그날 최후의 변론이었다.

아버지는 굳어가는 팔을 간신히 들어올려 무언가 가리켰다. 그것도 잠시뿐, 한쪽의 무게를 잃은 양팔저울처럼 툭! 팔을 떨구며, 기어드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그 말이 마지막 유언이 될 줄은 모르고 있었지만, 형제들은 있는 힘껏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저그……."

아버지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때 아버지의 둘째 아들인, 종석이 형이 벌떡 일어나 아버지의 의도를 알아챘다는 듯 괘종시계가 있는 곳까지 가서는

"아부지! 이거 말하는 것이요?"

설마 세상과 인연을 끊는 마당에 저런 하찮은 시계에 대해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을까? 싶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의외였다. 고개를 끄덕이시며 희미한 그러나 아주 정확한 유언은 좌중에 둘러앉은 식구들이 의아해할 만큼 이상한 부탁이었다.

"내일이먼…한달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호흡까지 고르며 자신의 생명을 재촉하는 걸까? 형제들은 더욱 바투 앉아 아버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자식들에게 남길 만한 유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마치 깊은 샘에 돌을 던지고 메아리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식구들 모두 아버지의 가쁜 숨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혹시나 마지막 호흡에 묻혀 아버지의 말을 건져내지 못할까 싶었던지 다들 진지한 표정이었다.

"시계 밥 조깐……주그라."

순간 식구들의 표정에 흐르는 실망감이란. 누군가 얼굴에 웃음기까지 희미하게 머금은 듯 싶었다. 숨겨둔 땅문서에 대한 이야기도, 돈 다발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었다. 단지 내일이면 한 달이 될 터이니, 괘종시계 태엽을 감으라는 부탁이었다. 생전에 아버지 당신의 일이었으므로 그 일을 가업으로 물려주신 것이다. 그게 전부였다.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지켜왔던 일상의 사소한 부분까지 걱정하시다가 아버지는 이 세상의 인연을 미련 없이 버리셨다. 형제들 모두 생전의 아버지를 두고 완벽주의자라고 했다. 그런 아버지의 성격을 만형인 종일이 형이 붕어빵 찍어내듯 닮았다고들 했다.

벌써 육년 전의 일이 되었다. 중학교 일 학년이었던 난 죽음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다. 아니 죽음이란 이해하기도 전에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도무지 이해할만한 여유를 주지 않는다.

아버지 죽은지 두달이 지나도록 시계 밥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언을 기억하지 못한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지 못한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시계는 두달동안이나 저녁시간에 시침을 맞추고 저물어 있었다. 너무 높이 매달아 언제나 목침을 놓고 올라가야 손이 닿았던 괘종시계. 거기 계기판 아래로 한 뼘쯤에 배꼽처럼 생긴 곳이 있었다. 아버지는 큰 키로 성큼 시계 앞에 다가가 유리문을 열고 T짜 모양의 열쇠를 꺼내 그 배꼽에 끼워 넣고는 빨래판 긁는 소리처럼 드르륵 드르륵 태엽을 감던 풍경이 손에 잡힐 듯 선했다. 어머니는 아버지 유언에도 불구하고 두 달이 지난 뒤에 그 괘종시계를 읍내 전파사에 팔아버렸다. 대신 건전지 시계가 괘종시계 있던 자리를 차지했다. 작은 형은 한사코 반대했지만 큰형은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좋은 시계가 얼마나 많은데 하며 저따위 시계는 팔아버리라고 했다. 네모 반듯한 건전지 시계는 밤에도 야광 숫자들을 켜놓고 어둠 속에서 째각째각 우리의 무언가를 갉아먹는 소리를 냈다. 한밤중에도 무겁고 둔탁한 소리로 선잠을 깨우는 법이 없었다. 아무도 시계 밥을 줄 필요가 없었기에 아버지는 그렇게 천천히 잊혀져갔다. 거기 한 달에 한번씩 번거롭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의 태엽을 돌리지 않아도 되는 건전지 시계와 함께.

일어나 보니 아침 아홉시다. 어젯밤 내내 피어놓은 향연기 때문인지 아직도 옷에서 짙은 향내가 나는 듯 하다. 밤새 무슨 꿈자리가 그리 사나웠던지 얼굴 없는 사람들을 본 듯도 하다. 그들은 모두 지워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에게 할말이 있는 듯 싶었으나, 그들의 과장된 몸짓 때문에 오히려 무서워졌다. 그 사람들 중에는 아버지도 있었던 듯 싶다. 아버지가 장손인 탓일까? 집안에는 어머니가 떠맡아야할 제사가 셀 수 없이 많았다. 몇 대조 조상에서부터 자식 없는 원귀들의 제사까지 이번 오월만 해도 할아버지, 어제 치렀던 아버지 제사까지 벌써 다섯 번째 그 지겨운 제사들을 이 작은 집이 견디어냈다. 가난한 집에 제사 돌아오듯 한다는 말이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김씨 집안에 시집와서 등골 휘게 일하고 시상천지 묵을 것 하나 없는 집구석에 먼 놈의 지사는 그리도 쎄고 쎘는지, 아조 징하다. 징해."

제삿날만 되면 푸념을 늘어놓는 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리고도 남는다. 그런데 이번 아버지 제사는 아주 썰렁하게 보냈으니 어머니 마음은 또 어땠을까? 찾아온 아버지도 홧김에 제상에서 목각술잔을 여러 번 기울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아침이 되어도 해장국 한상 올릴 며느리도 없는데 말이다. 큰형이 불참한 이번 제사는 분명 작은 형 일 때문이리라. 작년 아버지 제사때 작은 형 일로 어머니와 싸웠던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일을 빌미로 제 아비 제사에 아예 얼굴도 내밀지 않으니 어머니는 얼마나 괘씸해할까? 아니 차라리 더 나은 일일지도 모른다. 그간 큰형이 제삿날마다 해온 작태로 본다면 말이다. 간밤의 이런 저런 어머니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혼란스럽기만 하다.

왜 보명사에 오르는 걸까? 새벽부터 하얀 한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제사 다음날 첫 출타지가 절이라니. 초파일에도 절이라고는 한번도 가지 않던 분이, 아무래도 어머니한테는 이해 못할 구석이 있다. 오늘 중으로 서울에 올라가야 하는데 어쨌든 막차 떠나기 전까지 후닥닥 일을 헤치고 떠나자 맘먹으며 난 보명사라는 절로 나설 채비를 차렸다. 12년 전, 초등학교 1학년때에도 보명사는 나와 딱 한번의 인연이 있었다.

"어매, 보명사야? 그라고 먼데까장 소풍을 가야?"

"아따 엄니! 꼬옥 부모님하고 오라고 했단 말이여."

"어짜 것이냐? 느그 큰성이 결혼하는 날인디, 우째 결혼도 공일에다가 맞추제 이라고 잡어놨다냐?"

"그래도 오늘이 궁합에는 좋은 날이란 말시."

초등학교 첫 봄소풍을 가는 날, 부모님과 함께 와야 한다는 가정통신문이 있었다. 고삼이었던 작은 형이 내려왔으나, 결혼식에만 참가하고 다시 학교로 가야 하는 처지였다. 그런 집안 식구들을 잡고 나는 생떼를 썼다. 보명사까지 가는 길은 멀었다. 소롯한 작은 산길을 따라 100명도 안되는 전교생이 한 줄로 길게 늘어서서 가는 모양은 흡사 지렁이를 들고 가는 개미들의 보시행렬이었다.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한복 차림의 어머니와 손잡고 가는 모습을 울적한 마음으로 쳐다보며 걸었다. 그러다가 단단히 화가 난 나는 먼저 내달아 가다가 그만 발목을 삐고 말았다. 절룩절룩 걷다가 대열에서 한참 뒤쳐진 나를 작은 형은 무척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내게 등을 내밀었다. 말없이 등에 업혔고 형의 등이 축축히 젖어서 내심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어머니가 오지 못한 보상이라고 생각했다. 가도 가도 절은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길을 잘못 들었는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수록 형의 걸음은 느려지기만 했다. 울창한 대숲에 이르렀을 때, 소풍의 마지막 행렬은 이미 보이지 않은지 오래였고, 거의 점심때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어짠다냐? 성도 보명사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읍서논께, 혹시 질을 잃어분 것은 아니것지?"

형은 문득 생각난 듯 손목에 차고 있던 손목시계의 태엽을 호도알 비비듯 감았다. 절은 보이지 않았다. 저녁 어스름이 되어서야 산을 내려가기로 결정했다. 대숲을 헤치고 모퉁이를 돌아갈 때 저편에서 몇 개의 불빛이 댓잎에 반짝였다. 어두워져서 사방이 고요한데 은은한 풍경소리도 들리는 듯 싶었다. 그렇게 안보이더니 대숲 가까이에 있었다니. 절은 작고 아담했지만 기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완전히 어둠이 깔리자 우리처럼 길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타종을 시작했다. 무겁고 둔탁한 종소리는 마치 잠든 새벽에 언뜻 듣게 되는 괘종시계 소리를 쏙 빼 닮았다. 아직 내려가지 않고 있던 사진사 아저씨에게 즉석사진을 한 장 찍었다. 이제는 세상에 없는 사람과의 인연을 담은 채 그 사진은 즉석사진인 탓에 누렇게 변색이 되었다. 저녁 노을이 지는 법당의 처마와 석등을 배경으로 두명의 형제가 지친 표정을 하고 서있는 모습.

어젯밤 사진 속의 여자는 무척 우울해 보였다. 여행지에서 찍은 것인지 차양 깊은 등산모를 쓰고 있었다. 아직 앳띠어 보이는 얼굴과 진한 눈썹은 죽은 형을 닮았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얼굴 선을 이루는 실루엣의 부드러운 선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어머니가 말한 그 참하다는 범주에 들기에 충분했다. 어머니는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가슴에 꼭 품다가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여자 사진을 어쩌겠다는 건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미 죽은 여자의 사진을 어디에 쓰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자꾸만 사진 속의 얼굴이 떠오르는 건 무슨 연유일까? "느그 성도 살어있었으면 이런 처자랑 결혼해서 애도 낳고 잘 사것인디." 어머니는 그예 눈물을 찍어내고 말았다.

보명사로 가는 버스를 탔다. 도장골까지 가려면 족히 30분은 가야하리라. 버스는 포장도로를 벗어나 산길에 접어들면서 자갈길이라 그런지 심하게 덜컹거린다. 위험하게 모퉁이를 돌때마다 휙휙 지나치는 풍경들은 아픈 기억처럼 푸르다.

새벽녘 남몰래 숨죽여 울던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바닥에서 앙금처럼 떠오른다. 그러지 않아도 큰형이 불참한 아버지 제사라 쓸쓸한 터인데 어머니는 예전처럼 신세타령도 않고 줄곧 마루에 앉아 먼산 바라기만 했다. 아버지 죽을 때도 끄떡없으시던 분이 작은 형이 죽고 나서 많이 변했다. 예전 같으면 조그만 일에도 시상천지로 시작하는 신세타령을 했을 터인데 이젠 아무리 큰 일이라도 침묵으로 일관하셨다. 그 침묵이라는 것도 다음 날 새벽이면 장독대에 정한수를 바꾸어 떠놓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걸로 하소연을 하는 모양이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첫 제사에서 형제들의 싸움도 어머니의 행동 변화에 일조를 했을 것이다.

작은아버지 내외분과 형제들이 다시 한집에 모여 조촐하게 아버지 제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큰형은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다. 큰형이 오지 않는 동안 작은아버지의 타박은 못난 자식들의 가슴을 뜨끔하게 했다.

"아니 제사를 지낼 제주가 아즉까지 오질 않는단 말여. 참말로 자슥된 도리로 요것이 먼 요사스런 일이다냐. 일찍이 아부지 지사를 할라치면 낮부터 내려와서 아부지 묘에 벌초도 하고 그라는 것인디. 어째 지그 아부지 첫지사를 이라고 소흘히 대한다냐."

자식들의 불찰에 일침을 가하며 작은 아버지는 먹물에 붓을 똑똑 찍어서 지방을 쓰셨다. 큰형인 제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방 마지막에 효자 김종일이라고 썼다. 큰형은 뒤늦게 도착해서 별로 미안한 기색도 없이 제상이 차려진 방과 부엌을 분주히 오가며 병에 들어있는 물을 뿌렸다. 이른바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수라는 것이었다. 작은 어머니가 큰 형님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는 짐짓 지나가는 말투로 물었다. "마귀 쫓아내야지요." 서울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큰형의 말투는 정중했다. 하지만 집안을 발칵 뒤집는 전초전을 예고하고 있었다. 얼굴에 미소까지 지으며 말하는 큰형을 어쩌지 못하고 작은어머니는 형님의 걸림돌에서 비켜 서야했다. 다음은 어머니 차례였지만 어머니도 나물이며 고기 등속의 제물을 준비하는데 분주할 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였다. 작은아버지는 제주가 도착을 해서 기쁜 양 큰형수를 시켜 조기를 가져오게 했다. 그리곤 조깃살을 뜯으며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술잔을 기울이셨다. 큰형의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집안 곳곳에 준비해온 십자가를 걸더니만 무슨 주술처럼 기도문을 외고 이방 저방을 돌아다녔다. 대학 입시에 떨어진 종석이형은 서른이 갓 넘은 큰 형님과 열 살이나 되는 터울 때문인지 뭐라 말을 못하다가 급기야 입을 열었다. "조깐 삼갔으면 좋겄구마." 이제 막 방을 나서던 큰형이 작은 형의 말을 듣고는 잠깐 발걸음을 멈추는가 싶었지만 그냥 부엌으로 나가고 말았다.

"어머니 더 준비할 것 없어요. 지금 준비한 것이면 충분하겠는데요."

"짓상에는 반상 구별은 없어도 예의는 있는 법인디."

어머니의 대꾸는 좀 완고한 부분이 있었다. 아버지 생전에 제사만큼은 동서고금의 예법에 따라야 한다는 다짐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그 동안 제사를 지내온 내력 때문인지 좀처럼 물러설 것 같지 않았다. 아니 그래야 옳았다. 하지만 어머니가 끝내는 말꼬리는 아무래도 큰형에게 지고 들어가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앞으로 아버지 제사는 제가 지낼텐데 어머니가 이래저래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겠네요."

큰형은 그렇게 쐐기를 박으며 자신이 큰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상기시키는 듯 했다. 어머니는 아무말도 않고 마저 깎던 밤톨의 껍질을 벗겨내고 있었다.

"나도 아부지 아들이요."

종석이형이 본격적으로 큰형의 독창적인 제사에 제동을 걸었다.

"그럼 니가 평생동안 아버지 제사를 지낼 테냐?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난 형님이 어뜨케 아부지 지사를 지내든지 상관없소만 집안 식구들이 다 싫다는 짓을 왜 사서할라고 그라요. 아부지 죽은지 일년도 안된는디, 죽은 아부지가 형님 하는 짓보고 아주 좋아하겄소."

"아무리 잘나도, 형만한 동생 없는 법이라고 했다. 그래 아버지 돌아가신지 일년도 안되서 어떻다는 거냐?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다는 거냐.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다 잊었어?"

어머니 손에서 밤톨이 툭! 떨어져 부엌 바닥을 데굴데굴 굴러갔다. 순간 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빠졌는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버리고 말았다. 그런 어머니를 보고 큰 싸움이 될 것 같았던지 작은 형은 거기서 물러나 어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들어갔다. 큰 형님의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집집마다 제사 풍경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제배를 들여야 마땅할테고, 목각 술잔에 술을 따라 올린 뒤에는 축문을 읽어야하는 것이 어느 모로 보나 평범한 제사의식이건만 형님이 주도하는 의식은 아주 생소한 것이었다. 호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작은 기도문 책을 펼치더니 카톨릭식 제사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물론 카톨릭 신자인 형수님도 형님과 척척 발이 맞아 이미 총연습이라도 한 듯 처음보는 제례를 매끄럽게 끌어나갔다. 작은 형은 이런 짓이 무슨 놈의 제사냐고 자리를 박차고 나섰다. 그런 작은 형을 어머니가 간신히 붙잡아 두었지만 작은아버지도 끌끌 혀를 차며 이런 꼴을 보려고 이날 이때 산 것이 아니라며 부부 내외가 새벽녘에 집을 나서고 말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었다. 아버지 죽음의 전적인 책임자로써 무슨 할말이 있었겠는가? 그저 큰형이 하는 데로 쳐다보는 수밖에. 큰형의 제사시간은 아주 길었다. 수많은 기도문들은 중학교 2학년인 내 인내심을 시험하기엔 너무 벅찼다. 몇 번 무릎의 자세를 바꾸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때였을까? 더 이상 그 꼴을 두고 볼 수 없었던지 작은 형은 방문이 부서져라 열더니만 바닥이 울리도록 제상 앞으로 걸어왔다. 큰형은 별일이 있을까 싶어 쳐다보고만 있었다. 난 속으로 연신 아버지를 불렀다. 이미 세상과의 인연이 끊어진 당신의 호칭을. 작은 형의 손이 제상 귀퉁이를 쥐는가 동시에 네발 달린 동물처럼 제상은 뒤집어지고 말았다. 그나마 형님의 만류로 차린 것 없이 초라한 제상었다. 상소리는 좀처럼 않던 큰형의 입에서 욕이 튀어나왔다. 일어나며 바닥에 던진 기도문 책이 식혜를 담아둔 양푼으로 떨어졌고, 작은 형은 연거푸 두번씩이나 뺨을 맞았다. 하지만 작은 형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앞으로 상관 안할 것인디 이번만은 성님 혼자 지내는 지사가."

작은 형의 말은 거기서 끊어졌다. 큰형이 옆에 세워져 있

# 외대 35회 문학상

## 소설부문 당선자 – 김종보 (서학·서반아어 4)



던 촛대를 들어 작은 형의 머리를 후려쳤기 때문이다. 그걸 막던 작은 형의 손목에서 시계가 풀어져 내 앞에 떨어졌다. 시계를 주워들고 난 너무 무서워 방 귀퉁이로 뒷걸음질쳐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시야에 계속 안타깝게 잡히는 건 싸우는 두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처참하게 엎어져버린 아버지의 제상이었다. 나물과 이리 저리 통통 굴러다니는 과일들, 동그란 목각의 그릇들. 어머니는 아무말도 없이 제상을 치우며 혼잣말을 하는 것 같았다. '다 내 탓이여. 내 탓이란 말시.' 어머니 말은 최면처럼 끊이질 않았다. 난 작은 형 시계의 태엽을 계속 감고 또 감았다. 아무리 감아도 배고플 것 같아 형들의 싸움이 끝나 제상이 다 치워질 때까지 미친 듯이 태엽을 감고 있었다. 새벽 2시가 훨씬 지난 시각이었지만 집안은 환히 불을 밝히고 모두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아무도 먼저 화해의 말을 꺼내려 하지 않았다. 무엇이 아버지의 제사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생각해보았지만 자꾸만 내 머릿속에선 아버지의 지키지 못한 유언만 맴돌 뿐이었다. 어쩌면 아버지의 제삿날이 해마다 아버지가 말한 그 한 달일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일년에 한번씩은 앞으로도 계속 형제들을 불러모을 것이다. 마치 12시가 되면 시침과 분침과 초침의 삼형제를 다 불러모으는 시계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날 새벽의 고요를 타고 끈덕지게 달라붙어 째각이는 것은 괘종시계가 아니라 건전지 시계였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정오가 다 되어가고 있다. 버스는 보명사로 올라가는 입구에 나를 내려놓고 약속시간에 늦은 사람처럼 산 모퉁이를 급하게 돌아간다. 초등학교 1학년 봄소풍의 기억을 돌이키면 분명 한사람도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오솔길이었는데, 이젠 이차선 도로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있다. 숲을 토막내고 넓게 뻗은 길은 산기슭을 허리띠마냥 하얗게 두르고 있다. 산자락에서도 훤히 보일 정도니 예전처럼 길을 잃은 염려는 없을 듯하다. 작은 형과 길을 잃고 헤매 다니던 기억이 아직도 해질녘처럼 어슴푸레하다. 만약 그때 절을 찾지 못하고 하산했다면 난 지금도 믿고 있을지 모른다. 보명사라는 절은 세상에 없다고 말이다. 어쩌면 정말 보명사라는 절은 없는지도 몰랐다. 그 절을 내 기억에서 떠올린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 적어도 작은 형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때부터 보명사는 내 안에 아름다운 사찰의 기둥들을 세우고 아름다운 용마루와 처마를 갖게 되었다.

보명사로 올라가는 길가에는 늦봄 꽃들이 한창이다. 그들은 대부분 수의를 입은 듯 하얀 꽃잎들을 가지고 있다. 영혼들은 얼마나 깨끗해야 저토록 하얀 옷을 입게 되는 걸까? 보명사라는 절이 가까워 오는지 간혹 승용차를 몰고 올라가는 중들의 모습도 보인다. 비온 뒤라서 그런지 그들이 입은 잿빛 승복이 더 우중충해 보인다. 폐속까지 파고드는 선선함이 가지를 다 쳐낸 나무가 앙상하게 겨울바람을 맞고 있는 기분이랄까? 그렇게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나면 도대체 삶에 무엇이 남을까?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칡넝쿨 잎사귀들이 파지처럼 버려져 쉽게 밟힌다. 하얀 콘크리트길을 건너겠다는 듯 넝쿨들은 함부로 길을 점거하고 나서고 있다. 칡넝쿨 잎사귀들은 다 건너기도 전에 말라 비틀어지거나 차 바퀴자국을 껴안고 끊어져 있다. 세상에는 이토록 건널 수 없는 다리가 있는 모양이다. 피안으로 건너가 버린 형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었을까? 세상 어딘가 내가 알지 못하는 절에 파도 같은 단청무늬를 남겨놓고 떠나버린 형. 단청무늬처럼 푸른색과 붉은 문양이 교차하는 기억들이 일렁이기 시작한다. 난 무심코 손목에 채워져 있는 시계의 태엽을 감았다.

"성! 이거 스위스 젠가?"

내가 중학교 3학년 되던 해, 형은 집을 나갔다. 미대를 삼수해서 합격하고도 집안의 반대로 가지 못하고 군대로 직행을 했던 형은 아버지 돌아가시던 해에 제대를 했다. 그래도 미대의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집안 일을 도우며 전전하다가 27살의 늦은 나이에 출가가 아닌 가출을 한 것이다. 형이 가출한 이유는 아주 많았다. 집을 나간 날이 아버지 제사 전날이라는 점을 미루어보면 아버지 첫 제사에서 큰형과 싸운 사건도 맘에 자꾸만 밟히는 일이었을 것이다. 또 한가지는 집에 있으면서도 계속 이젤을 버리지 못했고, 어떻게 해서든 대학갈 돈을 마련해야겠다는 궁리뿐이었으니까. 집에서 지낸 날들도 그다지 마음 편한 시간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집에 있는 동안 난 형이 손목에 차고 있던 태엽시계를 무척 갖고 싶어했다. 그런데도 형은 한사코 줄 수 없다며 꽁무니를 뺐다.

"이거 아부지가 나 고등학교 들어갈 때 사준 거라서 안되것는디. 어짜쓰까."

"어째 우리 집같이 잘사는 집이 중학교 3학년이나 됐는디 시계 하나 안사주까."

"우리집이 잘살기는 머가 잘 산다냐? 자식 새끼 대학간다고 해도 등록금도 안주는 집인디."

"그것은 성이 미대만 갈락 해싼께 그라제."

"모르는 소리 말어라이. 그것이 다 느그 큰성땀시 그래야. 큰성은 상고밖에 안나왔는디, 작은 놈이 기냥 대학도 아니고 얼토당토 않는 미대를 갈라니께 얼마나 얼척이 없것냐. 느그 큰성도 대학 가고 자펐는디 그때는 집안 형편이 안됐는 갑드라. 그래도 그라제. 시상에 동상 앞질막는 성이 어디 있다냐. 큰성이 아부지 살아실 적에 옆에서 바람을 넣었는 갑드라. 기냥 일반 대학 보내라고 말여. 그래도 난 아부지 원망같은 건 안해야. 느그 큰성이 밉제."

내가 듣던지 말던지 하소연하는 작은 형의 모습은 그토록 쓸쓸해 보일 수가 없었다. 한번 그림 그린다고 결정한 뒤, 아버지의 반대에도 미술반을 절대 나오지 않았다.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림실력은 전국대회에서 수상한 경력만으로도 아버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터인데 아버지는 한사코 '광대나 하는 짓거리'라는 말로 일축해버렸다. 그런데 그 배후에 큰형이 버티고 있을 줄이야. 그때까지 형은 소일거리로 그림도 그리고 집일도 도우며 근 3년을 버텨오고 있던 터였다. 이골이 날만한 때도 되었다 싶었는데 아버지 제사 전날 작은 형은 그예 집을 나가고 말았다. 큰형은 당신의 완벽주의적 성격만큼이나 어김없이 아버지 제사를 지내러 내려온다고 전화 연락이 왔다. 어머니는 제삿날만 되면 허수아비처럼 더더욱 말이 없어졌다. 큰형이 내려온대도 그다지 기쁜 내색도 없었고, 작은 형이 이번 제사만큼은 어머니 뜻대로 지내시는 게 어떠냐고 여쭈어도 묵묵부답이었다. 어머니는 심한 자책감에 시달리는 모양이었다. 그런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작은 형이 무척 애를 썼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보다 못한 작은 형이 빽 소리를 친 적도 있었다.

"아니 엄니가 아부지를 죽였소. 아부지가 원래 그런 양반 아니요. 매사에 똑 부러지든 양반이 보리를 다섯가마니나 도둑 맞었는디, 어디 엄니가 계속 삽시다 한다고 해서 살 양반으로 보이요. 엄니! 지발 이라지 말고 기운을 조깐 내란 말이요. 인자 이라다가 엄니까지 쓰러지면 저 어린 종호는 어뜩한다요."

그러나 어머니는 형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작은 형은 그런 어머니를 보고 이젠 정말 이 집안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며 기거하던 아래채에서 짐을 꾸렸고, 그런 형을 어머니는 말리지도 않았다. 형은 그렇게 떠났다.

"나는 앞으로 나이를 안 묵을 것인께 이 시계는 종호 니가 가져라."

"그것이 먼 말이당가? 우애 성이 나이를 안묵어?"

난 불길한 생각이 들어 형의 팔을 붙잡고 뜨악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러자 형은 씨익 웃으며 나에게 시계를 냅다 쥐어주며 "인자부터는 나이 같은 거 생각 안하고 내 일을 하겄다 그 말이여. 나중에 성이 편지 하것인께 걱정하지 말드라고 엄니한테 말씀드리고. 성 없어도 엄니랑 집일 잘 도와드리고. 알았지야." 그게 형과 마지막일 줄 알았다면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놓아주지 않았을 것이다. 형은 나에게 태엽 감는 손목시계 하나 남겨놓고 그렇게 훠이 훠이 철새처럼 떠나버렸다.

아버지가 죽은지 2년째 되던 해 제삿날 저녁, 큰형은 벼슬이라도 한 양 집으로 내려왔고 여전히 큰형의 카톨릭식 제사방식은 고수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큰형도 나를 위해 시계를 사왔다. 최근에 유행하는 전자시계라며 바늘도 태엽도 없이 수은 건전지로 운행되는 시계를 말이다. 아무리 귀에도 갖다대도 째각이는 초침소리도 없이 깜박깜박 명멸하는 콜론의 움직임만 있는, 언뜻 보면 죽은 것처럼 보이는 전자시계. 난 작은 형이 떠나며 준 태엽시계를 아직 차고 있지 않았으므로 내 손목의 첫순결을 전자시계에게 줄 수밖에 없었다. 한사코 큰형이 차보라고 권해서 차보긴 했지만 왠지 때깔이 나질 않았다. 좀 묵직하면서도 시간의 중량이 느껴지는 작은 형의 시계에 비하면 전자시계는 너무 날렵하고 시간이 지나간다는 느낌도 없었다. 아마 그 시계로 나를 매수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을까? 아버지를 매수해 작은 형이 미대에 가는 것을 막았던 것처럼 말이다. 더 이상 집나간 작은 형은 생각하지 말자 하는 다짐은 아니었을까? 그걸 아는 이상 난 도저히 전자시계를 차고 다닐 수가 없었다. 큰형이 올라간 뒤에 딱 한번 학교에 차고 갔다가 친구들에게 굉장한 부러움을 샀지만, 난 집으로 오는 다리를 건너며 강물에 휙 던져버렸다. 그리곤 시계 끈이 하도 느슨해서 언제 손목에서 빠져 잃어버렸는지 모른다고 어머니에게 둘러댔다. 어머니는 내가 그런 말을 해도 별로 상관하지 않는 눈치였다. 그래 다음날부터 작은 형의 태엽시계를 차고 다녔다. 태엽시계는 처음엔 몰랐지만, 자꾸만 밥주는 걸 잊어버린 때가 많았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가지 않은 날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하루에 한번씩 태엽을 감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음 날 문득 시계를 들여다보며 멈춰있는 초침을 보기 전까지는 시계는 언제나 내 손목 위에서 죽어있었다. 난 태엽시계를 볼 때마다 어머니가 팔아버린 괘종시계를 떠올렸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도. 내일이면 한 달이니, 시계 밥을 주라던 그 부탁을 말이다. 아무도 지키지 못했던 그 약속. 어쩌면 나도 집나간 작은 형과 그런 약속을 했는지 모른다. 나에게 자신의 시계를 맡긴 이상, 난 그 시계의 하루하루를 책임지고 밥주는 시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인지도.

그 후 작은 형에게서 몇 통의 편지가 왔다. 대학에 가기 위해 궂은 일도 마다 않고 그 험하다는 막노동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목수 대모도 일을 배우고 있다는 첫 편지. 그후 몇 달 뒤에 해남 어딘가로 일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아주 커다란 사찰을 짓게 되었다는 이야기. 자기도 이젠 어엿한 목수가 되었으며 돈도 꽤 모였으니까 금방 돌아오겠다는 이야기. 그렇게 계속 내 앞으로 형은 편지를 보냈고, 마지막 형과의 연락은 편지가 아닌 전보였다. 난 전보의 글귀 중에서 '김 종 석 사 망'이라는 다섯 자만 비석의 글귀처럼 맘에 새겼을 뿐, 형이 죽은 곳이 어디였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모든 일 처리는 큰형이 했기 때문이다. 사찰이 아주 큰 규모여서 몇 채의 절을 지었던 모양이었다. 작은 형은 목수일을 했고 건물이 거의 다 완성될 즈음 절로 들어온 단청 그리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가 자기도 끼워달라고 했었단다. 그 반가운 붓작업을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단청작업이라는 것이 높은 처마까지 축대 같은 단을 쌓고 하는 일이라 여간 힘들고 위험한 작업이 아닐 수 없었다. 위험수당에 돈도 벌리고 그일도 그림 그리는 축에 속하는 거라 일석이조라 생각했던 모양이다. 큰형은 모든 걸 사고였다고 일축비렸다. 그 높은 처마에서 대리석을 깐 바닥까지 곤두박질쳤으니 어떻게 살 수 있었겠냐고. 다 지놈이 자초한 일이라고 말이다. 그때부터 나에겐 이상한 버릇이 생겼다. 누구를 기다리며 초조해질 때 무료하게 할 일 없을 때면 무의식적으로 손목시계의 태엽을 감는 버릇이었다.

벌써 40분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보명사가 보이지 않는다. 또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내심 불안해진다. 그때처럼 말이다. 산모퉁이를 얼마나 돌았는지 모르겠다. 산세가 험한 곳이라 길은 이차선에서 차 하나 겨우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만 포장이 되어 있다. 아른하게 봄바람이 귓불을 간질이고 불었다. 타닥! 타닥! 이건 분명 대나무들끼리 부딪치는 소리가 틀림없다. 제대로 오긴 온 모양이다. 좀 더 걷고 보니 예상했던 대로 울창한 대숲이 보인다. 대숲은 그때보다 더 규모가 커진 듯 작은 형과 점심을 먹던 자리가 어디쯤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다. 대숲을 끼고 길이 두갈래가 있다는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 올라갈 땐 가지처럼 갈라지던 길들도 내려올 때면 대부분 다시 갈라졌던 줄기에 닿기 마련이다. 오늘 내가 가야할 길은 형과 갔던 방향이 아니다. 그쪽 길은 이미 과거에 올라갔던 길이니 오늘은 다른 쪽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형이 선택한 피안의 길이 아마 저쪽 어디쯤으로 올라가면 있지 않을까? 괜한 생각이 든다. 형은 이젠 정말 나이먹지 못하는 저승 사람이다. 8년만 있으면 나도 형의 나이가 될 테지만. 어느새 오른손이 태엽을 감고 있다. 아까 시계 밥을 줬는데도 말이다. 작은 형이 빠진 자리는 마치 괘종시계가 사라진 자리처럼 잊혀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머니가 1년전 아버지 제삿날 또 한바탕 큰형님과 싸우기 전까지는 말이다.

"아니 세상에 동생 제사 지내는 형이 어디 있단 말이요.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요."

"나가 용한 점쟁이한티 알어본께 그거시 한이 많해서 아즉도 원귀로 떠돈닥 안하냐?"

"아니 왠 쓸데 없는 점쟁이 얘기요. 그런 헛소리할 거면 빨리 아버지 지제나 지냅시다."

형은 어머니 말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리를 고쳐 앉아 버렸다. 그래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형을 설득하느라 그간의 사정을 풀어놓았다.

"그라니께 어디 참한 죽은 색시하고 거 머시드라 혼찌리 결혼도 시켜주고, 성제들 중에서 이 사람이 자식이다아 생각해서 한 삼년 지사만 지내주면 저승으로 맘 편하게 간닥한디. 워치 종호는 너무 어리고야, 니가 눈 딱 감고 삼년만 지사 지내주면 안 쓰것냐. 종일아! 엄니가 니한테 먼 부탁한 적 있디야. 이번 한번만 들어주그라."

어머니의 부탁은 너무도 간절했다. 하지만 점쟁이의 말을 듣고 온 어머니의 부탁을 형이 들어줄리 만무했다. 어머니는 아버지 제사가 끝난 뒤에도 이젠 눈물까지 흘리며 어찌나 간절히 매달렸던지 내가 보기에도 안쓰러울 지경이었다.

"어머니! 종석이 그놈 그간 나한테 했던 행동은 괘씸하지만, 그래도 내 동생 아니요. 그래서 성당 다니면서 그놈 혼백이나 위로할까 해서 돈내고 기도도 드리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시요."

"교회에서 멀 안다고 그른 걸 한다냐. 그라고 종석이는 교회라고는 한번도 댕긴 적도 없는디, 절이라면 모르까."

"어허 계속 그런 쓸데없는 소리할 거면 다음 아버지 제사 때부터는 안내려올것이니 그리 아시오."

"엄니 말은 상관없다 이거지야이. 그래. 종일아! 내가 니놈을 내 뱃속에서 낳다미는 느가부지 지사 앞으로는 안내려와도 되야. 그라고 내가 말을 안하고 있었제만, 차라리 니가 안 내려온 것이 죽은 느가부지 속 편하게 할 것인께 니 알아서 해라."

"아니 어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버지는 어머니 때문에 죽었지 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머니는 입이 열이라도 할말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종석이 문제만해도 그래요. 내가 그놈 자식도 아니고 죽은 놈 결혼시킨다고 해서 그놈이 알기나 하겠소. 어디서 점쟁이 말이나 쓸데없이 듣고와서."

"그래 내가 느가부지 죽였다. 더릅게 복도 없는 년이라서 내가 자식도 잡어묵고 남편도 잡어묵은 년이다. 니 엄니가 그런 년이다. 그래서 니가 어찌것다는 것이냐. 이놈아."

방안에서 새벽이 깊도록 계속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큰형이 참 너무한다 생각이 들었지만 점쟁이가 권유한 작은 형의 결혼식이며 제사 이야기는 좀 엉뚱하다 싶어 난 가만 있었다. 가뜩이나 고삼 수험생이었던 난 수업을 빼고 내려온 것이 자꾸만 맘에 걸렸다. 지붕 위로 뜬 하현달이 가물가물 구름에 꺼질 듯한 달빛을 흘리고 있었다. 머지 않아 그믐달로 사라질 달이 말이다. 언제나 아버지 제사 때는 저렇듯 하현달이 떴다. 올해도 어김없이 하현달이 떴지만 큰형은 어머니와의 그 일로 아버지 제사에 오질 않았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제사다운 제사를 지내겠다며 온갖 준비를 다 했다. 작은아버지께서도 몇 년만에 아버지 제사에 오셨고, 제주인 형님을 기다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지방엔 여전히 효자 김종일이라고 쓰여있었다. 어머니는 작은아버지 내외가 간 뒤에 여자 사진을 꺼내 놓고 자꾸만 얼굴 부분을 만지작이며 "참말로 참하다"는 말을 연거푸 내뱉었다. 그리고 내게 그런 말을 했던 것이다.

"종호야! 니가 올해 스물이지야?"

"자식 나이도 모르고 있었오."

"사람이 늙으면 나이를 잊어 부리는 법이여."

"나이는 알아서 머하게라. 머 사주라도 볼라고 그라요?"

"그래도 니가 대학에 턱하니 붙었응께 다행이제. 점쟁이 말이 거 머시냐? 대학생들이 쓰는 모자 말이여?"

"학사모라."

"맞어. 그 학사모를 턱하니 쓴 것이 보인다고 하드마 딱 붙어부냐. 참말로 용한 점쟁이드라."

"언제 점까지 봤소? 참말로 부지런도 하요."

"너는 느그 큰성하고 많이 달러야. 엄니가 점 봤다고 해도 지청구도 안하고."

"엄니는~ 내가 엄니한테 어트케 지청구를 하것소. 소갈머리 없이."

"종호야. 그라면 엄니 부탁 조깐 들어주라."

어머니는 무슨 비밀스런 이야기라도 되는 양 보명사라는 절을 들먹였고, 날이 새면 그 절로 와달라는 것이었다. 목욕까지 하고 오라는 걸 보면 꽤 심상치 않는 일을 꾸미시는 게 틀림없는 모양이었다. 왜 가야 하느냐고 몇번 되풀이해서 물었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가르쳐 주지 않고 웃기만 할뿐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리곤 넌지서 보명사에 오는 길은 아느냐고 풋나기 소녀 같은 웃음으로 떠보았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때 소풍 이야기를 주저리 주저리 늘어놓다가 잠깐 실수처럼 작은 형 이야기를 했지만 개의치 않는 눈치였다. 어쨌든 내 이야기를 끝가지 듣고는 "그라면 더 잘된 일이구마."라는 의미심장한 말까지 남겨놓고 어느새 제사 준비로 고단하신지 돌아누워 버렸다. 아버지 제사는 좀 쓸쓸하긴 했지만 가장 평화로운 추억의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었다. 그동안 없던 아버지 생전의 이야기도 꺼내고 어머니는 오랜만에 활짝 주름살을 펴며 웃었다.

대숲을 지나자 기억 속에만 존재하던 아름다운 절이 나타난다. 절은 새단장을 했는지 단청빛깔도 선명하고 풍경소리도 은은하다. 누가 그린 탱화인지 붓선이 참 곱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절을 한바퀴 휘돌고 대웅전 뜰 앞에 서 있으려니 눈부시게 하얀 한복을 차려입고 어머니가 법당 안에서 나오고 계신다.

"종호 왔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극도로 절제되어 아주 중대한 일을 치루고 있는 것만 같다. 그런데 어머니의 양손에는 두 개의 소형 사진액자가 들려져 있다. 하나는 형의 얼굴이고, 하나는 어젯밤에 보았던 그 죽은 처녀의 얼굴이다. 그때 난 이년전 어머니와 큰형이 싸우던 일이 생각났다. '혼찌리 결혼식도 시켜주고' 그렇다.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이다. 죽은 형의 영혼 결혼식의 날. 난 어머니가 나를 보명사로 부른 이유를 알 것 같다. 내가 형의 제사를 지내는 제주가 되라는 뜻이다. 어쩌면 그런 까닭에 '그라면 더 잘된 일이구마'라고 했던 건 아닐까?

"종호야! 신발 벗고 법당 안으로 들어가 보니라. 인자 앞으로 삼년간은 느그 작은 성이 니 아부지 가 되는 것인께."

법당 처마를 올려다보니 단청빛깔이 유난히 곱다. 그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풍경소리가 귓전을 때린다. 신발을 벗었다. 내 안쪽에서는 아무런 의문도 없이 형이 집을 떠나던 날이 스치고 지나갔다. 나에게 자신의 시계를 맡기며 이젠 더 이상 나이를 먹지 않을 테니 이 시계를 가지라고 했던 날로부터 지금까지 형은 단 한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 그런 형의 제사를 평생도 아니고 3년 정도 지내준데서야. 이미 아버지가 죽은 마당에 그런 형의 아들이 잠시 된 데서야 뭐가 달라지겠는가?

몇 가지의 의식을 치르고 난 형의 아들이 되었다. 그 의식을 치르는 동안 난 죽은 아버지가 남긴 유언처럼 자꾸만 형의 시계에 태엽을 감고 있었다. 정말 잊지 말아야할 그와의 약속이라도 된다는 듯 하루도 빠짐없이 돌려야하는 기억의 태엽을 감고 또 감았다.

---

**소설 당선소감** | 김종보〈서학 · 서반아어 4〉

## 무당벌레의 푸닥거리

지난 늦가을부터 외진 방안으로 칠성 무당벌레가 스멀스멀 기어들어왔다. 동그란 반구의 움츠림을 좀처럼 펼치지 않는, 그 안쪽에 얼마나 꼼꼼한 날개짓을 숨기고 있길래… 하드커버 같은 두꺼운 책장을 넘기면 신들린 문장들이 날개의 무늬처럼 비상을 꿈꾸고 있다. 녀석이 난다하더라도 서툰 비행은 초라할 것이다. 무엇을 위해 그토록 초라한 비행의 시간을 아끼는 지 몰랐기에, 그들을 맘껏 비웃으며, 비닐 봉지를 미련도 없이 묶어 버렸다. 배를 까맣게 뒤집고 죽은 무당벌레들이 지금도 외진 구석을 쓸어낼때면 데굴데굴 굴러나온다. 아직 붉은 바탕에 검은 점을 끌어모으지 못한 어린 것들도 있고, 한번도 사용한 적 없는 녹슨 날개를 움켜쥐고… 이처럼 날개를 펴지 못하는 죽음이 세상에 있다는 게 내 삶의 상징처럼 여겨져 무서워진다.

너무 오랫동안 글을 움켜 쥐고 살았다. 앞으로 더 오랫동안 움켜쥐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게 무섭다. 움켜쥐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말이다. 대학 4년동안, 아니 20대의 모든 시간들을 '나는' 글만 썼다. 날줄만 알기에 날개를 움켜쥐고 살았던 그 무당벌레처럼. 이렇게 글만 움켜쥐고 있다가 서른을 넘길지도 모른다. 김광석의 '서른 즈음'을 부르면 눈물이 난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지만 기타줄을 퉁기며, 내 삶의 오선지! 제 29악장까지 긴 파장으로 흔들던 이놈의 긴 문학의 가사를 평생 불러야 할까부다.

이제 학창시절, 내 문학의 요람 사월문학을 떠나야 할 때다. 날개를 펴야 하는데 너무 까마득한 높이다. 약한 날개로 과연 날 수 있을까? 무섭다. 딛을 곳 없는 빈 공중의 징검다리들이.

---

**소설 심사평** | 김남일〈소설가, 네덜란드어 76학번〉

문학이 과거와 같은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21세기를 코앞에 둔 지금, 더구나 우리 사회가 IMF라는 참혹한 터널 속에 갇혀 있으니 더 말할 나위가 없는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선자는 아직도 문학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 미련은, 세상이 제대로 된다면 문학에 대한 대접이 나아지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이 여전히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데 꽤 힘을 보탤 수 있으리라는 믿음하고 맞닿는다.

김지형과 윤한길의 작품들은 문학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며 소설을 많이 읽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장력이며 사유의 깊이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 다 욕심에 비해 주제의식을 좀더 치밀하게 형상화하는 능력이 떨어졌다. 소통부재와 인간관계를 다루고자 한 소설들이 정작 중요한 독자하고의 소통에는 실패한 느낌이랄까. 정진을 바란다.

선자는 김종보를 발견하고 무척 기뻤다. 세 편을 보냈는데 어느 것 하나 예사롭지 않은 수준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우선 소재가 다양한 데다가 그것들을 소설로 꾸려내는 작가의 형상화 능력도 탁월했다. 특히 가족사를 소재로 삼은 '괘종시계가 있던 자리'는 치밀한 구성에 속도감까지 갖추고 있어 압권이었다. 아버지의 죽음과 형제 간, 모자 간의 갈등을 괘종시계와 손목시계를 매개로 풀어내는 착상도 신선했다. 작은 형과 내가 찾아갔고, 이제 어머니와 내가 찾아가는 절 보명사는 그 존재 자체로 소설의 무게를 더해주는 장치였다. 게다가 식구들 앞에서 난데없이 농약을 먹고 죽는 아버지가 남긴 유언 ("시계 밥 조깐…조깐 주그라.")이라니! 선자는 바로 그 한 장면만으로도 아파트와 커피숍을 오가며 자의식만 필요 이상으로 분출해내는 90년대 소설에 실망했던 마음을 넉넉히 보상받을 수 있었다. 주저없이 당선작으로 뽑았다. 2천년대 우리 문학의 재목으로 성장하기를 독자들과 함께 기대해 본다.

# 내부의 유배지, 허상의 땅, 霧津

## -안개의 상징을 통해서 본 '무진기행'의 실체-

### Ⅰ. 머리말

이 소설이 지니고 있는 장점이라면 끊임없이 회자된다는 점이다. 다양성을 찾아가는 90년대 문학속에서도 꾸준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시사하는 것인가? 그것은 독자를 끌 수 있는 자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소설을 들여다 보고 이것이 자력의 원천이 아니겠냐고 메스를 들이대더라도, 우린 자기장 근처에 있었을뿐 실제로 문학의 중심부를 찾아간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설사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떤 소설에 매료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런 설명은 사족에 불과하기에 자고로 하나의 작품을 대할 때 그것의 심장이 다치지 않게 만지는 것은 무척이나 조심스러운 일이다. 루카치가 이미 『영혼과 형식』에서 문학이란 자외선띠와 같다고 했다. 그것은 중심은 보이지 않으나 형식은 갖추었으며,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존재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리라 본다.

이 소설의 제목에서도 암시하고 있듯이 무진이라는 지역적 특색이 '안개'로 집결되며 안개의 특성으로 이야기의 모든 것들이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는바, 이 소설의 중심부에는 안개의 실체를 상정해 놓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는 어떤 증명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다. 왜냐면 누구든 무진이라는 지역에 가면 사람을 만날때도 장소를 이동할때도 안개를 거치지 않고는 그런 행위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고 작가는 이미 설정해버렸기 때문이다. 그것도 소설의 도입부에서 이미 안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고 있지 않은가?/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중략…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있을까![1]

그렇다면 앞으로 이 소설을 다루기 위해서는 안개의 생명성이 다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위의 취지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소설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①배경의 이미지와 인물의 대사가 어떤 소재에 주로 관여하는가? ②주사건은 소재로 쓰이는 안개의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는가? 이들은 단지 파편적인 흔적이나 단편적인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되는 빈도수에 의해서 독자가 읽고 나서 어떤 인상으로 각인되는가를 중시해야 할 것이다. ③이런 관점 하에서 다음에 인용한 가장 중요한 문장을 해석함으로써 본 비평을 전개하고자 한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가 뿜어내는 입김과 같았다./[2]

위에 인용한 부분은 안개를 보고 느낀 작가의 이미지이다. 필자는 이 문장을 그뒤에 숨겨진 일련의 상징들로 대체해보고자 한다.

### Ⅱ. 몸말

#### 1. 안개는 시간을 초월하는 실체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이 있'다는 말은 저승으로 이미 넘어간 존재라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승에 한이 있어서 저승에서 이승으로 넘어왔을 것이다. 이것으로 작가는 안개를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시간 초월적인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무진에서의 기억이다. 앞에서도 이미 지적했듯이 안개는 저승의 것이기도 하고 이승의 것이기도 하다. 안개는 작가가 6.25때 징병기피자로 도피해 살았을 당시와 폐병에 걸려 방죽 끝의 집 다락방에 살았던 과거의 것이었다. 그러나 이젠 제약회사 전무승진을 앞두고 잠시 휴식(또는 도피로도 해석이 가능함)차 온 현재의 안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승에 한이 있기에 안개는 찾아온 것이다. 안개가 품은 한처럼 주인공의 과거에는 어떤 미련이 남아 있다. 그래서 현재 무진을 방문하는 자신을 끊임없이 찾아와 기억을 일깨워준다.

그런 일련의 기억은 미친 여자로부터 시작되고 교미하는 개에게서도 시작되며 버스를 타고 가며 불어오는 간지러운 바람으로도 시작된다. 그런 이미지는 한도 끝도 없이 배경을 만들고 있는 첫 번째 이야기에서 계속되고 있다. /철공소에서 들리는 쇠망치 소리/와 /어린아이들은 발가벗고/ /어디선지 분뇨냄새/가 나는 무진, 급기야 /먼지를 둘러쓰고 잡초 속에서 튀어나와 있는 이정비/[3]에도 있다. 이정비는 일종의 남근의 상징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 싶다. 그렇다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주인공은 과거에 기피자였으며 폐병환자였다. 그래서 그는 무진이라는 공간적 배경에서 이미 유리된 존재로 등장한다. 그렇게 현실과 철저하게 유리되었던 시절, 기억하기도 싫은 과거에 그는 은둔하고 있던 방에서 수음행위를 하며 자신의 폐쇄성을 욕망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일련의 기억군들이 현재 무진가는 길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 전개를 하기 위해 작가는 안개를 시간 초월적인 실체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기억들은 하선생에게 남기는 편지의 구절에 여실히 나타나 있다. /옛날의 저를 오늘의 저로 끌어다 놓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였/[4]다. 즉 하선생과의 관계는 과거의 연속체이며 또한 방송으로 따지자면 재방송에 해당된 셈이다. 단지 그 사건이 변질되었을 뿐, /모든 게 여전/[5]하다. 그러므로 무진이라는 공간적 배경에서는 안개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뒤섞이고 서로 삼투하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주인공은 단 한마디로 요약해버린다. /무진에 오기만 하면 내가 하는 생각이란 항상 그렇게 엉뚱한 공상들이었고, 뒤죽박죽이었던 것이다./[6]

그러므로 작가가 겪는 현실이란 자신의 결혼에서 비롯하여 하선생과의 일탈관계는 쉽게 필연성을 획득해버린다. 안개는 잡히지 않는 과거의 기억같은 실체이면서도 현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김같은 실체가 될 수도 있다.

이에 안개는 /이승에 한이 있어 매일밤 찾아오는/것이고, 현재에 어떤 미련이 남아서 무진에 올때마다 찾아오는 과거의 기억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즉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실체는 그것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응고형태라 할지라도 현재에 그것을 꺼내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기억은 꺼내는 순간 바로 현재화된다. 그래서 현재 주인공이 무진에서 벌리는 모든 사건과 사람들 그리고 떠남까지도 정당화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 책임은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 속에 있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떠나며 자신의 무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술집여자의 자살을, 배반을, 무책임을 긍정하기로 하자. 마지막으로 한번만이다. 꼭 한 번만. 그리고 나는 내게 주어진 한정된 책임 속에서만 살기로 약속한다./[7]

여기서 그는 무진에 대한 행위들을 무책임하게 저버린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자신과 쓸모없는 약속을 행하고 있다. 마지막 한번만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처절할 정도다. 마지막 한번만이라는 다짐은, 그 이전에 수없이 무책임한 일을 저질렀다는 말이다. 즉 도둑이 이번 한번만 하고 손을 씻는 행위와 같을 것이다. 과거에도 그는 징병기피자로서 무책임을 짊어졌고, 은둔자로써 사회에 대한 무책임한 자로써 평생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었다. 그 무책임이라는 것, 그것이 그의 과거에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는 무책임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은 모두 과거로 탓을 돌리면 그만이다. 그런 연유로 적어도 무진에서 만큼 안개 속에서 저지른 일만큼은 주인공에게 불가항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안개는 아주 맑은 날이면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것처럼 사라지고, 다시 아침과 저녁늦게 희미하게 떠올라 주인공의 기억으로 천천히 침투하는 시간초월적인 존재로써 남아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안개를 통시적 시간성보다는 공시적 시간성으로 바라본다면 이 소설에서 어떻게 모든 사건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지, 또한 창녀의 죽음을 바라보는 한 지식인의 생각 속에 욕정이 끓어오름을 느낄 수 있는지는 모두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의 기억이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고 외따로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은 단지 통시적 입장에서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야 한다면 현재의 행동은 현재의 사고에 의해서만 정당화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신빙론자들의 언급을 인용한다면 조금더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그들은 현재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참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 이는 지식의 고전적 조건이다.

그런데 그것이 정당화 되기 위해서 어떤 신빙성 있는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과거의 믿음이 현재의 믿음에 인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인데, 그런 과거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떤 심리적 상태에 있으며 그들의 심리 속에 어떤 정보가 내재되어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야만 현재 그가 믿고 있는 믿음이 정당화된다는 것이다.[8] 적어도 이들은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준다는 현재완료의 선시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위에 몇가지 예와 철학적 입장을 통해서 안개가 소설 속에서 시간을 넘나드는 기억과 같은 실체였음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안개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또한 어떤 기억의 통로를 통해서 현재로 넘어오는 것인가? 위의 예들을 약간만 주의깊게 살펴보면 그들 모두 성적인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안개가 작가로 하여금 에로티시즘적 상상력을 끊임없이 강요했다는 유추를 가능케 한다. 또한 이후 사건 전개에 있어서 등장인물들의 대사나 에피소드의 사건들이 의도적으로 성적 상상력을 유도해낸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안개는 에로티시즘적 상상력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 2. 안개는 에로티시즘을 갖는 인물군들을 창조해낸다.

안개는 새벽에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강물이나 바닷물이 공기중에 응결되어서 나타나는 과학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이런 과학적인 현상을 차치하고라도 안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축축하고 습하고 물기많은 인상을 준다. 작가가 앞에서 말했듯이 안개를 /여귀가 뿜어놓은 입김/이라고 했다. 왜 하필이면 여자 귀신인가? 여기에서 작가는 이미 안개에게 여성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안개가 가지고 있는 음지의 성격은 작품 속에서 여성성으로 표출되는데 앞에서도 이미 지적했듯이 무진이라는 배경을 만들어가는데 있어서 성적인 표현들이 쉽게 등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지의 연결과 공통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일련의 배경들이 작가가 인물의 대사를 만들어가는데 일정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

고향으로 내려온 주인공은 후배인 박군을 만나면서도, 또한 성공한 동창생 조를 만나면서도 하선생을 만나면서도 빠짐없이 되풀이 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결혼에 대한 것이다. /결혼하셨다더군요?/ /자넨 왜 여태 결혼하지 않고 있나?/ /빨리 마누랄 얻어야겠는데/ /아니 아직 결혼 안했나?/ /아마 조형이 결혼 대상자중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정을 갖는다고 해도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9]

이런 일련의 대사들은 대사 속에서 끊임없이 진행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이들 인물군들의 관심사가 모두 결혼에 치우쳐있음을 느끼게 한다. 이는 주인공인 윤이 여자를 잘만나서 제약회사의 전무로 출세한 나약한 남자상이라는 데서 기인한다. 이에 비한다면 동창생 조는 여성을 폄하하는 강인한 남성상으로 그려지고 있다./도대체 여자들이 성기 하나를 밑천으로 해서 시집가보겠다는 고 배짱들이 괘씸하단 말야./[10]

이렇게 말하며 거드름을 피우는 조를 주인공은 다음과 같은 말로 비난해버리고 만다. /흰커버를 씌운 회전의자 위에 앉아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몸짓을 해 보일때는 그가 가엾게 생각되었다./[11]

이에 대해 조도 또한 맞대응을 한다. /야, 이 약아빠진 놈아, 넌 빽 좋고 돈 많은 과부를 물어놓고 기껏 내가 어디서 굴러온 줄도 모르는 말라빠진 음악선생이나 차지하고 있으면 맘이 시원하겠다는 거냐?/[12]

이처럼 이들은 내부에서 서로를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연유로 인해 끊임없이 그들의 대화는 결혼이나 성적인 관심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선생도 무진을 /밤엔 정말 멋있는 고장이에요/[13]

라는 말을 하게 되며 나라는 인물은 그 성적인 부분에서 극에 닿고 있다. 자신의 기억자체가 이미 성적인 부분으로 가득차 있다. /어디선가 부부들은 교합하리라. 아니다. 부부가 아니라 창부와 그 여자의 손님이리라./[14]

그런 기억들로 인해서 술집 여자가 자살한 시체를 보며 /나는 그 여자를 향하여 이상스레 정욕이 끓어오름을 느꼈다./[15]

고까지 한다. 그것은 안개 때문이며 안개가 지니는 여성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직업가로써 신선한 햇빛과 소금기 그리고 공기의 저온으로 만들어낸 수면제란 이런 성적 이미지의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약품으로 설정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듯 싶다. 그것은 수면제가 아니라 환각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세가지의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제조된 안개는 무진 땅에서 완벽한 환각제의 역할을 거뜬히 수행해낸 셈이다.

이런 인물군들 중에서 윤과 하선생이 관계를 맺는다. 윤은 수직적 인간관계인 직장에서 잠시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하선생은 수평적 인간관계인 무진에 사는 여자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다. 윤은 수평적 인간관계의 원형인 무진으로 회귀했고, 하선생은 수직적 인간관계가 창궐하는 서울을 원하는 것이다. 이들의 교묘한 직조는 아무래도 의미심장하다. 그러나 마지막에 서울로 과감히 떠나버리는 윤과 여전히 무진에 남아있는 하선생의 입장을 본다면 당시 사회에서 남성이 사회에서 갖는 수직선과 여성이 가정에서 지니고 있었던 수평선, 그들의 교합이 곧 결혼이고 사랑이었음을 쉽게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우린 여기서 윤과 하선생이 관계를 맺은 장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곳은 과거의 폐병으로 인해 폐쇄되고 유리된 채 갔었던 곳, 성적 체험이 가장 집약된 장소인 방죽 끝의 집이다. 어쩌면 그 방죽 끝의 집은 안개가 생성되는 장소일지도 모를 일이다. 즉 끊임없이 무진의 인물들을 태어나게 하는 장소이며, 또한 무진의 무책임을 잉태하게 하는 장소, 그들은 생명에 대한 책임감도 없이 단지 한번의 정사로 모든 것을 끝내고 만다. 그곳에서 그들이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아주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무진의 인물들은 모두 성적인 관심사에 치우쳐 있으며 과장된 몸짓으로 살아간다. 안개가 마치 자신의 몸을 한껏 부풀린 빵처럼 자신의 영역을 넓히듯이 말이다. 그들은 안개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목매달고 또한 그곳에 스스로를 유리시킨 채 살아가고 있다. 무진은 그러므로 안개의 땅인 것이다. 안개의 성역이고 안개가 담쟁이 넝쿨처럼 상주하며 살아가는 곳이다. 기형도 시인은 안개로 자본주의를 비유했다. 안개가 잠식하는 사람들, 안개의 주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여기에서도 그런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읽을 수 있지는 않을까? 성을 상품화하기 시작하는 안개의 거대한 손을 작가는 그리고 싶지 않았을까? 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추측은 억지에 가깝다는 결론이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당화할 대사나 배경또는 인물이 적다는 것이다. 이들의 관심사는 돈보다는 출세에 그치고 있다. 아니 출세가 돈과 이어져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리 억측도 아니라고 보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자본주의의 영향을 서술하기엔 너무 허황되고 우울해 보인다. 인물들은 안개를 닮아서 한결같이 나른해보이고 마치 수면제를 먹은 사람들처럼 흐느적거리며 끈적거린다. 이런 인물들은 또한 안개의 없는 실체를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 즉 인간의 현실에서 잡히지 않는 추상성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 3. 안개는 없으나 있는 실체다.

이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노자의 도덕경을 인용하면 제격이라 생각한다. 노자는 없음 즉, 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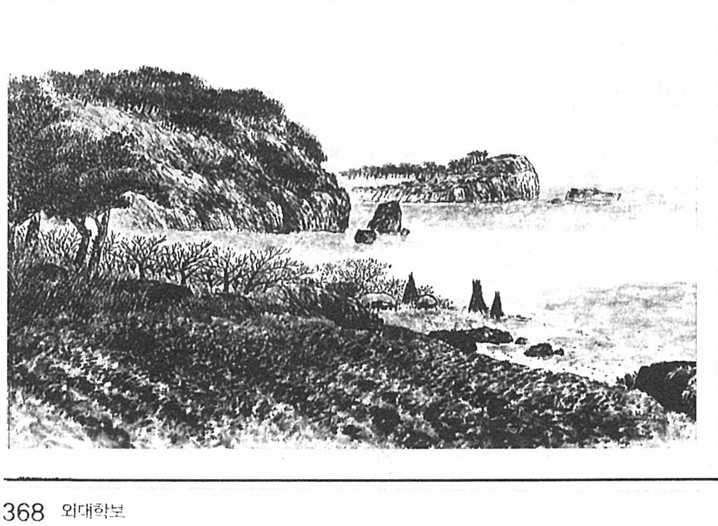
無爲而無不爲(아무것도 하지 않으나, 하지 않는 것이 없다.)[16]- 도덕경 48장

즉 무란 그 자체로써 아무것도 아니지만, 유를 창출해낸다는 말이다. 이 부분은 앞에서 인용한 작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귀가 뿜어놓은 입김/같은 존재로 접맥시켜도 무방할 듯 싶다. 그것이 어렵다면 그 다음 줄에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한 구절에서 더 자세히 나와 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17]

즉 없는 듯 보이나 존재하는 실체, 바로 바로 그것이 안개인 것이다. 없으면서도 존재하는 것, 그것을 노자는 無라고 일컬었는데, 더 인용하자면 여성의 음문과 같다고 했다. 즉 아무것도 없는 여성의 자궁에서 인류라는 유의 실체들이 태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통로로 들어간다면 안개가 갖는 무의 성질은 변증법적으로 유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성질이 여성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여기서 여성성은 인물군에서 그들이 지향하는 바로 나타난다. 그것은 바로 어떤 허상성이며, 허무와 권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집착들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무에 대한, 안개에 관한 것들에 대한, 안개의 속성을 지닌 것들에 대한 집착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이에 대해 작가도 無爲라는 말로 언급한 부분이 있다.

박은 가고 나는 다시 '속물'들 틈에 끼었다. 무진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타인은 모두 속물들이라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타인이 하는 모든 행위는 무위(無爲)와 똑 같은 무게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장난이라고.[18]

예기치 않는 부분에서 필자는 아주 큰 수확을 거두었다. 적어도 이 말이 노자의 무위와 상통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앞으로 펼치게



1)김승옥, 『김승옥 소설전집1』 P.126 문학동네, 1995
2)위의 책, P.126
3)위의 책, pp 130-131
4)위의 책 P1527)
5)위의 책, P134
6)위의 책, P127
7)위의 책, P.152
8)Jonathan Dancy,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y Epistemology, pp 110-126, Basil Blackwell, 1990
9)7과 동일한 책, pp. 134-141까지 발췌
10)위의 책, p.146
11)위의 책, p.145
12)위의 책, p.146
13)위의 책, p.138
14)위의 책, p143
15)위의 책, p144
16)노자, [도덕경], 황병국 옮김, 범우사, 1986
17)15와 동일한 책, p126
18)위의 책, p.138
19)위의 책, p127

될 무와 허상상은 위의 문장으로 인해 그 증거를 가진 셈이다. 그렇다면 위의 문장을 조금더 살펴보기로 하자. 그는 무진의 인물들이 모두 속물이라고 지칭한다. 그것은 모두 성적인 것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성악을 하는 하선생을 유행가나 부르는 작부취급을 하고 있음에서 나온 결론이다. 하지만 나 역시 그런 속물 틈에 끼는 것을 보아선, 주인공도 속물이라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속물인 주인공이 타인들 모두 속물이라고 규정하고 다 한통 속으로 몰아넣으려 한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 즉 삶이라는 것을 무위의 수준에 지나지 않는 장난이라고 결론내린다. 삶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장난이란다. 그런데 그들은 장난이라도 치고 있지 않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나 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과 아무것도 하지 않으나 장난처럼 하고 있다. 즉 어떤 의도성이 개입되지 않음에서 장난은 무위사상과 의미상으로 상통하고 있는 것이다. 인용한 무위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두고 한다거나, 거창한 의도로 살아가는 것이 삶은 아니다는 말을 하기 위함인 것이다. 그저 장난처럼 살아지는 것이 삶이라고. 작가가 말하는 타인의 행위는 무위의 장난이다는 말과 노자의 무위는 같다고 보아도 그다지 의미상으로 별 이상이 없는 듯 보인다. 그렇다면 장난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끊임없이 관계의 허상성을 드러내게 되는 이야기 전반부부터 살펴보자.

소설은 무진 10km라는 이정비를 지나는 버스 안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작가는 무진의 평범함을 농사 관계 시찰원의 대화를 통해서 묘사해낸다. 윤희중, 나라는 인물은 제약회사 전무로써 직업답게 무진의 햇빛과 저온의 공기 그리고 해풍의 소금기로 수면제를 만들었으면 하는 공상을 시작하는데 그것을 무진이라는 지역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는 무진에 들어서면서 헛된 망상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즉 현실적인 안목보다는 없는 실체에 대한 강한 유혹을 느끼기 시작하는 장소로써 무진을 규정지어놓고 들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공상〉이라는 낱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공간 설정은 뒤에 그의 서울과 별다른 일탈 행위에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즉 하선생과 보여지는 부정한 성적 관계는 그곳이 무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작가는 무진가는 버스 안에서 /공상/[19]

이라는 한마디로 일축해버리는 것이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쌌고, 먼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는 안개, 그것을 작가는 자신이 갖는 공상의 대변자로 보는 듯하다. 이 공상은 무진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난다.

나는 무진에서 후배이자 모교에서 국어 교편을 잡고 있는 박군의 방문을 받게 된다. 박군은 과거 문학도였으나 윤은 그에게 잡지 한권 읽은 여유도 없음을 상기시키며 그가 갖는 문학 열정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모든 게 여전하군/ 그 한마디로 윤은 무심하게 흘려보낸다. 윤은 그후 박군을 통해 세무서장이 된 동창생 조를 만나고, 모교의 음악선생인 하인숙이라는 여선생을 만나게 된다. 이들은 단지 좁은 지역성과 세무서장 조의 권력형 힘으로 결집되어 만남을 갖게 된다. 즉, 하선생이 조를 만나는 이유는 조와 결혼함으로써 무진을 떠보겠다는 일종의 탈출행위로 잠정적 해석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들의 만남이 어찌 되었든 윤이 무진에 오기 전에 이들은 윤의 눈에 삼각관계로 보여진다. 즉, 하선생이 세무서장 조 곁에서 얼찡거리고 그로 인해 하선생을 좋아하는 박군이 그들의 모임에 가세된. 그러나 이들의 관계도 알고 보면 모두 허상에 불과하다. 앞에서도 인용했듯이 조는 여자를 심하게 폄하한다. 그렇게 해서 하선생을 가볍게 무시된다. 이에 하선생은 밤길에서 윤과의 대화를 통해 /심심해서/[20]그들을 만나는 것 뿐이라며 그녀 또한 그들을 가볍게 무시해버린다. 그중 박군만이 조금은 진지하고 진실된 관계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도 또한 /유행가나 부르는/ 성악가 출신 하선생이 /딱해/보였을 뿐이라고[21]말함으로써 그들의 삼각관계는 순식간에 무너져버린다. 이로써 주인공 윤과 하선생과의 만남은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며 그들의 삼각관계가 실제로 허구였음을 드러내고 만다. 이들은 애초부터 어떤 현실적인 안목을 가지고 만났던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하선생은 세무장 조보다 더 권력형인 서울 사람 윤을 통해 무진의 탈출을 시도하려는 노력은 현실적인가?. 읍내 몸을 팔던 작부가 자살로써 무진의 탈출을 시도하는 중간의 삽입 사건은 이후의 하선생의 행적을 암시하고 있다. 어쩌면 성악을 전공했으면서도 목포의 눈물이나 불러야 하는 그녀가 작부와 다를 게 무엇이겠는가? 그들은 안개로 감싸여진 무진에서 철저히 뒤범벅이 된다. 윤은 새벽을 샜던 이유가 그 작부의 죽음을 지켜주기 위해서였음을 또한 그 작부에게서 욕정을 느꼈음을 말함으로 그들은 무진이라는 곳에서 안개의 군단처럼 끈적하게 뒤섞이고 있는 것이다. 윤과 하선생은 관계를 갖게된다. /서울에 가고 싶어요 단지 그것 뿐이예요/ 라는 하선생의 말은 의미 심장하다. 그들의 관계에는 사랑의 정당성도 작부가 갖는 지불관계도 성립되지 않은 채, 몸을 담보로 하는 하선생의 무진탈출이 시도되는 장면이다.

"무진이 싫은가요?" "미칠 것 같아요. 금방 미칠 것 같아요. 서울엔 제 대학 동창들도 많고 …… 아이, 서울로 가고 싶어 죽겠어요." 여자는 잠깐 내 팔을 잡았다가 얼른 놓았다. 나는 갑자기 흥분되었다. 나는 이마를 찡그렸다. 찡그리고 찡그리고 또 찡그렸다. 그러자 흥분이 가셨다. "그렇지만 이젠 어딜 가도 대학시절과는 다를걸요. 인숙은 여자니까 아마 가정으로나 숨어버리기 전에는 어느 곳에 가든지 미칠 것 같을 걸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지만 지금 같아선 가정을 갖는다고 해도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맘에 드는 남자가 아니면요. 전 그 남자에게 여기서 도망하자고 조를 거예요." "그렇지만 내 경험으로는 서울에서의 생활이 반드시 좋지도 않더군요. 책임, 책임뿐입니다." "그렇지만 여긴 책임도 무책임도 없는 곳인걸요. 하여튼 서울에 가고 싶어요. 절 데려가주시겠어요?"[22]

이들은 대부분 정신적인 탈출을 몸의 자살이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또는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무진에서 빠져나오려 애를 쓰고 있다. 그렇다면 무진은 어떤 곳인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토록 탈출하려고 애를 쓰는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윤은 "사랑"이라는 말을 하선생에게 꺼내려 하지만 마지막·편지를 찢어버림으로써 다 부질없는 사건으로 돌려보낸다. 윤은 부인의 급전보를 받고 다시 서울로 상경하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전무의 자리를 위해서 무진의 시간들을 아주 재빠르게 청산하기 시작한다. /한번만 ,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 무진을, 안개를, 외롭게 미쳐가는 것을, 유행가를,......배반을, 무책임을 긍정하기로 하자/[23]

그는 무진을 한날 무책임의 장소로 규정한다. 앞에서도 이미 과거의 기억의 현재 무책임성으로 해석한바 있지만 이 〈무책임〉이라는 단어는 공상만큼의 중요성을 지닌다. 또한 그 다의성으로 인해 인간관계의 무책임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하선생의 대사를 통해서 나온 말인데 /그렇지만 여긴 책임도 무책임도 없는 곳인걸요/[24]

라는 표현은 되새겨 볼만하다. 무진은 책임도 무책임도 없는 곳이다. 안개는 이들에게 책임도 무책임도 없다로 읽혀질 것 같기도 한데, 더 들여다 보면 이 무책임과 없다는 말이 차라리 의미심장하다. 이 부분은 그동안의 모든 가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곳이라 곤혼스럽기 그지없다. 과연 하선생의 말이 맞다면 작가는 무진을 세상에서 없는 곳으로 규정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때문이었다. 즉 책임뿐만 아니라 무책임까지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우린 이 문장을 아주 잘 들여다 보아야 한다. 하선생의 의도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말이다. 무책임이란 책임에서 나오는 것이며 또한 책임도 무책임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서로 상극이면서 상생관계를 맺고 있다. 마치 악이 없이 선이 존재하지 않듯이 말이다. 하선생은 책입이 없으므로 무책임도 없는 것으로 모두 없는 것으로 돌려보내고 싶은 것이다. 이는 하선생의 바램일 뿐, 책임이 없는 곳엔 무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작가는 마지막 두줄에 /당신은 무진읍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25]

라고 한다. 떠난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말이다. 존재하는 무진. 존재하는 안개. 이것을 떠나는 당신의 옷자락에 안개의 입김이 묻어있다. 결국 당신이 이 무진이라는 곳을 떠나는 순간 당신은 책임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순간 /심한 부끄러움/[26]

을 느낄 것이니 부디 안녕히 가라고 한다. 그렇다. 무진은 존재한다. 그렇게 무진을 떠나는 주인공은 책임으로 바쁘게 일상이 돌아가는 서울로 간다. 무책임의 땅, 에덴동산에서 이성을 갖게 된 아담과 이브처럼 그는 무진을 떠나며 심한 부끄러움을 느낀다. 바로 여기에 무진이 어떤 곳인가의 해답이 숨어있다. 애초에 말했던 "안개"와 "공상" 그리고 "무책임"은 동의어로 읽힐 수 밖에 없다. 이들은 모두 무진인 것이다. 즉 이미지로 안개를 보여주고, 그 뒤에 공상과 무책임을 상징적인 의미로 숨겨두었던 것이다. 그것은 모두 안개로 상징되는 무진의 모습이며 또한 /옛날의 저를 오늘의 저로 끌어다 놓/[27]은 편지의 글귀처럼 과거의 허상일 뿐이다. 이정도가 되면 모든 사건들이 안개의 탓이라고 돌리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또한 수많은 인물들이 창출하는 그들의 성격들, 따지고 보면 박군의 순진에 가까운 문학적 열정이나 조의 과장된 권력성, 하선생의 무모한 탈출시도, 나라는 인물의 과거 지향성. 그들은 한결같이 없는 실체를 삶의 지향점으로 잡고 있으며 그것은 무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없는 실체가 그들의 관계를 지배하고 그들의 사건을 만들어내며 술집 여자의 자살이나 하선생과의 성적 접촉, 또는 부정한 사랑까지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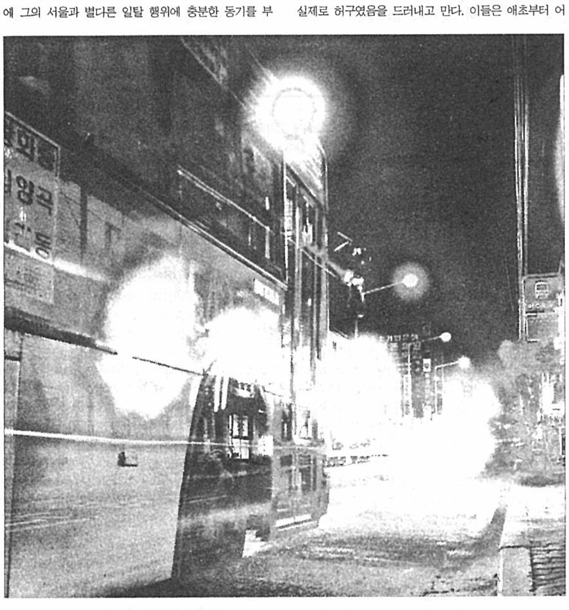
모든 것이 안개로 감싸진 그래서 /먼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아/ 현실감각을 상실케 하는 존재하지 않는 땅은 아닐까? 그 존재하지 않는 땅은 최인훈이 내부로의 망명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지는 않을까? 즉, 작가 내부의 유배지로 읽을 수는 없을까? 어쩌면 無이고 虛인 땅 무진, 작가는 그 내부의 유배지에 잠시 머물렀다 가는 것일 뿐. 돌아가며 느끼는 것은 무책임에 대한 심한 부끄럼일 뿐이다. 결국 작가는 무진을 처음부터 현실로부터의 도피로 설정했고, 그런 장소 제공을 통해 인간관계의 허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허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무책임을 강조하며 그는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간다. 그런 행위는 폐병걸려서 기거하던 방죽 끝의 집으로 찾아가 과거 그가 수음하던 장소에서 성관계를 맺는 일련의 행위로 연결됨으로써 현실에서 유리된 사랑과 현실에서 이미 결별된 관계를 맺게 되는데, 급전보 하나로 이런 모든 관계는 순식간에 허물어져 버린다. 그렇다면 그 유배지라는 곳은 현실과는 반대되는 땅으로써 설정되는 것은 아닐까? 서울과 판이하게 다른 곳.

무진에서 주인공이 보낸 시간들은 현실과 유리된 채, 좀처럼 변하지 않는 /예전과 다름 없는/ 곳. 그래서 쉽게 과거의 기억속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것을 재현할 수도 있는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작가 자신 내부의 유배지라 해석해도 무방할 듯 싶다. 그렇다면 왜 이런 유배지가 필요한 것일까? 일상에 찌들고 힘들어질 때 우린 한 번쯤 무진처럼 무책임한 땅으로 유배가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곳에서는 모두가 허상을 좇고 그 허상을 아름답게 느끼며 그러면서도 그곳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탈출하고 싶어한다. 안개에 희미하게 싸여서 그 실체들이 정확하지 않는 무진에서 작가는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중이다. 처음에 현실에서 도피했듯이 이제 내부로부터 도피하는 중이다. 어느쪽에서 봐도 그것은 도피이며 우린 일상 속에서 날마다 외부에서 내부로, 내부에서 다시 외부로 도망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작가는 역설하는 듯 싶다.

## Ⅲ. 끝

지금껏 필자는 인물군들의 특성 그리고 그들이 갖는 관계를 안개의 상징으로 해석되는 〈공상〉과 〈무책임〉으로 연결지어 보았다. 또한 이런 연결을 위하여 시간성과 여성성 그리고 유배지라는 공간성까지 결부시켜 보았다. 그리하여 얻은 결론이 무엇인가? 과거의 기억에 영향을 받는 인간관계의 허상성을 드러내려고 했다고 말하기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다. 여기서 필자는 한가지 변명을 해야 할 것 같다. 주제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행위는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자기장을, 자기장의 원천을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말이다. 적어도 위의 비평이 조금이나마 성공을 거두려면 그 중심부를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었어야 옳았다. 그러나 이제 와서 필자는 안개의 무엇을, 내가 느끼는 주제의 어떤 부분을,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방식들을, 그들이 서로 맺는 관계들을 방해하거나 건드리지는 않았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 그래서 마지막 위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 위에 이미 서술한 것들을 기초로 하겠지만 -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려보고자 한다.

안개는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든 존재하지 않는 것이든 그의 넉넉한 입김으로 무진을 감싸안았던 실체였다. 감싸안는 존재, 우리가 어떤 낱말을 들었을 때 푹 안기고 싶은 낱말이 있다. 그것은 고향이고, 어머니이며, 따뜻한 집이다. 그렇다면 이제 안개를 고향으로, 어머니로, 집으로 읽어보자. 작가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것이 도피이거나 휴식이거나 상관없이 언제나 받아줄 수 있는 장소, 무진을 말이다. 작가에게는 무진은 고향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좋은 기억의 고향이 아니라 나쁜 기억을 썩지 않게 잘 보관해주는 망각의 땅임과 동시에 기억의 집인 것이다. 그 집은 작가가 찾아와 문을 열기 전까지 골방의 기억처럼 꼭 잠겨 있다. 든든한 후원자인 고향이 있기에 그는 서울이라는 도회로 출전하는 병사처럼 떠날 수 있었다. 그런 무의 근원이 없다면 아무도 유가 끊임없이 창출되는 도시를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또 언젠가 무진의 이정비를 보러 다시 찾아와야 할지도 모른다. 그때 그는 잘 보관된 기억들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그는 잠시 과거로의 여행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어머니 같은 젖빛 안개의 땅, 무진을 떠나며 그는 적고 있다. 한 여자로 대변되었던 자신의 불우한 과거의 기억에게 찢어버릴 편지를 쓰고 있다. /서울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소식 드리면 당신은 무진을 떠나서 제게 와 주십시오. 우리는 아마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28]



〈참고 문헌〉

김승옥, 『김승옥 소설전집1』, 문학동네, 1995

기형도, 『입속의 검은 잎』, 문학동네, 1990

노 자, 『도덕경』, 황병국 옮김, 범우사, 1986

Jonathan Dancy,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y Epistemology』, Basil Blackwell, 1990

20) 위의 책, p.139
21)위의 책, p138
22)위의 책 P.141
23)위의 책, p.152
24)위의 책, p141
25)위의 책, p.152
26)위의 책 동일 페이지
27) 위의 책, 동일 페이지.
28) 위의 책, 동일 페이지.

평론 당선소감

김종보〈서학 · 서반아어 4〉

# 샤먼, 그 아름다운 주술행위

동양철학에 푹 빠져 있을 때의 일이다. 주역을 들고 다니며 사월문학 문우들의 점괘를 봐주면 선무당 노릇을 했다. 어떤 이들은 주역의 글귀를 해석해 가까운 미래를 알려주는 내게 식권 같은 복채를 주기도 했다. 그렇게 몇 달동안 동아리 방에 철학관을 차려놓고 있다가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다. 남의 점을 계속 봐주다가는 진짜로 점쟁이 직업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일종의 자신의 운명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난다니 이 얼마나 기막힌 노릇인가? 그 말이 우습지만 그때는 왠지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무서워져서 당장 책꽂이에 고스란이 주역을 꽂아두고 점보는 일은 그날로 그만 두었다. 물론 그 후에도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끔 꺼내 읽긴 하지만 왠지 꺼림찍한 감정만은 버리질 못했다.

창작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비평공부를 시작했다. 그것은 공부라기 보다는 일종의 끈기있는 글읽기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비평을 하다 보면 갈기갈기 찢긴 작품의 파편만 남는다. 그렇게 비평에 길들여져 다른사람의 작품을 읽다가 창작을 하려하면 엄두가 나질 않는거다. 난 그렇게 쓸 자신이 없어지니까.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비평을 한다는 것, 그것은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는 샤먼처럼 작품과 독자를 연결하는 주술행위다.

위대한 샤먼이셨던 김현 선생님을 읽은 적이 있다. 그분의 주술문은 문학의 다양한 이면에 관한 내용이었다. 적어도 내가 읽기엔 그랬다는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가면일지도 모른다. 나를 숨기고 나의 다른 얼굴을 과장시켜 상대를 겁주는 위장된 몸짓이며, 언제나 그 뒤에서 두려움을 감출 수 있는 자아의 은신처. 그곳에서 문학을 배웠다. 이젠 떠날 때가 온 것 같다. 가면을 벗고 맨 얼굴로 내 글을 쓰는 것이다.

수업이 끝나면 매일 그리운 사월문학도, 매일 만나도 싸울 거리가 남아있어 만남의 이유가 있었던 그곳의 사람들. 졸업하더라도 그곳에서는 샤먼의 주문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매일 밤마다 술을 마시고 문학을 논하고 밑도 끝도 없는 논쟁을 시작하고, 부끄러운 글을 펼치며 쏟아지는 날카로운 해부의 메스 앞에서도 당당한 그들. 누군가 주문을 외우고, 누군가는 그 주문에 취해 글을 쓸 것이다.

평론 심사평

임규찬〈문학평론가〉

# 인문학적 사고는 과연 와해되고 있는가

35회째를 맞는 외대문학상 평론부문의 응모작은 세편에 불과했다. 양적인 결핍이 질적 침체를 곧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마음이 씁쓰름하다. 90년대에 들어와 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운위되는 사실에 딱히 부합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만은 아니다.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거기 보여지는 비평의 주조음 탓이다.

문학이 특수화된 하나의 영역으로서 '문학'에 갇혀버린 형국이다. 문학은 세계의 개진이자 창조로서 모든 인간의 정신적 산물과 교섭하며, 마치 대지의 혈관처럼 땅밑을 흐르다 어느 땅을 뚫고 나오는 샘과 개울과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선자의 생각이다.

그런 살아있는 현실과의 유대로서 인문학적 사고가 90년대에 들어서 급속히 와해되고 왜소해진 듯해서 씁쓰림한 것이다.

어쨌든 응모된 세편을 읽고서 결론을 쉽게 났다. 김승옥의 '무진기행'에 대한 작품론인 김종보군의 '내부의 유배지, 허상의 땅, 무진(霧津)-안개의 상징을 통해 본 '무진기행'의 실체'가 단연 돋보였다.

우선 글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글을 매만지는 솜씨도 좋고, 하나의 작품을 파고들어가는 비평적 안목도 좋았다.

김승옥의 언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주목하여 '무진기행' 속의 '안개'를 중심으로 삼아 작품세계의 이모저모와 밀도있게 결합시키는 치밀성이 무엇보다 돋보였다.

그에 반해 장정일의 시세계를 분석한 '나를 쪼개어 만드는 시'는 하나의 시집해설로서는 무난했지만, 응모자의 개성 역시 거기에 묻혀버려 특별한 인상을 주지 못했다.

또한 황순원의 단편 '소나기'를 분석한 '소나기의 작품세계'는 하나의 평론이기보다는 일종의 연구논문 성격이 강한 리포트 같다. 응모자의 새로운 문학이론에 대한 지적 수준은 상당하고, 그것을 무리없이 '소나기'와 결부시켜 소화해내고 있지만 그것이 비평으로서의 생동성과 개성을 무화시켜 버렸다.

해서 김종보의 '내부의 유배지, 허상의 땅 무진'을 당선작으로 주저 없이 추천한다.

# 동대문 상인집단의 특수어 연구 : 재래 시장을 중심으로

목차

Ⅰ.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

Ⅱ. 동대문 시장의 형성 3

Ⅲ. 특수어의 개념 및 생성요인 3
1. 특수어의 개념 4
2. 발생동기 6

Ⅳ. 특수어의 사용심리 및 기능 7
1. 특수어의 사용심리 7
2. 특수어의 기능 8

Ⅴ. 특수어의 유형별 분포 9
1. 수사적 특징 9

Ⅵ. 특수어의 어원별 분포 10
1. 인칭접미사 사용 10
2. 전위 · 분화 · 전의 11
3. 기타 12

Ⅶ. 결론 13

참고문헌 15

## Ⅰ.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만일 우리가 다음과 같은 발화를 우연히 접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발화의 의미를 어느 정도나 이해할 수 있을까?

" 오늘 차궁이와 아이미가 같이 텐커를 보러 왔는데, 생시동이가 외백이 텐커를 팔아 껌자가 노광백이나 남겼다. 이번 주는 열나게 해파리를 안해도 되겠어"

여기에서 '차궁이'는 '남자', '아이미'는 '여자', '텐커'는 '커텐', '생시동이'는 '처음 시장 일을 하는 사람', '해파리'는 '자기 가게 주변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행위', '외백이'는 '원가와 판매가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껌자'는 '이익금', '노광백'은 '숫자 100'을 의미하는 동대문 상인집단의 특수어들이다. 위의 발화에 나타나는 어휘들은 일반 언중이 사용하는 보편적인 통용어는 아니다. 따라서 위의 발화는 화자와 동일한 활동영역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뿐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통용되기 어려운 말이다. 이렇게 한 집단에서만 한정되어 쓰이는 언어의 연구는 집단 진단의 주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통용어와의 차이 및 사회적인 환경과 언어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 논고는 동대문 상인집단간의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은어 · 속어의 자료를 통하여, 언어교류를 통한 집단의식의 형성 및 사회적 계층 사이의 차이를 살피며, 이러한 언어의 형태들이 국어 공동체에 어떤 분포를 보이는가 하는 문제를 밝혀, 언어학 이론을 보충하고 넓히는데 보탬이 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방법은, 동대문 상인집단의 은어 · 속어를 직접 조사하여 실제 사용되는 한 집단간의 언어자료를 분석 · 검토함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인간 상호간의 의사전달의 필요에서 연유한, 곧 구어가 그 언어를 발달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상황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로서의 언어, 특히 한 집단의 비통용어의 연구를 선행함으로써 전체 언어영역의 다양성(diversity)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렇게, 실용 언어자료인 은어 · 속어의 조사 · 분석을 통해 국어학 연구, 더 나아가 언어학 이론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는 언어표현이 생성되는 발화의 환경을 구절이나 문의 한계를 넘어, 그 발화가 이루어지는 발화자의 사회적 성격, 발화시의 사회적 상황 등에 관심을 보여, 이들이 어떻게 발화자의 음운 · 어휘 · 어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냐 하는 것을 밝혀야 한다. 이러한 관심 및 연구의 일 단계로서, 발화에 참여하는 사회적 계층을 동대문 상인집단으로 하고, 그 발화의 내용 및 상황을 동대문 시장(동대문 종합상가, 흥인시장, 동인시장, 평화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시의 은어 · 속어로 한정하여 조사함으로써, 언어의 사회적 성격을 고찰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1]

## Ⅱ. 동대문 시장의 형성

서울 종로5가와 청계천5가 사이 한 블록에 지금 동대문시장의 모체라할광장시장이 있다. 1905년 7월 5일 대한제국 한성부 개설허가를 받아 생겨났다. 이는 국내 최초의 근대적 시장이다. 설립당시 명칭은 광장주식회사. 92년전 거금 10만원을 출연한 설립자는 4명이었다. 고종황제 비서실장 격인 김종한, 국내성 대신 이봉래, 두산그룹 설립자 박승직, 거상 만여 평에 이르는 미나리 밭네뚝선서 퍼온 모래흙을 덮어 터를 닦고 건물을 세웠다. 광교와 장교 사이에 있다 해서 시장이름이 광장이 됐다. 목조건물이 6.25때 모두 불타버려 54년 지금의 콘크리트 건물이 섰다. 광장시장을 모태로 삼아 동대문시장이 지금 상권을 갖추게 되기까지는 6.25때 월남한 이북 사람들 영향이 컸다. 돈도 땅도 없어 광장시장에 가게를 가질 수 없었던 실향민들은 전란중 청계천변에 노점을 차렸다. 구호물자, 미군복, 담요를 이리저리 오리고 붙여 만든 옷을 팔았다. 당시 일대에서 장사하는 사람중 60% 가량이 실향민들이었다.58년 대화재로 2천여 노점이 불타버린 뒤, 61년 바로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이 평화시장이다.

이때부터 구호물자가 끊기고 나일론 같은 화학섬유가 생산되자, 건물 2,3층에 공장을 차리고 옷을 만들어 팔았다. 이곳은 섬유수출산업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했고, 이에 힘입어 신평화, 동평화, 청평화 등을 탄생시켰다. 이 과정에서 동대문종합시장과 청계천 신발-가방-모자상가, 평화시장 헌책상가들이 생겨났다. 인근 종로4가 시계골목, 을지로 그릇-가구-건자재-페인트상가들이 자연스레 형성됐다.

## Ⅲ. 특수어의 개념 및 생성요인

동일한 환경이나 동일 운명에 놓인 하나의 집단, 예를 들어서 채삼인(採蔘人)의 모임이라든가, 학교, 상인집단, 군대, 또는 범죄조직 등의 소집단이 형성되어 그들대로의 독자적 생활 및 활동을 영위하게 되면, 그 구성원들에게만 통용되는 특수한 언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발생의 조건으로 나타난 사회적 계급방언에 대한 연구는, 김민수(1953)에서 비롯되어 사회를 구성하는 각양각색의 집단언어들이 꾸준히 정리되고 발표되어 국어의 사회적 성격 규명에 발전을 가해 왔다. 그러나, 우리가 은어나 속어 등으로 부르는 계급방언들의 어원들에 대한 정의는 많이 소개되고 풀이해 왔으나,[2]새로운 계급방언의 발굴, 조사 등의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는 형편이며, 차용되어 사용하는 대역술어들에 대한 개념이나, 그 언어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관계의 연구 등은 아직도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우선, 통용어가 아닌 계급방언 중에서 은어와 속어의 개념을 확인하여 정립하고, 동대문 상인간에 쓰이는 계급방언이 은어 또는 속어 중의 하나로 그 술어를 지정하지 못하고 '특수어'로 설정하게 된 이유 및 그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 1.특수어의 개념

특정한 하나의 집단이 만들어지면, 그 집단내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경험이 언어로써 형성되고 사용되어 특수한 어휘가 발달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만이 갖는 특수한 집단으로서의 귀속의식을 가지게 되며, 그에 따라 은어적인 형태의 언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은어를 언어학적인 위치에서 보면, 언어의 분화에 해당하므로, 이들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언어의 장벽을 쌓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동일 소사회와 동일 직업 내에서의 특수한 언어의 표시로 발달하기 시작한 은어는 어떠한 것인지 그 기존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은어의 정의로, 이숭녕(1957:44)에서는, '비밀어가 공통된 기본적 특징'이라고 하면서, "일부 특수사회의 연락의 요소를 표시함에 지나지 않으며 외부에 늘 관계된 또는 외인에 대한 reaction이요 자기보호의 하나의 organ일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은어란 타집단에 대해 비밀을 유지함과 동시에 내부로 더 큰 소속감과 결속을 가져오게 하는 목적이 있음을 뜻한다고 보겠다. 한편, 김민수(1964:230)에서는 '어떤 계급 · 직업 · 집단을 형성한 분화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사용되는 특수어'라고 하며, 장태진(1971:642)에서는 '은비를 목적으로 습관화된 언어'라고 기술하여, 후천적으로 환경상황에 의해 습득되는 특수어의 특징을 밝힘으로써 환경과 언어습득과 밀접한 관계를 암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몇 개의 정의를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은어란 특정한 사회집단의 구성원들끼리 특정한 뜻을 숨겨 붙인 말로서 저희들끼리만 익숙하게 사용하는 비통용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사용집단으로는 상인, 학생, 군인, 도박인, 부랑패, 등 사회적 계급을 가질 수 있는 집단이라면 그 어디에서나 발생이 가능하다.

속어에 대하여 이희승(1961:1672)에서는, '통속적으로 쓰이는 저속한 말'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통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곧 어떤 사물을 바로 일컫지 않고 다른 것을 빌거나 빗대어서 하는 말로서, 그 말 자체의 성질로 보아 통용어보다는 본디 품격이 낮은 말이라는 뜻이다. 또한 서정범(1973:212)에서는 "속어는 그 사회집단의 욕구불만 같은 것을 발산하는 일종의 청량제 구실을 한다." 라고 하며, 장태진(1977:109)에서는, 국어의 속어에 대하여, '젊은 세대의 기교적 언어운용능력을 발휘하여 그 미적이며 동적이며 유희적인 사용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여, 신선하고도 기발한 속어의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 곧, 속어는 은어와 같은 비밀유지와는 관계없이 한집단 구성원들이 진부한 통용어로부터 벗어나 생활의 촉진제로 사용하는 비통용어라고 하겠다.

그러면, 과연 동대문 상인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비통용어는 은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속어라고 그 술어를 지정해야 할까?

은어나 속어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다. 동대문 상인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비통용어는 은어적 성격을 지니면서도 속어적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즉 언어자료의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사실로는, 동대문 상인들의 언어에는 변화성 · 신선도의 추구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보호나 위장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표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손님에 대한 명치의 세분화는 진부하게 느끼던 통용어의 불만을 제거하기 위해 좀더 창의적이고 정적인 표현의 어휘들이 주조를 이루지만, 숫자를 반영하는 수사적 성격의 언어에는 비밀유지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더구나, 어떤 것은 변화성을, 또 다른 것은 비밀성을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분간하기 어려운 것이 있음도 사실이다. 또한 은어란 시간의 흐름에 의해 속어화되기도 함을 유념한다면, 은어 또는 속어 하나로 단정지을 수 없음을 이해하게 된다. 공시성(公示性 )으로 인하여 빨리 약화되고 은어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어휘들이 더욱 늘어감도, 은어라는 용어로만 한정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동대문 상인들의 비통용어의 특성을 지닌 언어는 종래에 이미 정의된 바에 의한 은어와 속어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새로이 다른 술어를 만든다는 것은, 또 다른 정의나 술어로 인해 국어학 연구의 혼란만을 줄 뿐이라고 여겨져, 일반성이 부족하고 통용어가 아니라는 점과 그 술어 자체의 의미에도 나타나듯, 특수하게 한정된 집단에서 사용되는 언어라는 점에 비중을 두어, 우선 잠정적으로 그 범위를 넓게 잡아 '특수어'라고 칭하고자 한다. 물론, 기존연구에 나타난 '특수어'의 개념 범주에는, 은어 · 속어만이 아니라, 직업어나 비어, 궁중용어 등도 포함된 모든 사회적 방언(social dialect)을 뜻한다. 그러나 동대문 상인간의 언어가 은어 또는 속어 중의 하나로 단정할 수 없는 특징이 있는데다가 비어(卑語)등의 요소도 보이므로, 이 글에서는 잠정적으로 '특수어'로 설정하되, 이후 좀더 정밀한 연구를 후속시켜 그 술어를 정립시키고자 한다.

이제, 동대문 상인들의 특수어의 개념을 재정립해 보면 '동대문 상인간에 사용하는 사회적 계급방언으로서 다른 환경과의 대립이나 갈등을 통해 발생하며 비밀유지와 변화성을 그 목적으로 하여 그들끼리 서로 익숙하게 고의적으로 사용하는 비통용어'라고 할 수 있다.

동대문 상인들의 특수어의 개념을 재정립해 보면
'동대문 상인간에 사용하는 사회적 계급방언으로서 다른 환경과의 대립이나
갈등을 통해 발생하며 비밀유지와 변화성을
그 목적으로 하여 그들끼리 서로 익숙하게 고의적으로
사용하는 비통용어'라고 할 수 있다

### 2 발생 동기

상에는 가지가지의 특수한 사회집단이 있는데 주로 신분이나, 직업으로 얽혀진 집단에서 비밀리에 간직한 기술 등이 없지 않으나 특수사회 집단에는 다집단에서 볼 수 없는 생활이 있고 또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가 자연히 불리게 되므로 그 집단의 내부에서만이 통용되는 특수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특수어의 발생요인을 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다. 첫째로 " 한정된 자기집단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둘째로 신선한 표현력을 조장하려는 의욕 때문에 생겨나"[3]고 셋째로 "클럽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 즉 언어로서 클럽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수단이라고 하겠다. 넷째로 금기의 목적에서 발생하며"[4]

다섯째로 " 공통된 생활을 영위하는 어떤 고립된 환경에서 발생한다. 여섯째로, 공통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巡回職의 언어에서 발생한다. 일곱 번째로, 외래어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 발생한다."[5]

여덟 번째로, " 일시적 쾌감의 발로와 욕구불만의 표출과 사회구조의 복잡성 때문에 아홉 번째로, 사회문화와 의지의 발달에 의하여 동지성 결합[6]"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특수어가 발생하는 원인을 들었는데 이외에도 우발적인 원인도 있을 줄 믿는다. 아무튼 인간의 생활이 특수사회 집단으로 분리되는 한 특수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동대문 상인간에 사용되는 특수어도 언어인 이상 언어가 갖추어야 할 직능, 곧 언어의 전달과 표현의 기능을 이행해야 한다. 그와 더불어 특수어는 그것만의 직능인 위상성이나 신선감 등도 아울러 가져야 하는 이원적 신분을 지닌다. 물론, 이러한 위장이나 새로운 것의 추구는 본질적으로 언어공동체의 관용적 표현어인 일상 통용어를 회피해야 할 필요성에서 발생하여 방어적 동기에서 발달하게 됨은 당연하다.

동일한 환경이나 운명에 놓여 있는 집단의 구성원이, 타인이 감지해서는 안 될 내용의 의사를 봉쇄적이고 비밀적으로 소통하거나, 구성원 서로간에 진부한 생활의 탈피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변화성를 꾀하는 심리적 요구가 생기에 된다. 가령, 가령 손님에 대한 유형을 특수어로 사용 ('정자〈손님에 대한 일반 호칭〉', '뜰자〈이집 저 집 헤집고 돌아다니는 손님〉', '가봉 정자〈있어 보이는 손님〉', '외백이 정자〈물건을 크게 구입한 손님〉' 등) 하다던가, 시장 상인간에 신선감을 유지하기 위해 특수어를 사용( '노광〈여자의 유방〉', '대삼이〈여자의 가슴〉', '건차〈남자의 생식기〉', '쌔봉〈아니다, 없다 등의 부저의 의미를 지닌 포괄적인 말〉' 등)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수어의 발생 원인을 일반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심리적 공통의식의 조장을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즉 만일 어떤 대상이나 사물과 관계된 비밀스러운 생각을 지니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이런 비밀이 자기 혼자만 가진 것이라면 일종의 중압감을 느낄 경우도 있고 불안한 자기보호의 어쩔 수 없는 수단이 되어서 괴로울 수도 있으나, 이 비밀을 같은 처지에 놓인 동료와 똑같이 나누어서 간직한다면 오히려 즐거움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요한 발생 동기가 되는 것은 비밀유지이다. 동대문 시장은 우리 나라에서 알아주는 재래시장이다. 이곳은 소매업보다 도매업이 주조을 이루었던 곳이다. 최근에는 경제난으로 인해 도소매를 병행하고 있는 추세다. 소매업은 정찰제가 보편화 되어 있지만 도매업에서는 시세를 따른다. 뿐만아니라 점원이 제품의 질이나 손님의 재정상태나 심리상태를 고려해서 부르는 게 값이다. 그래서 가격흥정에 있어 점원들끼리 오고가는 말은 비밀유지가 생명이다. 원가나 이익금의 정도를 점원들끼리 서로 주고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술법은 동대문 시장을 찾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이러한 심리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특수어는 인간이 모여 형성한 하나의 소사회에서 생산된 이상, 언어의 일반이론과 본질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며, 그와 더불어 개인의 제작 · 첨가 · 변경으로 말미암아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

동대문 상인의 특수어는 그 집단의 형성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사용되어 왔으나, 의사소통에 있어 그 비중이 점점 작아 지고 있다. 요즘 동대문 시장에서 '골라 골라'를 외치던 상인들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시내 중심부에서나 볼 수 있는 현대식 고층 빌딩들이 여기저기 들어서고 있다. 90년 초부터 아트플라자 우노꼬레 디자이너 클럽 팀 204 · 거평프레야 등 재래시장과는 개념을 달리한 현대식 건물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다. 현대식 대규모 상가만 10여개가 넘는다.

이들 신규 상가의 등장은 조악한 환경의 시장 이미지를 탈피하고 '싸지만 그다지 질 좋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상품 이미지를 바꾸는데 일익을 담당한다. 또 재래시장에서는 무조건 가격흥정을 해야한다는 생각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일부 상가는 고객이 믿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아예 정찰제를 실시하고 있다. 도소매의 구분이 없어지고 정찰제가 보편화되어 가면서 동대문 재래시장에서는 특수어가 겨우 명맥만 유지해 가고 있다.

## Ⅳ. 특수어의 사용심리 및 기능

### 1.특수어의 사용심리

말하는 이의 심리상태 또는 심리구조에 따라서 의미가 변하는 수가 있다. 복잡미묘한 심리상태를 표현하기에 적당한 어휘가 없다든지, 눈에 띈 우연한 유사성이라든지, 마음속에 떠오른 유머스러한 연상을 적절하게 표현할 말이 마땅하지 않다든지, 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용법에서 벗어나 변이적인 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희, 수치감, 은폐, 금기 등의 용어가 심리적 요인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를테면 " 변소"를 "화장실"이라고 일컫는 것은 다분히 불쾌한 인상을 제거하려는 심리적 요소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특수어를 사용하는 심리적 원인을 다음과 같은 요인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첫째, 욕구불만으로 인한 반항적 심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자조와 [illegible]의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주로 청소년 사이에서 사회현실을 풍자하고 조소할 때에 많이 쓰인다.

둘째, 프라이버시를 지키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수치감, 은폐의 목적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사춘기 남녀사회에서 성적 사실성을 표현할 때에 많이 사용된다.

셋째, [illegible] 위한 [illegible]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주로 [illegible] 많이 쓰인다.

1)이 논고를 위한 언어자료 조사는 1998년 4월6일 - 1998년 8월20일까지, 동대문 관내에 위치한 동대문 종합시장 · 흥인시장 · 광희시장 · 동인시장 등 4개 시장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지면을 빌어, 조사에 참여하여 분석을 도와준 이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2)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은어, 변말, 속어, 비어' 등의 대역술어들에 해당하는 'Slang, Cant, Argot' 등의 어원의 정의는 이 논고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3)[illegible]: [illegible], 대원사, 1961, pp.157

4)[illegible]: [illegible], 文貢 서울, 1963, pp.20-36

5)[illegible]: 社會運動이 가져온 [illegible] 思想界 9권 10(1962),pp.123-134

6)金海星: 韓國大學生의 隱語調査-男女大學生 1270명 응답자료를 중심으로- 國語國文學 76 (1977) pp.172-193

7)[illegible]: 靑少年 學生社會의 言語實態調査研究 國語敎育 18 , pp.83-91

넷째, 유희적 쾌감을 맛보기 위한 수단에서 사용하고 있다. 언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무료함을 느낄 때나, 코메디언이 익살을 부릴 때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심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욕망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2.특수어의 기능

특수어의 사용 목적은 “특수집단의 이익추구와 방어, 그리고 집단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때문에 항상 은밀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특수어가 은밀성 하나만으로는 특수어의 기능을 다하기가 어렵다. 은밀하는 방법이 소극적이어서 특수어가 이상스럴 경우 대립되는 대상에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수어가 지니고 있는 기능이란 특수어의 첫째 조건이 되는 은밀성을 補完·엄폐하여 특수어가 제구실을 다하게 하는 위장술이라 할 수 있다. 즉 위장의 기능이란 특수어로 하여금 인상을 拂拭하고 표준어처럼,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게 하여 敵對立이 되는 대상에게 허위나 속임수가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도록 하는 일이다. 우리들은 이러한 기능을 언어위장이라 부른다. 특수어는 이러한 위장기능이 있음으로 해서 더욱 비밀성은 짙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특수집단의 어떠한 힘을 과시하게 하는 결과도 가져오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위장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특수어의 표현방법은 표준어 속에 잠입하여 표준어의 부분으로 착각케하는 등 재주를 부릴 뿐 아니라 표정이나, 동작 등이 가세되는 경우가 있다. 특수어는 은밀성이 생명이고 기타의 조건이나 문제들은 은밀성에 귀속된다. 또 특수어의 기능 역시 자기집단의 이익을 지키려는 일이 첫째이고, 여타의 조건이나 문제들은 이에 귀속되나, 위장의 기능은 특수어의 첫째 기능 다음 가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다. 따라서 특수어의 기능을 요약하면 첫째, 은밀성을 가지는 기능과 둘째, 위장의 기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다음 Ⅳ장을 통해, ‘동대문 상인집단의 특수어’를 제시·분석하여 그 특수어의 형성방법 및 성격 등을 면밀히 제시하고자 한다.

## Ⅴ. 특수어의 유형별 분포

### 1. 수사적 특징

수사적 특징을 지닌 특수어들은 다른 유형에 비해 비밀어의 특징이 현저하다. 이는, 그들이 지니는 최대의 이윤창출을 위한, 강력한 통제를 목적으로 한 폐쇄성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심지어 외(外)집단과의 폐쇄성뿐만 아니라 같은 내(內)집단에서도 서로를 경계하기 위해 다양한 특수어가 사용된다.

수사를 특수어로 표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계열이 있다. 한 계열은 상인집단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고 또 한 계열은 불량배, 범죄집단에서 사용하는 특수어를 빌려온 것들이다.. 이들 두 계열간에는 공통점이 적으며, 일어를 차용하고 있는 면은 불량배, 범죄집단쪽이 우세하다. 이제 두 계열의 수사를 열거해 보기로 하겠다.

야리, 건, 무: 1원, 10원, 100원, 1000원 .... 1숫자

후리, 차, 궁: 2원, 20원, 200원, 2000원 .... 2숫자

가찌, 여, 화: 3원, 30원, 300원, 3000원 .... 3숫자

다마, 정, 꽃: 4원, 40원, 400원, 4000원 .... 4숫자

대부, 인, 이: 5원, 50원, 500원, 5000원 ....5숫자

미쓰, 교, 피: 6원, 60원, 600원, 6000원 ....6숫자

오끼, 백, 었: 7원, 70원, 700원, 7000원 ....7숫자

아따, 태, 습: 8원, 80원, 800원, 8000원 .... 8숫자

아부나이, 육, 니: 9원, 90원, 900원, 9000원 .... 9숫자

야리, 노광, 다 : 10원, 100원, 1000원, 10000원.... 10숫자

수사적 특수어는 한 용어가 한 단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 숫자의 십의 배수가 되는 모든 수를 나타내는데 활용된다.

예) 야리후리(야후): 12, 120, 1,200, 12,000(야리후리생)-

야리: 1, 10, 100--

100(야리), 200(후리), 300(갓지), 400(다마) ...... 등 여기서 앞자가 1이면 “야리”이고 앞字 뒤字가 22면 “후리후리”로 표현하고 다른 숫자 23이면 “후리갓지”라 한다. 돈의 단위도 물건의 대사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양말가게에서 “야리”라고 하면 100원이지만 가죽잠바 가게에서 “야리”하면 만원을 뜻한다.

범죄집단에서 빌려온 돈에 관한 특수어들은 일제말기부터 사용한 것으로 순수한 우리말이 아니라 일본어의 잔재들이다. 그리고 한자계열의 특수어는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것이고 우리말 계열의 특수어는 1980년대 이후 젊은 점원들의 감각에 맞게 생겨난 것이다. 이 점은 종래의 특수어의 생명력이 1-3년 정도밖에 안된다는 설에 대한 異論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거 상인집단에 비해, 수사적 특수어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시장이 확대되고 또한 사람들도 시장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상인들끼리는 견제와 균형을 위해 다양한 수사적 특수어는 필요했으리라. 다양한 수사적 특수어는 외(外)집단과의 폐쇄성을, 내(內)집단에서는 완충작용의 역할을 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재래시장내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딱딱하고 외우기 힘든 기존의 특수어를 쓰지 않고 간단하면서도 외우기 쉬운 특수어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장이 젊은 가게에서는 기존의 특수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다.

따라서, 이들 동대문 상인집단이 특수어에 반영된 그들의 심리를 확인하고 이해함은 곧 시장의 사회상을 알게 해주는 첩경이 되며, 나아가서는 그러한 재래시장이 개선 되어야할 방안도 보여 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 Ⅵ. 특수어의 어원별 분포

동대문 상인집단의 특수어를 그 형성 양식별로 나누어 보면, 크게 어원적인 면과 품사적인 분류로 나눌 수가 있다. 이중, 어원별 분포는 인칭접미사를 사용한 것과 전위·분화·전의 등을 통해 기존 통용어를 왜곡 표현한 특수어가 있다. 이들을 조사되진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인칭접미사 사용

동대문 상인집단의 특수어를 어원별로 분류해 본 결과, 인칭접미사를 사용한 특수어는 14%를 차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시장이 사람을 상대하는 곳이라 사람에 대한 분류가 그만큼 세분화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시장에서 반기는 손님이나 꺼리는 손님 그리고 시장에서 일하는 점원까지 총 망라 되어 있다. 인칭접미사 ‘-동이(둥이)’, ‘-자(者)’를 사용해서 유모어 감각과 은폐성을 꾀함과 동시에 비난을 면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칭접미사 ‘-동이’를 사용하는 특수어는 66%나 차지하며, 인칭접미사 ‘-자(者)’는 34%로 나타났다. 점원을 지칭하는 말 가운데 인칭접미사 ‘자(者)’에 비해 인칭접미사 ‘-동이’이 두드러지게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희동이〈점원〉,’기둥이〈물건을 파는데 있어 베테랑급 점원〉’, ‘시동이〈기둥이를 보조해 주는 점원-시라발이〉’, 중기동이 〈기둥이와 시동이의 중간급 점원〉, ‘생시동이〈처음 시장일을 하는 사람〉’ 등)이 있다.

### 2.전위·분화·전의

이 특수어들은 모두 기존하는 특수어의 왜곡이나 변형을 그 어원으로 한 형태들로서, 그 중에서 대부분은 음절이 전위(interversion)된 것이다. 예를 들어, ‘쌔봉(없다, 아니다 등의 부정을 의미를 지닌 포괄적인 말) - 봉쇄〉쇄봉〉쌔봉’, ‘마을(얼마) - 얼마〉마얼〉마을’, ‘모동이(삼삼오오로 시장을 돌아 다니는 사람들) - 동무〉무동이〉모동이’, ‘자남(남자)’, ‘텐커(커텐)’, ‘장대(대장, 사장)’, ‘브리(이블)’ 등이 있다. 단순한 특수어들이나 대화에서 섞어 쓰면 한 번들어서는 의미가 파악되는 않는다. 그리고 이들 단어 중 은폐의 필요성이 낮은 단어들은 단순히 음절이 전위되는데서 머물지만 은폐의 필요성이 높은 ‘쌔봉’이나 ‘마을’은 음절의 전위뿐만 아니라 음운의 변동을 거쳐 완전한 은폐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밖에 ‘태선〈여자의 가슴〉’, ‘노광〈여자의 음부〉’, ‘건차〈남자의 생식기〉’, ‘쫄자〈성관계〉’, 등은 기존의 특수어가 의미의 분화를 거쳐 오락성을 지니게 된 것들이다. 태선은 숫자 80을, 건차는 숫자 12를 의미하는 특수

특수어라는 것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듯이
무질서하게 만들어지고 쓰여지며
자의대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만들어진 특수어의
파생 관계도 일련의 규칙을 보여준다

어인데 아무런 의미의 연결도 없이 8과 12(1+2)가 주는 시각적 유사성으로 ‘여자의 가슴’, ‘남자의 생식기’란 의미로 분화되어 쓰인다. 또 숫자 10을 의미하는 노광은 음성적 유사성으로 ‘여자의 음부’란 의미로 분화되어 쓰이고, 쪼자는 물건을 주고받는다는 의미의 유사성에서 성관계란 의미로 분화되어 쓰인다. 틀에 박힌 일상생활에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새로운 변화와 감각을 시도한 특수어들이라 하겠다.

동대문 상인집단의 특수어중, 전의에 의한 것은 어떤 사물의 외적인 모습을 상징적으로 하여 그 비슷한 점을 근거로 대표사물을 추리해 내는 유추형으로서 특수어의 일부분을 차지한다.(3%) 일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은 한 의미로 통용되는 정상적인 표준어형 대신 통용서 속에서 다른 어형을 대치하여 본 뜻을 은폐하는 전의의 방법이다. 결국, 이것은 특수어를 통용어의 한 부분으로 착각하게 하는 재주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 ‘해파리〈자가 가게 구역 내에서 호객행위하는 것〉’, ‘고추가루〈사장〉’, ‘꽈배기〈물건 바꾸러 오는 것〉’, 등이 있는데 단순히 욕구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언어 유희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전의적 특수어는 수도 적고 최근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걸로 보아 언어유희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사어화(死語化)되고 있다.

### 3.기타

한자계열 특수어 중에서 1숫자를 의미하는 ‘건’을 살펴보면, 박영섭 교수는 우리 신체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머리이고 그래서 머리에 두르는 수건(巾)에서 1숫자가 나왔다고 본다. 4숫자는 천간의 4번째가 ‘정’인데 여기서 4숫자가 나왔다고 본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1숫자는 주역에서 8괘의 맨 처음이 건(乾)인데 여기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또한 4숫자의 경우 옛날 우리 선조들은 책의 권수를 표시할 때 4권짜리 경우 春·夏·秋·冬, 혹은 元·亨·利·貞으로 표시했다. 후자의 4번째 ‘貞’에서 4숫자가 나왔다고 본다. ‘외백이’는 ‘외+백(百)+이’로 생각해 볼 때 백(百)이 단순히 백이란 의미가 아니라 ‘많다’라는 의미로 ‘외백이’는 ‘있어 보이는’ 의미가 됐다고 본다. ‘아이미’는 ‘아이+ 어미’로 축약되어 ‘아이미’가 됐다.

## Ⅶ. 특수어의 품사별 분포

우선 일부나마 각 분사별 특수어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명사 〈 88% 〉 )
앵이 - 돈
짜바 - 원가
데치미 - 침대카바
연하치 - 고급손님

( 동사 〈 9% 〉 )
꺽어지다 - 이윤이 반이상 넘다
쫄밀이다 - 밀지고 팔다
아도치다 - 매점매석 하다
노총나다 - 들키다

( 관형사 〈 3% 〉 )
외백이 - 원가와 판매가의 차이가 많이 나는
씨아이 - 원가와 판매가의 차이가 적게 나는
가봉 - 있어 보이는

( 부사 〈 2%〉 )
마을 - 얼마
·쌔봉 - 아니다, 없다

(형용사 〈 1%〉 )
쌔봉재 - 조용히 하다

위의 언어자료로 볼 수 있듯이 동대문 상인집단의 특수어를 품사별로 보면, 명사가 압도적으로 많고 생산적이다. 이는 조사와 결합하여 여러 가지 문장 성분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동사·관형사·부사·형용사 순이다. 여기서 관형사적 특수어들는 뒤에 오는 명사의 수량이나 지시성을 띠지는 않는다. 체언이 가리키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어떠한’의 방식으로 꾸며 주는 성상 관형사들이다.

특수어 품사분류를 통해 그 조어 관계를 살펴 볼 수가 있다. 곧 명사 형성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보통명사로서, ‘연하치’, ‘짜국’, ‘껌자’ 등의 단순어(simple word)보다는 ‘차궁이’, ‘뚤자’, ‘빠꿈이’ 등의 파생어(clerivational)가 많았으며, ‘고추가루’처럼 합성어도 보인다.

파생어의 경우 접두사와의 복합체계는 거의 없고 대개가 접미사와의 복합체계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의미 구조상의 특징에서는 유연성에 의한 조어가 많았는데 그 예로 ‘정자’, ‘뚤자’, ‘탓자’, ‘쫄자’ 등과 ‘모동이’, ‘기둥이’, ‘중기둥이’, ‘시동이’, ‘생시동이’ 등이 있다.

동사의 경우는, 특히 자립형태소(free morpheme)와 의존형태소(bound morpheme)의 합성어가 가장 많았다. (‘때치다〈덤핑으로 물건을 사들이다〉’, ‘노총나다〈들키다〉’, ‘쫄밀이다〈밀지고 팔다〉’, ‘쪽나다〈계약이 파기되다〉’) 등이다.

이상 살펴본 바를 간단히 요약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 Ⅷ. 결론

지금까지 동대문 상인집단의 특수어를 조사하고 분석·검토하여 이 특수어의 특징 및 사회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대문 상인집단의 특수어는 비밀유지를 목적으로 환경과의 대립이나 갈등을 통해 동대문 상인간에 서로 익숙하게 사용하는 은어나 속어를 뜻한다.

둘째, 특수어가 일단 시장이라는 한정된 집단에서 사용되면 통용어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변경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단 내에서 사회성을 띠게 된다. 단, 이 제한된 집단의 범위가 넓어져 그 사회성이 일반화되면 특수어로서의 특성은 없어져, 통용어 속에 침투 번식하여 속어·비어 등으로 쓰이거나 또는 신생어로서 버젓하게 표준어의 하나가 되는 현상도 빚어진다. 특수어는, 처음에는 일반이 기피하다가 은연중 이의 신선미나 우수성을 인정하여 통용어로 받아들이게 되며 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표준어의 무리에 끼게 되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동대문 상인집단의 특수어가 통용어로 쓰이지는 않는다.

셋째, 특수어의 어원적 면에서는 사물의 형상을 빌려 전의한 것이나 전위, 그리고 분화의 방법 등이 보인다. 이는 비밀유지와 더불어 오락적 측면이 있음을 보여 준다.

넷째, 품사적인 면에서 명사가 90% 정도를 차지할 만큼 많았으며, 그 외에 동사·관형사·부사·형용사 등이 있다. 음소적 경향으로 파악해 보면, 숫자에서는 단음절어가 많았고 그 밖의 특수어에서는 다음절어(2·3·4 순으로)가 많았다. 단음절어는 다음절어에 비해 불안정하거나 청각인상이 불분명한 반면, 간소화를 위한 노력절약의 경향을 보여준다. 따라서, 특수어도 간편하게 하거나 또는 그 의미를 빨리 파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은폐성이 특히 필요한 수사적 특징의 특수어에만 극히 제한되어 단음절어가 쓰이고 있다.

결국, 이 논고를 통해 특수어라는 것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듯이 무질서하게 만들어지고 쓰여지며 자의대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만들어진 특수어의 파생 관계도 일련의 규칙을 보여준다. 곧 언어사회 속에서는 일정한 질서가 있고 그 질서는 바로 언어와 사회·문화와 유기적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일례로, 하나의 특수어가 그와 유사한 형태의 특수어를 창출해낸다(‘정자’→ ‘탓자’, ‘쫄자’, ‘뚤자’ 등) 더욱이, 형성된 어휘가 한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려면 오랫동안 그 집단 구성원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렇게 하여 만들어진 특수어는 자연발생적인 것이 그 주된 원인이 되며, 시간이 흐를수록 집단 구성원의 독창적 과정을 거쳐서 파생되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현대시장의 등장으로 재래시장의 입지는 자꾸 좁아지고 있다. 결정적으로 특수어의 토양인 비정찰제- 가격흥정- 사라지는 추세여서 특수어 사용에 있어서 어휘의 양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수어 보존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나아가 어원연구는 미흡한 상태인데 특수어들의 정확한 어원을 밝히고, 교류가 활발한 부산의 진시장, 대구의 서문시장, 광주의 양동시장에서는 이런 특수어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 공시적·통시적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

학술 당선소감

이일섭〈한국어교육과 4〉

## “개성상인과 동대문상인의 특수어 비교하고파”

운명은 개척하는 자의 것이다.

막연히 생각만 가지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목표를 잡고 성실히 일을 추진해 간다면 뿌연 안개가 걷히고 길이 보이는 것 같다. 자료 수집차 처음 동대문 시장에 갔을 때 상인들의 텃새에 주눅이 들어 자료수집은 고사하고 말 한 마디도 제대로 건내지 못했다. 어떻게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한 달쯤 보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한 줄의 글도 쓰지 못했다. 용기를 내어 동대문 상인들을 만났다. 진드기처럼 붙어 다니며 말을 붙이자 그들도 마음을 열어 주었다. 비로소 책 속에 박제된 자료가 아닌 살아 있는 언어 자료들을 모을 수가 있었다. 특히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동대문종합시장내 이화커튼 고광석 부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미천한 나의 글을 가작으로 뽑아주신 심사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 개성상인의 특수어와 동대문상인의 특수어의 상관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

학술 심사평

박정운〈영어과 교수〉

## “독창적인 면 돋보여”

이일섭의 “동대문 상인집단의 특수어 연구: 재래 시장을 중심으로”는 동대문 상권의 상인들 사이에 사용되는 특수어(은어)들의 발달과 특성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다.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동대문 상인집단의 특수어 자료들에 근거하여, 그러한 특수어의 발달과 쇠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배경을 논의하고, 일부 특수어이 발달에 대한 어휘 의미론적 분석을 시도한 점 등, 저자의 독창적인 면이 돋보인다.

그러나 직,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선행연구들에 대한 문헌 연구가 미흡하고, 논문의 내용을 벗어난 목표를 내세운다든지, 은유나 환유와 같은 의미확장의 일반적인 기제들을 통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는 것 등이 아쉬운 점이다. 또한, 용어 선택이나 우리말 자체에 종종 문제점이 있고, 논문의 짜임새가 성기고, 참고문헌 작성이나 각주의 사용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등 스타일상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독창성을 살리면서, 위에서 지적한 내용과 스타일 상의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 한다면 아주 우수한 논문이 될 것이다.

## 우리 '동아리'로 오세요

3월

외대는 학교 규모에 비해 동아리 수가 많은 편입니다. 흔히들 대학생이 되면 진정한 인관관계 맺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치 않습니다. 작은 단위로 구성된 동아리를 통하여 중, 고등학교 못지 않게 끈끈하고 허심탄회하게 지낼 수 있는 선배, 동기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학부제 때문에 소속감과 유대감이 없어 방황하는 학우들이 많은데 동아리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각 동아리들은 새내기 맞을 준비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자신의 몸값을 높이면서 진정으로 원하는 동아리의 문을 두들이십시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사람들의 관심분야가 참 다양합니다. 체육, 노래, 율동, 학술, 시사, 역사등등 동아리의 분야는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힘든 고등학교 시절을 거쳐 대학이라는 공간에 많은 환상을 가지고 계실텐데 얼마가지 않아 그 환상이 깨질것입니다. 그렇다고 푸념만 하지 말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찾아간다면 대학생활이 더 알차고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동아리를 찾는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선배가 끌고 왔어도 관심이 없고 방향이 맞지 않다면 재미도 없고 힘만 빠지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리에 대한 의문점이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동아리 연합회를 찾아주십시요.

이성대(서양 · 영어 2) 서울배움터 동아리연합회장

## 과생활의 활력소, '모꼬지' 가요

4월

M.T(Membership Training)는 우리말로 모꼬지라고도 합니다. 모꼬지란 말 그대로 과 구성원들의 친목을 다지는 행사입니다.

사회가 각박해지고 개인주의화되는 경향이 짙게 되다보니 요즘의 대학은 옛날에 비해 서로간에 끈끈한 정이 많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꼬지가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과 사람들끼리 한번에 모이는 기회가 그리 쉽지는 않거든요.

보통 1박2일 정도의 모꼬지 기간에는 사람들끼리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 많은 것을 하죠. 게임이나 장기자랑, 라이프스토리 등등. 그러면 으레 유명한 인사(?)들이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죠.

과거에는 모꼬지가 서로간의 친목을 다지기보다는 처음부터 술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술로 끝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모꼬지에서 새내기들에게 짖궂은 장난(?)을 서슴없이 하는 선배들도 있지만 선배들은 새내기들이 마냥 귀엽기만 합니다.

모꼬지에서 술자리가 무르익으면 학과, 인생, 이성문제까지 서로 허물없이 이야기하면서 서로간의 '정'을 쌓아가기도 합니다.

또 모꼬지를 틈타 학내 커플(소위 'CC')이 생기기도 하죠. (주위를 눈여겨 보세요)

대학생활에서 끈끈한 '정'을 느끼고 싶다면 꼭 모꼬지를 가세요!

구교한(서양 · 이태리어 4)

## '한총련'을 모른다구요?

5월

사실 저도 여러분들처럼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는 한총련이 친북적이고 폭력적이라는 말만 듣고 심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권력층에 붙어 기생하는 우리나라 언론의 왜곡 · 편파보도인 줄도 모르구요.

그러나 새내기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생들은 한총련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한총련은 우리 대학과 사회의 본질적 문제들을 지적하고 올바른 대안을 가지고 이를 위해 실천하는 건전한 단체입니다.

한총련이 전국의 100만 대학생들의 단체인만큼 그 출범식도 웅장, 화려하답니다.

5월에 열리는 한총련 출범식은 전국에서 달려온 백만 청춘이 단합하는 축제의 장이죠. 끝이 보이지 않는 인파속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라이터쇼! (어두운 밤, 백만청춘 모두가 서로를 확인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친다는 것만으로도 가슴벅참을 느낍니다. 또한 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만날 때 우리가 나누어 드리는 유인물을 꼼꼼히 읽어주시고 "학생들 바른 말하네" "학생들 수고하는 군"이 한마디를 건네주실 때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힘이 솟습니다.

5월이 오면 새내기 여러분, 함께 이 감동을 느껴 보자구요.

김현식(법 · 법학 2) 서울배움터 법대 학생회장

## '농활'처럼 귀중한 경험은 없다

6월

'농활'은 새내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농활'은 '농민학생연대활동'의 줄임말로, 농활에 가면 보통 오전 · 오후는 일손을 돕고, 저녁에는 분반활동을 합니다. 분반활동은 크게 아동반, 청소년반, 여성농민반, 청장년반이 있지요.

저는 풍물패로써 낮에는 마을에 들어가 일을 하고 저녁마다 각 마을을 돌며 지신밟기도 하고, 마을잔치 등에서 판을 벌였습니다. 특히 제가 농활 갔던 전라북도 순창에는 특히 풍물에 귀가 트이신 분들이 많았고 생활 속에서 배운 '산 풍물'을 그 분들에게서 배울수 있었어요. 풍물의 원형을 찾아간 거라고 할 수 있죠. 정말로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분들과 함께 술도 마시고, 밥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력부족, 농가부채 등 어려운 농촌의 현실도 알게 되었고 웃어른에 대한 예절도 몸으로 익히는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회생활을 하다보면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지기 쉬운데 10여일간의 농활기간 동안 친구들과 더 친해지고 대학만의 공동체 문화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농민분들과 생활하며 그 분들의 삶과 우리들이 분리되지 않았음을 느꼈고, 그분들과 어울리며 진정한 '대동'의 장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일이 좀 고되지만 농활 한 번 갔다오면 다시 꼭 가고 싶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문현주(사회 · 신방 2)

## 세계가 '외대생'을 기다립니다

7월

'중앙아시아 투르크계 경제권의 발전가능성 연구'란 주제로 LG 21세기 선발대에 참여해 중앙아시아 해외탐방을 다녀왔습니다. 탐방 중에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터키에 갔을 때는 TV에 출연하기까지 했죠. 중앙아시아를 탐방할 때도 영사관에서 KOTRA까지 해외에서 많은 외대 동문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제가 외대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번 탐방은 '세계 속의 나'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화란 미국, 일본 몇나라만 알아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외국에선 영어, 일어만 쓰는게 아니니까요. 각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외대인이야 말로 이미 세계인으로의 첫발을 내딛었다고 할 수 있죠.

외대인의 도전을 기다리는 나라는 세계에 정말 많습니다.

누구의 말처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99학번 새내기 여러분도 세계에 도전해 보세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터키 등을 탐방한 후 저는 외대인은 안에서 보단 밖에서 더욱 빛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계가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오종진(동양 · 터키어 4)

## 평양외대생과 함께 통일축전을

8월

무더운 여름, 새내기 여러분이 수능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저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대축전' '9차 범민족대회'에 다녀왔어요.

범민족대회는요, 매년 '통일'을 염원하면서 남, 북, 해외에서 공동으로 축전을 벌이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범민족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들, 각계각층 민중들로 들끓어요. 이때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들로 행사장은 더욱 활기를 띤답니다.

축전에 맞게 다양한 행사도 많아요. 노래패, 풍물패 공연에서부터 각 학교 새내기들의 장기자랑까지… 저는 풍물패 동아리에서 활동해서 그런지 '노동자의 삶'을 형상화한 풍물 공연이 기억에 남아요.

참! 그때가 한창 장마철이었잖아요. 그때 우리 언니, 오빠들은 우산도 없이 비닐옷을 입으며 중앙공연을 관람했었는데, 학교로 돌아와서는 모두들 그때의 고생을 까맣게 잊고 "비 맞으면서 4박 5일 버텼다"라고 무용담을 늘어놓죠.

이러한 축전이 끝나면 판문점까지 행진을 하는데 올해는 못 갔어요. 통일을 하고 싶다는 대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고 온갖 신식무기로 무장한 전투경찰을 동원한 정부의 탄압때문이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은 더욱 뜨거워집니다.

박지은(동양 · 인도 2)

## 외대의 자랑, 세민전을 기대하세요

9월

짝수년도에는 용인배움터 학생들이 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세민전)을, 홀수년도에는 서울배움터 학생들이 세계민속예술제(세민제)를 준비해서 무대에 올려요.

작년에 열린 98세민전은 크게 세계풍물음식전과 세계민속공연, 세계영화제로 이루어졌어요.

세민제는 대부분 과 학회(민속춤반, 원어노래반 등)를 중심으로 준비를 해요. 학기초부터 선배들의 지도를 받으며 무대에 오르는 그날까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지요.

그렇게 잘해주던 선배들은 공연 날이 다가올수록 무섭게 변하고 왜 그런지 우리의 춤 실력은 늘지도 않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로지 큰 무대에 서본다는 기대 하나로 버텼죠.

결전의 그날, 무대에 오르고 난 뒤 그 허무함이란 말로 다 표현을 못할 정도. 바로 새내기 여러분이 수능 시험 끝나고 느꼈던 그 심정이랑 같을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해 냈다는 뿌듯함이 훨씬 크죠.

세민전의 막을 내릴 때 가장 아쉬웠던 것은 과 친구들, 선배들과 보냈던 시간들이였어요. 그렇지만 세민전을 준비하면서 '과'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좋았죠.

참, 세민전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모두가는 세민전 MT도 있답니다.

김재란(동학 · 마인어 1)

## 대학시험엔 정답이 없습니다

10월

새내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대학교 시험은 고등학교 시험이랑 많이 다릅니다.

고등학교 시험은 정확한 답이 있어 달달 외우면 되지만 대학교 시험에 그렇게 하면 낭패보기 쉽상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 주관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쭉 풀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새내기들이 수업을 잘 듣지 않아도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수업시간에 빠지게 되면 시험시간에 교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몰라 좋은 성적을 받기기 힘들기 때문이죠. 장학금을 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들이는 방법은 수업시간에 충실히 하고 노트필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평소에 독서도 풍부하게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솔찍히 내가 선배가 된다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대학교에서도 고등학교때처럼 공부하는 거 싫으시죠? 자신이 언제,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참된 대학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수업시간이라면 열심히 수업을 듣고 선배나 동기들이 술을 마시자고 하면 수업이 끝나고 신나게 마시며 때론 진지한 고민도 해가면서 대학생활을 즐기는 거예요.

놀때는 아무 걱정 없이 신나게 놀고 공부할때는 공부만 열심히 하자.

임미수(인문학부 1)

## 비판과 공론의 장, 학생회선거

11월

11월은 학생회 선거가 있는 달입니다. 과 학생회, 단대 학생회, 총학생회 선거가 있지요. 우리는 선거를 통해 학생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대학은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하나의 준사회입니다.

학생회는 그 준사회의 구성원인 학우들이 바탕이고 학생회를 선출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입니다. 선거는 투표라는 방식을 빌려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선거기간은 비판과 공론의 장으로서 실천하는 지성의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학교의 발전방안,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지요.

자기주장있는 멋진 신세대, 멋진 새내기라면 투표를 하세요. 학생회를 만들고 이끌어 나가는 것은 특정한 누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니까요.

사회의 선거와 대학의 선거는 다릅니다. 사회의 선거는 자신의 이득이나 이권을 위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대학의 선거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 안고 남을 위해 일한다는 각오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선거와 학생회는 순수하고 열정적입니다.

여러분 중 누구나 외대 학우를 위해, 외대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다면 99학번 새내기 누구든 학생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현수(사회 · 신방 4) 서울배움터 33대 총학생회장